

석사학위논문

감정과학에 근거한 문화소비 개념 연구  
- 論語의 감정과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cept of Cultural Consumption Based on Science  
of feelings

- Focusing on the emotional science of Analects -

국 민 대 학 교 일 반 대 학 원  
문화교차학협동과정 문화예술학전공

왕 우 가

2022

감정과학에 근거한 문화소비 개념 연구

- 論語의 감정과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cept of Cultural Consumption B  
ased on Science of feelings

- Focusing on the emotional science of Analect

S -

지도교수 성 동 권

이 논문을 문화학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 월

국 민 대 학 교 일 반 대 학 원

문화교차학협동과정 문화예술학전공

왕 우 가

2022

왕우가의

문화학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2023년 7 월

심사위원장 유영관 ㉠

심사위원 최인호 ㉠

심사위원 성동권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 차 례

국문 요약 .....	iii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화소비의 일반 담론과 그 문제점 .....	2
1. 문화소비를 바라보는 두 시선 .....	2
2. 일반 담론의 비판 및 문제제기 .....	9
제2절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	15
1. 연구 방법 .....	15
2. 연구 범위 .....	24
제2장 문화에 관하여 .....	27
제1절 문화(文化)의 개념 분석 .....	27
1. 문(文)의 개념 분석 .....	27
2. 화(化)의 개념 분석 .....	42
제2절 감정과학의 문화(文化) 개념 .....	56
1. 문(文): 거룩하고 성스러운 천자(天子)의 ‘몸’ .....	56
2. 문화(文化): 천자로 생겨나고 놀이하는 ‘나’ .....	68
3. 요약: 감정과학의 문화개념 정리 .....	72
제3장 문화상품에 관하여 .....	73
제1절 상품에 관하여 .....	73
1. 상품에 대한 일반적 이해 .....	73
2. 비판 및 결론 .....	77
제2절 문화상품에 관하여 .....	80
1. 덕(德)에서 기원하는 문화상품, 재(財) .....	81
2. 이미 문화상품으로 존재하는 ‘나’ .....	83
제4장 문화상품의 소비에 관하여 .....	90
제1절 덕(德)에 기초한 소비 .....	90
1. 예술로서 문화소비 .....	90
2. 정의로운 문화소비 .....	93
3.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문화소비 .....	97

제2절 문화소비의 원칙과 내용 .....	98
1. 문화소비의 원칙 .....	98
2. 문화소비의 내용 .....	101
제5장 결론 .....	104
참고 문헌 .....	107
Abstract .....	110

## 국문 요약

대학을 졸업한 후, 나는 전자상거래 업계에 들어갔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자 상거래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동종 기업이 점점 더 많아지고 경쟁력이 점점 더 높아짐에 따라 나의 사업은 처음의 순조로운 출발과 달리 서서히 침체되는 병목 단계에 이르렀다. 내가 맡은 업무의 대략적인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간단한 업무 같지만, 고객을 응대함으로써 상품을 판매하는 이 업무는 나에게 쉽지 않았다. 내 능력이 아직 많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고심 끝에 나는 국민대학교 문화교학과에 입학함으로써 소비의 개념을 탐구하고 싶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국에서는 소비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서 소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 가운데 나는 문화소비라는 개념이 좋았다. 소비를 문화로 접근하고 이해함으로써 올바른 소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이해는 그동안 내가 받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나에게 주었다. 이에 나는 국민대학교 문화교차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시작했고, '문화소비'의 개념을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인민의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문화소비'라는 단어는 점점 더 사람들의 생활 영역에 진입했다. '문화소비'의 개념은 사람들의 생활 소비에서 점차 중요한 주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문화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문화소비를 육성하고 확대하는 것이 정부, 기업 및 대중의 공동 관심의 초점과 추진 방향이 되었다. 그렇다면 '문화소비'를 정의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며 '문화소비'를 정의하는 방법이 관건임을 알 수 있다.

논문의 첫 번째 장에서는 '문화소비'에 대한 학자들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이해를 통해 '문화소비'의 개념을 결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모든 논란을 없애고 '문화소비'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이 '감정과학'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근본적으로 공자의 유교 문화에서 비롯된 연구방법으로서 감정과학을 사용한다. 이 연구방법을 통해서 소비를 현상이 아닌 본질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감정과학은 '문화소비' 개념의 연구 기반이다.

이 연구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문화의 개념(2장), 문화상품의 개념(3장), 그리고 문화상품의 소비에 대한 개념(4장)을 탐구하였다. 문화는 우리 몸에 고유한 본질이다. 그것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문(文)은 몸이며, 화(化)는 몸의 변화이다.

문(文)으로 이해하는 몸의 진실은 생명과 사랑이기 때문에 몸의 변화로서 화(化)도 생명과 사랑이다.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놀이하는 모든 것은 생명과 사랑 안에 존재한다. 이 사실로부터 문화상품은 생명과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며, 따라서 문화소비는 생명과 사랑에서 나오는 모든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소비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정립할 수 있다. 문화소비는 생명과 사랑으로 존재하는 우리 몸이 생명과 사랑을 위하여 만들어 내는 모든 상품을 생명과 사랑으로 소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소비를 이해하는 한에서 소비는 어느 일방만의 부(富)를 축적하거나 그것을 목적으로 어느 일방을 착취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생명과 사랑 안에서 존재하는 우리가 오직 생명과 사랑을 위해서 서로의 생명과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것이 문화소비이다.

주제어: 문화소비, 문화, 문화상품, 몸, 덕, 감정, 생명과 사랑, 영원무한, 감정과학.

## 제1장 서론

본 논문의 저자로서 나는 중국에서 인터넷 및 방송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자의 ‘상품’과 소비자의 ‘소비’ 사이를 매개하는 사업을 운영했다. 이러한 사업 활동은 당연히 경제적 부(富)를 목적으로 하였고, 이 목적 하에 나는 열심히 사업을 운영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지만, 일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은 충분했다. 그리고 이에 비례하여 나는 소비에 대한 생각을 서서히 하게 되었다.

### ‘소비’(消費)는 무엇인가?

: 소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소비에 대한 정의이다.

### ‘소비’(消費)의 올바른 의미는 무엇인가?

: 이는 소비 활동에 대한 정의이다. 무엇을 생산하고(상품) 무엇을 소비하는 것이 소비 중심의 경제활동 영역에서 인간의 행복감을 가져다주는가?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소비에 대한 많은 논의들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나에게 크게 다가온 주제는 ‘문화소비’(文化消費)라는 개념이었다. 경제학은 ‘소비’의 개념을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sup>1)</sup> 이 경우 소비는 생산, 분배, 교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이다. 그런데 최신 연구에 의하면 ‘소비’ 앞에 ‘문화’를 둬으로써 ‘문화소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현대 학자들의 이해를 정리하면,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그것이다.

문화소비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문화소비가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고 사람 간의 교류를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문화소비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문화소비가 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소비이므로 궁극적으로 인간의 정신 건강을 파괴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본 논문의 저자는 이러한 견해들이 ‘문화소비’의 현상에 의존함으로써 문화소비의 개념을 탐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문화소비’에 고유한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 문화소비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가

---

1) 會計百科(회계 백과), 2022, “經濟學的消費定義,” <https://baike.lichenjy.com/xiaofei/3473.shtml>(검색일: 2022. 09. 24).



소비의 현상을 가지고 문화소비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싸움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정과학에 기초하여 문화소비의 본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으로 문화소비의 올바른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보다 구체적으로 ‘감정과학’(Science of Feelings)에 기초하여 문화소비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감정과학은 소비의 주체인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과학이기 때문이다.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로 인간의 소비를 이해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 목적에 집중하여 본 논문의 서론은 문화소비 관련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겠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시하겠다. 이에 기초하여 논문의 본문에서는 문화소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겠다.

## 제1절 문화소비의 일반 담론과 그 문제점

여기에서는 논자(論者)의 연구배경에서 나오는 문화소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정리하겠다. 즉, 주제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비판 및 분석을 시도하겠다. 그 결과 논문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제시하겠다.

### 1. 문화소비를 바라보는 두 시선

문화소비에 관하여 종래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문화소비가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식활동에 진보를 가져온다는 ‘긍정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와 자본의 결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화소비의 ‘부정적 관점’이다.

#### 1) 문화소비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

##### (1) 소비와 행복의 관련성

쯔수룽(資樹榮)과 장레이쥔(張姣君)은 「문화소비활동이 농촌지역 주민의 행복감을 높였는가?-CGSS 데이터에 기초한 실증분석」에서 문화소비가 소비자 본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및 그로 인한 인간 상호간의 사회적 유대의 형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문화소비는 소비자의 사회관계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행복감을 창출할 수 있다. ... 문화소비는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고, 심신의 건강은 소비자의 행복감을 창출할 수 있다. ... 미시적으로 볼 때 소비자의 문화자본은 문화소비의 내생적 원동력을 구성한다. 한편, 소비자의 문화자본이 증가하면 문화소비 선호도가 증가하고 문화소비 선호도의 범위가 확대되며 문화소비 수요도 증가하며, 다른 한편으로 문화소비의 증가는 소비자의 문화자본 축적을 촉진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소비자의 문화자본이 증가하면 문화소비 능력과 소비 수준이 향상될 수 있으며 문화제품의 품질에 대한 요구 사항도 증가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문화소비 수요 증가를 촉진한다. 농촌 주민들의 문화자본이 많아지면 문화소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농촌 주민들의 문화 자본 축적을 촉진하여 문화소비를 늘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sup>2)</sup>

쯔수룽(資樹榮)과 장레이쥔(張姣君)에 의하면, 소비자는 문화소비를 통하여 심신의 건강과 행복감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소비자의 사회관계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두 저자는 문화제품과 서비스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주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세 가지이다.

- ① 문화적 의의 있음
- ② 제품의 생산요소에 문화자본요소가 포함됨
- ③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는 효용은 미적, 정서적, 정신적, 가치정체성, 상징, 오락적 등의 의의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문화소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의 대상이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문화자본요소가 포함된다.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문화자본이다. 그 결과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산물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문화소비라고 한다. 오직 이러한 문화소비만이 소비자의 행복을 고취시킬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소비할 때 소비는 행복으로 직결되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유대감 및 안정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정신생활에 대한 욕구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문화소비는 정신생활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정신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2) 資樹榮(쯔수룽)과 張姣君(장레이쥔), “文化消費活動提升了農村地區居民主觀幸福感嗎?”——基于CGSS數據的實証分析(‘문화소비활동이 농촌지역 주민의 행복감을 높였는가?’-CGSS 데이터에 기초한 실증분석), 『消費經濟(소비 경제)』 (湘潭大學 商學院(상탄 대학 경영대학원), 2020), pp. 57-63.

역할을 한다. 한 개인의 삶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신의 행복감을 크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소비활동이 인간의 행복감을 향상시키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론적 가치와 현실적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문화소비활동과 소비자는 상호 성취의 관계이며, 우리는 문화소비를 통해 행복을 얻고, 행복을 얻는 소비자는 문화소비행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유지할 수 있다.

## (2) 소비를 통한 사회활동 증진

양판(楊帆)은 소논문 「문화자본, 사회계층, 문화소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문화발전의 다양화와 급속한 발전과 함께 문화소비는 이미 인류의 사회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고, 하나의 생활양식이 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와 예술이 인간의 사회활동에 존재하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에서도 문화소비가 빠지지 않는다.

문화소비에 대하여 양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오늘날 문화산업은 문화예술 존재의 기초 형태가 되었습니다. 문화소비는 사람들의 정신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소비로서 문화 산업의 전체 운영 과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화소비는 정신 문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감상, 점유 및 사용을 의미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문화 오락, 예술 감상, 교육 및 훈련, 스포츠 및 기타 측면을 포함하는 생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sup>3)</sup>

인용문에 의하면, 문화소비의 주된 구성은 문화 자본과 사회 계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소비는 사회활동에서 구체적이며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욕구 충족은 인간 정신의 행복을 가져온다. 문화소비를 욕구 충족으로 이해하는 논자의 논의를 분석한다면, 소비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그렇게 소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활동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전반적인 자질이 향상된다. 문화소비를 통해서 소비자의 문화적 소화, 상속, 축적, 재생 및 혁신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배우와 감독 그리고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 좋은 영화를 만들었다고 상상해 보자. 우리는 기꺼이 이 좋은 영화를 위해 100위안을 소비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영화를 친구나 가족에 소개한다. 이것은 그들이 그 영화를 관람하기 바라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이처럼 문화소비는 소비자에게 행복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을 강화시키며 중국에는 사회적 행복 및 일체감을 확인시켜준다. 이에 대

3) 楊帆(양판), “文化資本、社會階層与文化消費的關係研究문화자본(사회계층, 문화소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商業經濟(기업 경제)』 (濟南大學(지난 대학), 2022), p. 10.

한 가장 분명한 증명은 소비의 결과 발생하는 금전적 이득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를 우리가 소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문화소비는 엄격히 말해서 금전적 이득 같은 자본의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화소비는 우리 자신의 감정이 자기에게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판단하며 추구하는 행복감정이 하는 일이다. 그 결과 금전적 이득과 같은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며, 그것은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과 문화를 생산하는 사람 모두를 행복 감정으로 인도한다. 이 행복 감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는 사회의 건강과 발전을 촉진한다. 문화소비의 개념을 연구해야 하는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3) 문화소비를 통한 사회 발전

류룽(劉容)은 소논문 「국내외 문화소비 연구평론」에서 문화소비를 경제발전의 산물로 이해한다. 경제발전과 함께 문화소비는 부단히 발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소비의 주체, 즉 ‘문화소비자’는 경제발전과 함께 수반되는 인지 능력과 감상능력 그리고 과학문화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화소비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논자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문화소비를 촉진하는 문화 콘텐츠가 더 많이 등장하게 되어 있고 동시에 이것은 다시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한다. 이점을 류룽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문화산업에서 제공하는 문화소비 제품에서 관련 문화소비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문화소비를 정의하는 관점이 되었습니다. 문화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문화소비의 대상을 제공하며, 문화소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sup>4)</sup>

문화소비의 핵심은 소비가 아니라 문화에 있으며 소비는 문화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문화소비는 다른 형태의 소비와 달리 내용과 표현이 풍부하며,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통한 만족경로 역시 다양하다. 이러한 문화소비만의 특수성을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① 문화소비는 정신적 소비를 핵심으로 하는 소비이다.
- ② 문화소비는 지식에 기초한 소비이다.

---

4) 劉容(류룽), “國內外文化消費研究述評(국내외 문화소비 연구 술평),” 『合作經濟與科技(협력경제와 과학기술)』 (重慶社會科學院(충청 사회과학원), 2018), p. 85.

- ③ 문화소비는 체험소비이다.
- ④ 문화소비는 소비자 개인을 위한 소비이다.
- ⑤ 문화소비는 시간을 즐기는 소비이다.

문화소비는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물질적인 삶에 감정의 행복을 확인함으로써 몸(감정)과 몸(감정)이 서로 교차하는 세상의 행복을 실현한다. 그 결과 소비자 개인의 행복이 곧 사회 전체의 행복이며, 그 결과는 사회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외식할 때 맛있는 음식을 즐기다 보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음식을 둘러싼 자연 환경이나 노동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그 결과 단순히 음식만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 및 사회 환경 등과 같은 인간의 행복에 대한 생각과 함께 이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소비를 결정한다.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자연 환경을 파괴하거나 노동 착취 같은 사회적 불의(不義)를 야기하는 기업에 대해서 소비자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소비는 음식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문화소비는 경제 발전 및 사회발전을 가져온다. 중국에서 관광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는 위광위안(于光遠) 씨는 '관광은 경제성이 강한 문화 사업이자 문화성이 강한 경제사업'<sup>5)</sup>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문화 사업을 통해서 관광 사업을 할 때 관광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민간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 발전은 어느 한 사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다 좋은 세상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문화소비의 문화성은 소비자의 행복 및 그가 속한 문명을 촉진한다. 그 결과 문명은 보다 발전할 뿐만 아니라 그에 고유한 문명적 특성을 갖게 된다. 문화소비는 끊임없이 인류 문화를 보다 더 큰 행복과 보다 더 큰 발전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 콘텐츠가 풍부한 문화적 의미를 반영하고 풍부한 문화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면 사람들의 정신적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다. 즉, 문화소비의 문화성을 견지해야 문화를 선도할 수 있다.

## 2) 문화소비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

### (1) 상업적 목적에 의해서 왜곡된 기형적인 소비

5) 于光遠(위광위안), 『于光遠馬惠娣十年對話——關於休閒學研究的基本問題(위광위안 마후이디 10년 대화 - 레저학 연구의 기본 문제)』 (重慶大學(충칭 대학), 2008), p. 1.

양의방(仰義方)과 담설민(譚雪敏)은 「문화소비주의의 표현형식, 생성 메커니즘 및 그 시정진로」에서 현대 사회의 문화소비를 자본과 문화가 결합하여 형성된 소비 형태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근거하여 '문화'는 자본에 의해 소비 가능한 '상품'으로 정의된다. 그 결과 문화소비는 상업적 가치에 의해서 왜곡되어 기형적으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한다. 자본 논리의 조작에 의해 기업은 오직 경제적인 이윤만을 추구하는데 몰입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소비자 역시 기업이 제시하는 소비의 환상에 의해서 자신의 정신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논자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문화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정신적 동력을 제공하여 인간의 정신세계 질서를 개조하고 수양성의 가치를 드러내는 데 있다. 그러나 소비주의의 맥락에서 문화는 자본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문화가 자본에 의해 '협박'되어 문화적 공리화 특성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문화적 공리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첫째, 자본의 급격한 운영은 공리화 생산 분위기를 조성한다. 비즈니스 논리의 조작으로 자본 소유자는 문화의 가치 특성을 이용하여 사용 가치가 있는 문화를 상품으로 전환하고 임의로 가격을 책정하여 문화를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간주한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자본이 영화 및 광고 촬영에 유입되고 문화 생산은 자본의 종속으로 전락하고 소비자는 대량 생산 및 감상 가치가 없는 작품에 속고 생산 분위기가 조성되어 현실에서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둘째, 대중의 공리화 소비관은 문화적 공리화 과정을 가속화한다. 자본시장이 깔린 '블랙홀'에서 자신의 허영심과 공리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신적 물질적 부자인 척하는 일부 소비자는 물질화된 상품문화를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값비싼 문화상품이 주는 허영감과 만족감을 누린다. 예를 들어 현재의 특정 예술품 경매, 교육훈련 기관에는 공리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예술적 미학을 무시하고 진정한 삶에 대한 갈망을 상실했으며 문화 제품은 결국 소비재로 탈바꿈했다.<sup>6)</sup>

인용문에 따르면, 소논문 저자는 현재의 문화소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사회의 문화소비는 사람들이 자신을 잃게 하고 자본은 이익을 위해 그리고 소비자는 자신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공리화의 생산 과정은 문화가 본래의 정신적 동력을 잃게 하고 사람들은 점차 미적 예술을 무시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문화소비의 정신적, 문화적 기초를 찾아 심미 문화의 현실적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6) 仰義方(양의방)과 譚雪敏(담설민), “文化消費主義的表現形式、生成机理及其糾正進路(문화소비주의의 표현형식, 생성 메커니즘 및 그 시정진로),” 『思想教育研究(사상 교육 연구)』 (重慶大學(충청 대학), 2021), p. 89.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 개념을 기업이 제시하는 소비 목적으로 대체한 결과, 소비자는 소비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더 나아가 소비주체로서 소비자의 진실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는 소비를 수단으로 삼아 일시적인 허영심만을 채우는 데에 급급하게 되었다. 결국, 문화소비는 저급한 기형적인 것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소논문 저자가 제시하는 문제해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문화소비주의 사조의 실체를 폭로하고, 이데올로기 영역의 안전을 수호한다.
- (2) 건전하고 이성적인 문화소비 관념을 육성하고 주류 문화 정체성의 자각을 깊이 심어준다.
- (3) 다양한 형식의 우수한 문화 작품을 공급하여, 사람들의 아름다운 생활 수요를 만족시킨다.
- (4) 신문·여론의 전파력 지도력을 강화하고 사회·문화 전파 환경을 정화한다. 7)

소논문 저자는 주로 두 가지 큰 방향에서 시정 조치를 제안하는데, 우선 인용문 중 하나와 같이 자신으로부터 먼저 문화 확산의 진정한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주류 문화에 대한 인식을 함양한다. 둘째, 인용문의 (3)번과 (4)번 같은 외부 도움은 주류 문화 작품의 수출을 강화하고 뉴스 매체의 힘을 사용하여 의미 있는 문화 수출을 촉진한다. 문화소비를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 **(2) 인류의 정신을 방해하는 절제되지 않은 문화소비**

귀샤오렌(郭曉冉)은 「문화소비주의가 더 나은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해와 대응」에서 문화소비주의의 광범위한 확산은 인간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그가 제시하는 것은 문화소비가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 이용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소수의 부르주아 계급에게 과도하게 자본이 집중된다고 한다. 이러한 문화소비는 궁극적으로 문화상품을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생산할 뿐만 아니라 소비의 내용 또한 저속화와 저질화 및 도덕상실화를 초래한다고 한다. 이 주제에 대한 논자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부르주아 계급은 대량의 상품화, 자본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내포한 이른바 '대중문화', 즉 아도노와 호크하이머의 이른바 '문화공업'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소비

---

7) 仰義方(양의방)과 譚雪敏(담설민), “文化消費主義的表現形式、生成机理及其糾正進路(문화소비주의의 표현형식, 생성 메커니즘 및 그 시정진로),” 『思想教育研究(사상 교육 연구)』 (重慶大學(충칭 대학), 2021), pp. 92-93.

는 미덕이다', '나는 소비한다, 나는 소비한다'를 대대적으로 고취하여 대중을 끌리는 소비주의의 '함정'에 빠져들게 하고 소비에서 자신의 반항 의식을 약화시키고 마비시킨다. ... 예를 들어 사치품 소비의 서민화, 문화소비주의는 이러한 소비 평등의 개념을 문화 콘텐츠에 관통하여 광고,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대중 매체를 통해 널리 퍼지게 된다. 소비 기호를 계층 구분 기준으로 사용하여 하층민은 소비를 통해 상류 사회에 진입하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현상을 변화시키며 저항 의지를 약화시키는 일종의 심리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sup>8)</sup>

문화소비가 뜻밖에 인간 정신의 타락을 야기하고 소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면, 이러한 소비를 과연 문화소비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 귀샤오렌의 문제의식이다. 오직 자본의 증대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소비가 '문화소비'라는 미명 하에 과도한 콘텐츠를 만들고 동시에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소비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문화소비의 부정적 측면을 논의하는 두 편의 논문을 살펴보았다. 양의방과 담설민의 '논문'과 귀샤오렌의 '논문'은 문화소비가 인간 정신의 쇠락과 타락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소비가 소비자 개인의 정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양의방과 담설민이 논의하고 있다면, 귀샤오렌은 문화소비가 소비의 주체로서 일반 사람의 정신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비판하고 있다. 이상, 문화소비에 대한 부정적 측면의 논문을 정리한다. 끝으로 비판의 핵심을 정리하면 문화소비가 문화 콘텐츠 탄생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이다.

## 2. 일반 담론의 비판 및 문제제기

### 1) 일반 담론의 비판

#### (1) 문화소비를 긍정하는 입장 비판

문화소비에 대한 연구 논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 논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문화소비의 '긍정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소비의 '부정적 측면'이다. 그러나 이들 논문은 대체적으로 문화소비를 소비의 '현상'으로 연구하고 있다. 문화소비에 고유한 본성 또는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는다. 소비의 현상에 근거하여 문화소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그와

8) 郭曉冉(귀샤오렌), “文化消費主義對美好精神生活的危害與應對(문화소비주의가 더 나은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해와 대응),”『新疆社會科學(신장 사회과학)』(西華師範大學(시화사범 대학), 2020), pp. 108-109.



반대로 문화소비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문화소비의 긍정적 측면을 논의한 첫 번째 논문에 의하면, 문화소비는 체험적 소비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소비를 통한 행복 감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가져오는 문화소비의 체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 어떤 소비의 체험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일까?

소비를 통해서 느끼는 행복 감정을 두고 문화소비라고 규정한다면, 문화소비의 부정적 측면을 논의한 양의방과 담설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어떤 소비가 과시와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소비라고 상상해 보자. 그런데 정작 그 소비의 주체가 체험하는 감정이 허영심이 아니라 행복 감정이라면, 이 소비는 과연 문화소비인가 아닌가? 소비 주체인 자신에게는 문화소비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허영심을 채우는 소비라면 자신의 소비는 과연 문화소비인가? 이렇게 소비의 주체가 느끼는 행복 감정과 그 소비를 바라보는 사람의 감정이 서로 어긋날 때, 이 경우 어떤 소비가 과연 문화소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결국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소비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 한다. 나의 소비가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자기 스스로 판단한다. 한편, 소비자의 소비를 바라보는 사람이 소비의 형태에 대한 각자의 의견으로 문화소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문화소비 그 자체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다. 우리 모두에게 문화소비의 개념이 분명할 때, 그 개념에 근거하여 문화소비를 판단하면 된다.

다음으로 문화소비의 긍정적 측면을 논의한 두 번째 논문을 보자. 이 논문도 전반적으로 문화소비의 긍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문화소비는 사회 활동으로서 국가 경제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중요한 방법이기도 한다. 저자에 의하면 문화소비는 주로 문화 오락, 교육 훈련 등과 같은 구체적인 소비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문화 영역에서의 소비가 문화소비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소비는 개인의 사회 활동을 촉진하고 대인 관계를 강화하며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킨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화소비를 정의하면, 문화소비가 가져오는 소비의 긍정적 측면은 근본적으로 소비를 위한 자본에 의해서 좌우된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만약 ‘나’에게 돈이 없다면 나는 그 어떤 소비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나’는 문화소비를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그 결과 문화소비의 긍정적 측면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비의 상실이라는 비극을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문화소비가 반드시 자본을 소유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모든 수요는 ‘돈’(디지털 화폐)으로 충족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돈은 돈을 얻든 돈을 쓰든 일종의 권리를 지칭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고 내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를 획득하고 처분하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며, 이대로 가면 최종 결과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감사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소비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소비를 통한 그 어떤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소비 자체가 추상적이고 공허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문화소비가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이라면 소비의 본질은 인간의 욕망을 떠날 수 없다. 그런데 욕망의 진실은 몸의 본질이다. 몸이 존재하지 않으면 욕망이 존재할 수 없다. 몸의 본질로부터 욕망의 본질을 연역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경우 문화소비의 개념을 연구할 때, 핵심 주제는 엄격히 말해서 돈이 아니라 인간 욕망의 진실이다. 이 진실을 무시하고 소비의 내용과 의미를 정의하면, 남는 것은 문화소비의 가면을 쓴 자본 축적의 위선일 뿐이다.

생산자가 문화상품을 만들고 그에 대한 소비자의 문화소비는 경제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 경제의 원동력은 욕망이다. 문화상품을 생산하려는 욕망과 그것을 행복으로 추구하며 소비하려는 욕망이 그것이다. 욕망이 없으면 생산과 소비가 없기 때문에, 이 사실에 근거하여 보면 문화소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는 욕망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 근거하여 경제활동 현상으로서 문화소비를 이해하는 것이 그에 대한 참다운 인식이다.

끝으로 문화소비의 긍정적 측면을 논의한 마지막 논문을 보자. 본 논문은 문화소비의 특성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적극적인 문화소비가 인간의 사회생활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하고, 문화상품의 다양성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글은 문화소비가 일정 기간 동안 경제발전의 산물이라고 밝히고 있어 문화소비의 개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소비는 사실상 교환이며 교환의 주체는 사람이다. 그러나 다른 상품과 달리 화폐(돈)는 문화와 직접 교환할 수도 없고, 화폐 교환은 문화적 조건과 가능성일 뿐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갈 때는 영화표를 구매해야 하고,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여행비를 지불해야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 영화나 경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것, 우리가 얻는 상상, 릴렉스, 미묘함, 즐거움 등 모든 문화 체험은 화폐 교환의 직접적인 산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화소비 과정에서 자신의 투자가 부족하고 돈으로만 교환한다면 얻는 것은 형식과 껍데기뿐이다. 이런 형태는 껍데기처럼 분명하기 때문에 '문화소비'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 상인이 전시회에서 그림을 하나 샀는데, 그는 작품을 감상하거나 심지어 감상하는 것을 전혀 배우지 않았고, 더더욱 좋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사치스러움과 대범함을 드러내기 위해 이 그림을 선택했다. 아무런 감정도 들이지 않는 이런 소비행위는 문화소비가 아니다. 돈과 물질의 교환일 뿐 문화산물이 경제발전의 일정한 산물이라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 문화소비의 핵심은 '문화'(文化)이지 소비(消費)가 아니다.

## (2) 문화소비를 부정하는 입장 비판

문화소비의 부정적인 면을 논한 첫 번째 논문은 현대사회의 문화소비를 '상업적 목적에 의해 왜곡된 기형적인 소비'라고 정의했다. 사람들의 무분별한 소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소비욕'을 자극하는 비이성적 소비라는 것이다. 소비에 대한 명확한 관념이 없으면 문화소비를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은 사실상 소비가 아니라 자본의 왜곡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를 문화소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화소비의 왜곡된 현상이 아니다. 자본의 무분별한 축적과 소비의 비이성적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짜 문화소비로 규정함으로써 저항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단순히 소비의 미덕을 강요하거나 소비의 절제를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문화소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소비에 대한 왜곡된 관념만 있는데, 이 경우 미덕과 절제는 그 어떤 실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바로 잡는 방법은 결국 문화소비의 주체로 존재하는 인간 자체의 진실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욕망의 진실을 알아야 그에 맞는 가치를 제대로 추구할 수 있다. 물질적 삶을 과도하게 추구하거나 가상의 정신세계에 탐닉하여 발생하는 소비는 진정한 문화적 소비가 아니다. 따라서 문화소비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발하는 논문은 현대사회에서 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소비의 왜곡을 연구하지만 문화소비의 진정한 핵심을 간과하고 있다. 문화소비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할 때 문화소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문화소비의 부정적인 측면을 연구한 두 번째 논문은 문화적 의미에서 '소비의 모

순'을 반영한다. 문화는 정신인 반면 소비는 물질이라는 전제 하에 '물질'(소비)이 '정신'(문화)을 이긴다고 보아 문화소비의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소비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며, 인간을 논할 때 물질로서 인간의 몸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물질=소비'와 '정신=문화'라는 도식은 잘못된 것이다. 문화소비의 기초가 우리 인간의 '몸'이다.

이점을 간과하면,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한다. 문화소비에 대한 개념을 '소비=문화'와 '물질=정신'이라는 두 번째 논문에서 살펴본 주장이 그것이다. 이 둘 사이에 균형(=)이 문화소비의 진실이라면, 문화소비의 핵심은 엄밀히 말해서 이 둘 사이의 '균형'(=)이라는 목적을 향해 가는 '의지력'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문화소비의 개념을 이해할 때, 그 방법을 '의지력'에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문화소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문화소비는 의지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소비에 대한 저자의 이해는 인간정신을 교란하는 절제되지 않은 소비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정신은 왜 교란될까. 근본 원인은 자신의 진정한 욕망을 알지 못함으로써 올바른 소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본다면, 소비의 왜곡은 '정신'이 '물질'에게 패한 결과가 아니다. 문화소비에 대한 참다운 인식의 결여가 소비를 왜곡하는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논문의 저자는 소비 왜곡의 현상에 대한 자기의 개인적인 해석이 될 수는 있지만, 현상에 대한 참다운 이해는 아니다.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해석 또는 추측은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본 논문의 저자가 보기에 문화소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이분법'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모든 소비행태는 일종의 '문화생산행위'이다. 눈에 보이는 자본(돈)이 움직이는 현상에 의존함으로써 단순히 돈을 받는 자리를 생산자로 돈을 주는 자리를 소비자로 나누는 것은 문화소비의 본질을 구성할 수 없다는 뜻이다. 논자는 생산자도 소비자도 문화소비 안에서 모두가 문화생산의 활동에 참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측면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면, 문화소비에서 소비의 과정은 의지력에 의존함으로써 '물질(소비)=정신(문화)'이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다. 문화소비 안에서 문화생산에 참여하는 순간순간이 문화소비의 완전한 행복이다. 당시(當時) 성공(成功)이다. 이 성공이 분명할 때 소비의 왜곡된 현상으로 문화소비를 비판하는 잘못을 벗어날 수 있다. 문화소비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립이 절실한 이유이다.

## 2) 비판에 근거한 문제제기

문화소비와 관련하여 본 논문이 정리한 선행 연구는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하나는 문화소비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문화소비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선행연구 비판’에 의하면, 상이한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흐름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논의의 기초를 공유하고 있다. 그 기초는 바로 ‘현상’이다. 긍정적인 논문이든 부정적인 논문이든 이 둘은 소비의 현상에 의존하여 각자 자신만의 주장을 전개한다. 소비의 현상에 국한하여 문화소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문화소비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논의가 소비의 현상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화소비에 고유한 본성이나 그 자체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마치 토론대회와 유사하다. 긍정(찬성)과 부정(반대)의 의견이 서로를 부정하기 위해서 치열한 공방(攻防)을 벌이고 있다. 각자 서로에게 자기의 관점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최종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다. 각자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소비의 긍정적 현상과 부정적 현상을 최대한 종합(綜合)하고 그 결과 종합의 총량에 의해서 소비의 긍정과 부정을 가리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본 논문의 문제제기가 성립한다.

**‘어떤 것’(본 논문의 ‘문화소비’)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그 각각의 현상에 대한 종합의 총량(總量)으로 결정되는 것이 과연 ‘어떤 것’(본 논문의 ‘문화소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의 겉모습 같은 현상이나 행동에 대한 종합과 그 총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A는 긍정으로 판단하는 반면, B는 부정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 경우 A와 B는 각자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한 행동들을 모으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각자 종합한 나의 행동을 가지고 나에게 대한 긍정과 부정을 결정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 자신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판단된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문화소비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본 논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떤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감각적 판단에 입각하여 그것의 긍정(찬성)과 부정(반대)을 주장하면, 결국 전쟁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에 직면하게 된

다. 어느 쪽 주장이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현상의 총량을 보다 많이 종합하였는지에 따라서 긍정으로 치우치거나 부정으로 치우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는 일시적인 평화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상대방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소비를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긍정적인 주장과 부정적인 주장 사이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결론에 동의한다면, 우리에게 유효한 방법은 문화소비에 대한 이해를 ‘현상’이 아닌 그 자체의 ‘본질’ 또는 그 자체의 ‘본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즉, 문화소비 ‘자체’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소비의 현상에 근거하여 문화소비를 이해하는 선행 연구를 ‘지양’하고 문화소비에 대한 이해를 그 자체의 본성으로 형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절대적으로 소비의 현상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소비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서 문화소비의 개념을 그 자체의 본성으로 정립하겠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소비의 현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이 인식은 문화소비의 핵심인 문화콘텐츠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확립하는 기초가 된다. 올바른 소비관을 확립하고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 1. 연구 방법

본 논문의 목적은 소비 현상을 해석함으로써 문화소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활동 및 그에 대한 기초로서 상품의 생산이라는 ‘소비현상’에 나아가 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함으로써 문화소비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본 논문의 성공을 위한 방법은 ‘감정과학’(感情科學, Science of Feelings)이다. 왜냐하면 감정과학은 현상에 나아가 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인식하는 문화교차학의 학문론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문화소비’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 근거한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 ① 현대 소비문화의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② 올바른 소비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해 본 논문은 연구방법으로서 감정과학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감정과학의 논리적 기초를 정립한 공자(孔子)의 '사여학'(思與學)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러므로 논자는 이 자리에서 논문 주제를 탐구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감정과학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서 사여학(思與學)이 무엇인지 정리하겠다.

## 1) 감정과학의 논리

소비는 몸으로 살아가는 인간 욕망의 본질로부터 필연적인 것이다. 소비를 향한 욕망이 있어야 소비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자명한 진실이다. 또한 소비의 대상 또한 욕망의 본질로부터 필연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소비한다고 할 때, 소비의 대상으로서 '어떤 것'은 반드시 그것을 제작하려는 제작자의 욕망에 의해서 그 존재가 필연적으로 결정된다. 이와 같이 소비의 현상과 그것의 소비의 대상을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는 '욕망'에 근거하여 이해하면, 근본적으로 행위로서 소비와 그 대상으로서 소비재(消費財)가 인간 욕망의 본질에서 기원한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비를 이해하는 것은 소비의 현상에 의존하여 소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 행위 및 그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소비재(消費財)의 기원이 되는 인간의 욕망을 소비의 본질로 우리가 이해하는 한에서, 소비는 더 이상 감각적 현상이 아니다. 우리의 인식 안에서 그 자체의 본성으로 이해된다. 즉, 소비 그 자체의 본질로서 인간의 욕망이 환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욕망은 인간이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놀이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당연히 욕망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몸에 대한 이해로부터 필연적으로 연역된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도식을 확인할 수 있다.

### 소비에 대한 이해 → 욕망에 대한 이해 → 몸에 대한 이해

이제 위의 순서를 역으로 보자. 즉, 소비 활동의 기원으로부터 이해해 보는 것이다.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욕망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며, 이 이해가 소비에 대한 이해를 문화소비로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가 문화소비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논리적 기초를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면,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추구하는 '감정과학'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감정과학은 몸에 대한 이해를 감각적 현상이 아니라 그 자체의 본성으로 이해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필연적인 몸의 본질로서 욕망을 그 자체의 본성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 진실을 배우고 이해하는 학문이 감정과학이다. 소비는 몸에 고유한 본질로서 욕망에 근거한 몸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욕망의 진상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진정한 소비의 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이해로부터 소비의 가치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과학에 대한 기본 정의이다.

### (1) 감정과학에 대한 기본 정의

성동권은 감정과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감정과학이 '감정' 이전에 논의의 출발점을 '몸'의 진실에 두는 이유는 몸의 진실로부터 감정의 진실이 필연적으로 연역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로부터 필연적으로 우리 몸으로 느끼는 몸의 이야기입니다.<sup>9)</sup>

성동권에 의하면, 감정과학의 논리적 기초는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의에 입각하여 본 논문은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추구하는 감정과학을 연구방법으로 결정한다. 더 나아가 몸에 대한 이해로 감정에 대한 이해를 확립하는 감정과학은 당연히 소비의 본질로 존재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해를 확립한다. 이 이해가 감정과학의 논리이기 때문에 본 논문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동권이 정의한 감정과학을 연구 방법으로 받아들인다.

### (2) 몸의 본질로부터 감정의 본질

몸에 대한 이해가 곧 감정에 대한 이해로 직결된다는 논리적 필연성을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에 나아가 몸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감정을 몸이 하는 말로 이해하는 한에서 감정과학의 공리에 근거하여, 몸 그 자체의 고유한 본성은 당연히 우리가 공간과 시간을 살아가며 몸으로 느끼는 감정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으로 감정은 자기 몸 그 자체의 진실을 자기 본성으로 삼아 오직 그 본성만을 따라서 존재한다는 필연성이 확인됩니다.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감정은 자기 안에 자기 본성을 품고 그것을 따

---

9)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23.



라서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sup>10)</sup>

감정은 무한히 생성되고 활동한다. 이것은 사실상 욕망의 진실이기도 하다. 욕망은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생성되며 활동하며, 그것이 곧 욕망의 구체적인 양태로서 감정이다. 우리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소비의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 소비의 현상이 무한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는 욕망의 무한성에 있다. 같은 이치로 소비의 대상으로 상품의 무한성을 이해할 수 있다. 상품을 제작하는 제작자의 욕망이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기 때문에 제작자는 자기 욕망에 충실함으로써 상품을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제작해 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욕망의 무한성 및 그로 인한 소비와 소비재로서 상품의 무한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소비 현상의 무한성과 소비상품의 무한성에 대한 타당한 인식은 당연히 욕망의 무한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립하는 몸의 진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이해를 위한 학문의 방법이 ‘감정과학’이다. 오직 이 이유로 본 논문은 감정과학으로 감정 자체의 본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예컨대 문화소비를 이해하는 핵심은 문화소비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소비 주체로서의 욕망을 이해하는 것이다. 주체와 욕망을 확인하고 소비의 ‘사실’을 이해하면 소비의 ‘가치’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 결론은 사실로부터 가치가 연역된다는 자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명백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소비는 욕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선 몸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이해해야 한다. 욕망은 몸의 본질이다. 몸이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몸의 활동을 추구하는 욕망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주제를 소비에 연관시켜 보면, 몸의 본질로서 욕망이 소비의 원인이다. 욕망을 떠나서 소비가 존재할 수 없다는 자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몸 그 자체에 대한 감정과학의 이해가 무엇인지 분명해야 한다. 그로부터 감정 그 자체로서 욕망의 진실을 이해하는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소비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연구방법의 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것은 인간의 몸, 그리고 그 몸이 느끼는 욕망과 그로부터 필연적인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이 이해에 근거하여 문화소비를 이해해야 한다.

## 2) 『논어』의 감정과학으로서 思與學

본 논문의 목적은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몸을 이해하고, 그에 근거하여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몸-감정의 진실에 근거하여 문화소비의 개념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

---

10)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부크크, 2022), pp. 14-15.

런데 감정과학의 논리를 연구방법으로 채택할 때, 우리에게 제기되는 또 다른 질문은 감정과학의 논리를 이해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이 공자의 ‘사여학’(思與學)이다. 이 방법이 감정과학의 논리를 이해하는 방법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 ① 유교문화를 정초한 공자의 학문은 그 진상이 감정과학이다.
- ② 공자는 감정과학의 실질적인 연구방법으로서 ‘사여학’(思與學)을 제시했다.

『논어』의 ‘사여학’(思與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연구방법에 대한 성동권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자. 그는 『유교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에서 ‘사여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것은 공자의 학문방법이 ‘사여학’(思與學)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방법은 생각하는 마음이 자기 사유의 능동성에 근거하여 자기 몸을 감각적 현상이나 행동이 아닌 ‘그 자체’(물자체)의 진실로 자명하게 이해한다는 사실.<sup>11)</sup>

성동권에 의하면, 감정과학의 방법으로서 ‘사여학’에서 핵심은 사유(思)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유의 능동성’을 핵심 표지로 갖는다.

### (1) 사(思): 자기이해의 기초로서 사유의 능동성

이 용어에 관하여 유영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참다운 사고(思考)는 외부 대상이 없다. 진짜 사고(思考)는 대상에 대한 사고(思考)가 아니다. 지성(知性)이 오로지 자신만의 능력과 본성으로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아는 것이다. 대상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이해이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재귀적이기 때문에 대상이 없다. 이것이 ‘참다운 사고’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反)이나 재(再)에서 돌아보고 나를 포함하여 생각해보는 재귀적인 생각이라면 ‘참’이라는 완전함을 말하고 있다. 참다운 사고는 자기가 자기 안에서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며 이 앎이 가장 확실하고 완전하다. <sup>12)</sup>

유영관의 정리를 통해서 사여학(思與學)을 이해하면, 감정과학의 방법으로서 ‘사유의 능동성’은 ‘반’(反)과 ‘재’(再)에 근거해야 한다. ‘나’ 자신이 생각한다고 할 때, 내

11)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81.

12) 유영관, “‘自明코칭’의 원리와 『中庸』의 ‘性, 道, 教’에 대한 나의 이해,”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2019), p. 20.

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의 생각 안에서 자명(自明)한 사실이다.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확인은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再)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돌아가(反) 그 안에서 자명(自明)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사유의 능동성이다. 오직 나의 생각 안에서 나의 생각이 자명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사유의 자명성이다.

## (2) 학(學): 인과 법칙의 영원성을 향한 배움

자기이해의 기초로서 사유의 능동성 및 사유의 자명성 안에서 인과(因果) 법칙의 영원성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사여학’(思與學)의 ‘학’(學)이다. 이와 같이 감정과학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여학(思與學)을 이해하면, 우리는 앞에서 논한 감정과학의 논리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립하는 기초로서 사여학(思與學)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3) 사여학(思與學)에 대한 기본 정의

### ① 나의 생각(思)

: 나의 생각 안에서 나의 몸이 존재한다고 사실은 자명(自明)한 생각이다.

### ② 나의 배움(學)

: 나의 사유에 고유한 능동성 안에서 자명한 사실로서 ‘내 몸’의 존재에 나아가 그에 고유한 존재의 필연성을 인과의 영원한 법칙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방법이 감정과학의 논리를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사여학(思與學)이다. 우리는 이 방법을 유교문화를 정초한 공자의 『논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완 학 이 불 사 즉 망 사 이 불 학 즉 태  
子曰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sup>13)</sup>

공자가 말했습니다. “배운다며 생각하지[사랑하지] 않으면 답답하고[남는 게 없고], 생각한다며[사랑한다며]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sup>14)</sup>

13) 『論語』, 「爲政」 15장.

14)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73.

學而不思(학이불사)의 포인트는 생각(思)에 있다. 思而不學(사이불학)의 포인트는 배움(學)에 있다. 여기에서 생각과 배움이 모두 공자의 학문적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배움과 생각은 서로 결합되어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思)이 무엇인지 그리고 배움(學)이 무엇인지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배움의 핵심은 존재에 고유한 ‘인과의 필연성’이라고 했는데, 이 핵심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자왈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  
子曰: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sup>15)</sup>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치를 따져가며[溫故] 새로운 것을 알아내면 선생이 될 수 있다.”<sup>16)</sup>

사(師)는 배움으로서 학(學)을 담당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이 사(師)는 방법이 온고지신(溫故知新)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온고’(溫故)이다. 이에 대한 번역을 조중빈은 “이치를 따져가며”라고 했다. 즉, 인과의 필연성으로서 존재에 고유한 영원한 법칙이 ‘이치’이다. 이것이 아니면 새로운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온고지신(溫故知新)이다.

이제 우리는 배움의 핵심으로서 ‘온고지신’이 무엇에 대한 온고(溫故)이고 무엇에 대한 지신(知新)인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마지막으로 남았다. 공자의 학문은 이치 또는 인과에 고유한 영원의 필연성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 주제가 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두 가지 방면에서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다.

#### ④ 『大學』의 수신(修身)

: 이 문서는 공자의 학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대학』은 학문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밝혀준다.

자천자이지어서인일 시개이수신위본  
自天子以至於庶人壹 是皆以修身爲本<sup>17)</sup>

『대학』은 학문의 근본(根本)으로 수신(修身)을 제시한다. 즉, 자기 몸(身)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학문의 핵심이다. 자기 몸의 이치를 배우는 온고(溫故)가 학문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5) 『論語』, 「爲政」 11장.

16)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68.

17) 『大學』, 「經」 1장.

③ 『論語』의 수기(修己)

: 위의 『대학』의 수신(修身)은 『논어』의 수기(修己)에 근거하여 그 뜻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자로문군자 자완수기이경  
子路問君子. 子曰: 修己以敬.<sup>18)</sup>

자로가 군자가 무엇이나고 묻자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있는 그대로 공경한다.”<sup>19)</sup>

이미 『대학』에서 ‘수신(修身)의 진실을 ‘학신(學身)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그에 앞서는 공자는 여기에서 수기(修己)를 군자(君子)의 핵심 덕목으로 제시한다. 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

修身(『大學』) = 修己(『論語』) = 학기(學己)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수기(修己) 또는 학기(學己)의 방법이다. 공자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경’(敬)을 제시했다. ‘수기이경’(修己以敬)이 근거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정과학의 논리를 이해하는 방법은 ‘사여학’(思與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은 영원의 필연성으로 지극히 당연하다.

‘修’己以‘敬’ = ‘學’己以‘敬’ = ‘學’己以‘思’

敬 = 思

위의 결론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a) 敬은 思이다.

(b) 思는 ‘사유의 능동성’에 근거하여 자명(自明)이다.

위의 두 가지 결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은 필연적이다.

자기 몸을 배우는 방법은 자기 몸에 대한 사유의 자명(自明) 안에서 자기 몸

18) 『論語』, 「憲問」 45장.

19)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336.

고유한 인과의 필연성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자기 사유(思惟) 안에서 자기 몸이 존재한다는 자명(自明)의 사실 안에서 자기 사유의 능동성으로 자기 몸에 고유한 인과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이 감정과학의 논리를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사여학(思與學)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공자의 학습에 대한 이해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배워서 이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sup>20)</sup>

세상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지금의 몸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어떤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기 몸의 본성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자신의 본성에 따라 세상 만물을 진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공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子曰: 古之學者, 爲己. 今之學者, 爲人<sup>21)</sup>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의 학자는 자기를 공부했는데, 오늘날의 학자는 남을 공부한다.”<sup>22)</sup>

감각적 현상을 배우는 것이 ‘위인’(爲人)이다. 그런데 이 배움이 현상에 대한 해석이 되면, 수많은 해석이 난립하게 되며, 급기야 누구의 해석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 ‘해석전쟁’이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현상의 수만큼 현상에 대한 해석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다원주의가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이것은 결국 해석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현상에 대한 해석이 있을 때 반드시 그 해석을 반대하는 해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상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해석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근본 이유이다. 이 경우 ‘위인’(爲人)이 뜻밖에도 ‘살인’(殺人)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석 전쟁은 서로 간에 반대되는 해석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과학의 사여학(思與學)으로 위인(爲人)이 해석 전쟁에 빠지는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방법은 위기(爲己)에 있다. 사여학(思與學)에 근거하여 ‘나’ 자신이 내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인과의 법칙(溫故)으로 이해하면, 그것으로 몸 그 자체의 본성을 이해하게 되며, 이 이해가 곧 ‘나’와 더불어 사는 세상 모든 사람 더 나아가 세상 모든 존재로서 만물(萬物)에 대한 타당한 이해가 확립한다.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해석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상의 수만큼 해석의 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나’ 자신의 몸에 대한 ‘나’ 자신의 사

20)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34.

21) 『論語』, 「憲問」 25장.

22)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p. 324-325.

유 안에서 자명한 몸의 존재를 이해하고, 그 이해 안에서 인과의 필연성을 영원의 필연성으로 배우기 때문에 이 이해는 단 하나의 사실이며, 이 사실이 모든 존재에 공통된다. 따라서 이 방법은 해석 전쟁을 절대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감정과학의 논리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여학(思與學)에 근거하여 몸 그 자체의 본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 이해로부터 필연적인 욕망의 진실을 이해하겠다. 그리고 이 이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에 대한 이해를 현상이 아닌 그 자체의 본성으로 이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는 궁극적으로 본 논문의 주제인 문화소비의 개념을 위한 연구의 기초가 된다. 이것으로 본 논문은 문화소비의 상품 및 그에 대한 소비가 무엇인지 개념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현대 사회의 소비현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

## 2. 연구범위

본 논문의 주제는 감정과학에 근거한 '문화소비'의 개념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 목적에 기초하여 1장 서론에서는 무엇보다도 연구의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감정과학'(Science of Feelings)이며, 이 방법은 근본적으로 공자의 유교문화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은 감정과학을 이해하기 위하여 유교의 대표 작품인 『논어(論語)』, 『대학(大學)』, 그리고 『중용(中庸)』을 주요 참고문헌으로 탐구하였다. 이 방법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논점을 구성함으로써 문화소비의 개념을 감정과학으로 정립하였다.

### 2장. 문화의 개념

### 3장. 문화상품의 개념

### 4장. 문화상품의 소비의 개념

위의 세 개의 장을 중심으로 본 논문의 연구 범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현대 학자들이 이해하는 ‘문화소비’의 개념을 정리하는데 집중했다. 이것은 본 논문이 문화소비를 감정과학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소비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크게 두 가지 방면으로 전개된다. 긍정과 부정이 그것인데, 저마다 소비의 현상을 근거로 소비를 평가하고 있다는 인식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에 대한 참다운 인식은 그것의 감각

적 현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본성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방법으로서 감정과학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오직 감정과학만이 어떤 대상을 감각적 현상이 아닌 그 자체의 본성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제2장’은 감정과학에 기초하여 문화(文化)의 개념을 분석하였다. 문화소비의 개념은 이론적 기초가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의 고유한 본성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때 문화상품 및 그에 대한 소비로서 문화소비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주제는 크게 두 가지 방면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문화’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문자인 갑골문에 근거하여 ‘문화’의 어원은 분석하였다. 다른 하나는 감정과학에 기초하여 문화의 개념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화’ 개념에 대한 새로운 그러나 올바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갑골문이 이해하는 문화개념과 감정과학이 이해하는 문화개념은 본질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문화의 개념을 몸에 고유한 본성으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라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은 감정과학으로 정립한 문화의 개념에 근거하여 문화상품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특히 상품을 생산하는 기초로서 인간의 노동에 대해서 주제로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은 몸을 사용함으로써 일정한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경우 노동에 대한 바른 정의는 문화로 이해하는 몸의 진실이다. 즉, 노동인 몸의 진실인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 생명과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노력을 하는 것이다. 문화의 노동은 생명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문화상품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문화상품은 생명과 사랑을 위해서 몸이 만들어 내는 모든 것이다. 이 주제를 감정과학의 『대학(大學)』과 『중용(中庸)』으로 이해하면, 놀랍게도 이 두 문서가 정의하는 문화상품과 감정과학의 문화개념에 기초한 상품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에 대응하는 ‘덕(德)’이 바로 그것이다.

**‘문화상품=덕=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의 도식이 도출된다. 내 몸이 원래 문화상품이며 내 몸의 본성에 기초한 노동으로 생겨나는 모든 것이 문화상품이다.**

‘제4장’은 2장의 ‘문화의 개념’과 그에 기초한 3장의 ‘문화상품의 개념’에 입각하여 본 논문의 최종 목적인 문화소비의 개념이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문화소비는 ‘문화’ 고유의 속성을 가져야 하며,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다. 논자는 공자의 감정과학(논어)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문화소비의 대원칙과 내용을 정리했다. 문화소비



는 그 자체의 본성이 인생의 예술이며 정의이다. 이 진실 안에서 생명과 사랑을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나누는 것이 문화소비이다. 문화소비는 우리 몸에 고유한 생명과 사랑에 기초하여 서로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과 사랑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소비는 문화소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끝으로 본 논문을 통해서 논자가 주장하고 싶은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정과학으로 우리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면, 이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조화롭고 행복한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문화소비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 제2장 문화에 관하여

본 논문의 2장은 크게 두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 1절의 핵심

：문화(文化)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정리

— 구체적으로 문화(文化)를 문(文)과 화(化)로 나누고, 그 각각에 대한 어원을 살펴보고 관련된 논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 2절의 핵심

：본 논문의 연구방법인 ‘감정과학’에 입각한 문화개념 정리

— 문(文)과 화(化)에 대한 개념을 어원으로 분석했을 때, 과연 감정과학의 논리 및 그에 기초한 몸과 욕망, 그리고 감정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탐구하겠다.

## 제1절 문화(文化)의 개념 분석

본 논문의 연구 주제인 ‘문화’(文化)는 일반적으로 영미권에서 ‘culture’로 번역된다. 이 용어(用語)는 ‘밭을 경작하다.’ 또는 ‘밭을 가꾸다.’를 뜻하는 라틴어 ‘colere’의 명사형 ‘cultura’에서 유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영어의 ‘culture’의 의미맥락으로 문화(文化)를 이해하면, 이 개념어는 인간의 인위적인 ‘행위’ 내지는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2장은 공자가 정초한 유교문화의 핵심으로서 감정과학의 사여학(思與學)에 근거하여 문화(文化) 그 자체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에 근거하여 개념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히려 이 개념이 분명할 때 문화(文化)의 행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고, 이 이해는 최종적으로 소비 행동 또는 소비 행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이에 본 논문은 라틴어-영어의 ‘culture’가 아닌 유교문화가 속한 동아시아 문명이 이해하는 문화 그 자체의 본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구체적으로 종래 학자들이 설명하는 문화의 어원에 대해서 탐구하겠다.

### 1. 문(文)의 개념 분석

## 1) 덕행(德行)에 앞서는 문학(文學)

리웨이화(李衛化)는 「'문의 도'와 '문의 자각': '문타조룡원도'의 기호학」에서 '문'은 덕행의 교화를 기록하는 도구와 공업을 기록하는 수단이 아니라 공업과 덕행을 대신하는 존재이며, '문'은 인간 정신의 근본이 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중국 문인들은 예로부터 덕(德)을 세우고 공(功)을 세우며 언(言)을 세운다는 삼불후(三不朽)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언을 세운다는 말이 가장 끝이다. 이는 공문사학(孔門四學)의 '덕행(德行)·언어(言語)·정사(政事)·문학(文學)' 중 '문학'이 그 말미에 있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덕이 있고 행실이 있고 공을 세워 업적을 세우는 것이 큰 공덕이고, 저술과 설법도 중요하지만 결국 실속 있는 공덕에 못 미치니 작은 공덕에 지나지 않는다. 위진의 격렬한 사회변혁이 불러온 사상적 동요는 이 통념을 뒤엎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피가 흐르는 참상을 마주한 위진 문인들은 갑자기 덕행이 너무 거짓이고 공업이 너무 약해 눈 깜짝할 사이에 황구백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sup>23)</sup>

위에 인용한 리웨이화(李衛化)의 논문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

- (1) 고대 중국 문인들의 덕행(德行) 강조.
- (2) 위진 시대 이후 덕행(德行)에 대한 불신(不信).

리웨이화에 의하면 위진 시대 이전 공맹(孔孟)의 가르침은 덕행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큰 업적을 세움으로써 덕행을 공덕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漢) 나라 이후 위진(魏晉) 시대의 혼란을 겪은 그 당시 지식인들은 덕행(德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懷疑) 또는 불신(不信)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위진(魏晉) 시대 지식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리웨이화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이 시대의 정치가이면서 동시에 문학가인 조비(曹丕, 187년~226년)의 저서 『전론(典論)·논문(論文)』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연수유시이진 영락지호기신 이자필지지상기 비약문장지무궁  
年壽有時而盡 榮樂止乎其身 二者必至之常期 未若文章之無窮

사람의 나이와 수명은 시간의 제한이 있고, 명예와 기쁨도 이 신체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둘 다 일정한 기한에 그쳐 문장처럼 영원히 전해질 수 없고, 끝없는 기간이

23) 李衛華(리웨이화), ““文之道”与“文的自覺”: 《文他雕龍 原道》的符号學考察(‘문의 도’와 ‘문의 자각’: 「문타조룡원도」의 기호학고), 『中國傳統符号學思想(중국 전통 기호학 사상)』(符号与傳媒(기호와 미디어), 2021), p. 52.

없다.

우선, 조비가 이해하는 인간 신체에 대한 이해와는 별도로 그는 문(文)에 영원무한을 뜻하는 ‘무궁’(無窮)이라는 속성을 부여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설명은 리웨이화가 자신의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에서 큰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리웨이화는 “공문사학(孔門四學)의 ‘덕행(德行)·언어(言語)·정사(政事)·문학(文學)’ 중 ‘문학’이 그 말미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비에 의하면 덕행(德行)보다 문학(文學)이 더 중요한 것으로 설명된다. 덕행(德行)에 대한 불신은 자연스럽게 위진 시대 지식인들로 하여금 문학(文學)에 대한 강조를 낳았다.

본 논문의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덕행(德行)으로부터 문학(文學)의 전환을 분석하면, 이것은 행(行) 이전에 학(學)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지식인들은 ‘덕’에 대한 서술로서 ‘덕행은 거짓이며 작은 공덕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다른 한편으로 문학(文學)을 강조했다는 것은 덕(德)과 덕행(德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참다운 인식을 강조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덕을 행(行)으로 단순하게 이해한다면 그 결과는 위진남북조의 문인들이 이해한 것처럼 끝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덕’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無知)의 상태에서 덕행을 강조하면, 얼마든지 ‘덕행’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문(文)에 대한 강조 및 그에 대한 배움으로서 문학(文學)을 덕행(德行) 앞에 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왜냐하면 문학(文學)으로 덕행(德行)을 지키는 것이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리웨이화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 본질적인 의미는 입언(立言)을 입덕(立德)·공(功) 위에 올려 ‘문(文)’의 위상을 새롭게 정했다는 데 있다. 이때의 ‘문’은 더 이상 덕행교화의 도구이자 공업을 기록하는 수단이 아니라 덕행과 공업을 대신해 인간 정신의 가장 근본적인 기탁이 되었다.<sup>24)</sup>

문(文)의 본질적인 의미는 덕행과 공업 이전에 인간 정신의 본질을 지키고 가르치는 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분석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논자는 리웨이화의 논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반론(反論)을 제기할 수 있다.

24) 李衛華(리웨이화), ““文之道”与“文的自覺”：《文他雕龍 原道》的符号學考察(‘문’의 도’와 ‘문’의 자각)：「문타조룡원도」의 기호학과), 『中國傳統符号學思想(중국 전통 기호학 사상)』 (符号与傳媒(기호와 미디어), 2021), p. 52.

- (1) 문(文)의 본질로서 인간의 정신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정신이 이해하는 문(文)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두 가지 질문에 관하여 조비(曹丕)와 리웨이화의 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이곳에서 정리한 분석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논점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1) 덕행(德行) 이전에 문학(文學)을 강조한 것은 감정과학의 논리에 근거하여 올바른 것이다. 즉, 위진-남북조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 조비(曹丕)와 문(文)과 문학(文學)의 개념을 위진 시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탐구한 리웨이화의 논문은 문제의식이 올바르다.

(2) 그러나 위 두 학자의 올바른 접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한계점은 인간 정신에 고유한 본질 및 그것이 이해하는 문(文)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상, 두 가지 분석에 근거하여 두 번째 논문을 분석해보겠다.

## 2) '이문교화(以文敎化)'로서 문(文)

황젠보(黃劍波)와 장진서(張眞瑞)는 소논문 「문'의 의미와 '화'의 과정: 하나의 문화 실천으로서의 언어와 언어」에서 '문'의 의미와 '화'의 과정을 탐구했다. 여기에서는 '문'에 집중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논문의 저자는 '문화'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징적이고 공유되기 때문에 통합적이며, 따라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중 '문'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다.

문(文)의 본래 뜻은 엮어진 결이다. 훗날 언어문자의 각종 상징과 '텍스트'(문물전적과 예약제도), 그리고 그 본의에서 도출된 화채, 장식, 인격수양 등 '실', '질'에 상대적인 함의, 나아가 선·미·덕을 신출하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과 '화'를 병용하는 것도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일찍이 선진(先秦)의 《주역(周易)》에서 '천문을 관찰하여 시변(時變)을 살피고 인문(人文)을 관찰하여 천하를 이루다'고 하였다. 여기서 '천문'과 '인문'은 각각 천상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질감의

추가 인용이다. 이로 인해 '문화'라는 단어는 '이문교화'와 '인문화성'이라는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한대의 문헌에서 '문화'라는 단어가 나타났다.<sup>25)</sup>

위의 인용문을 보면 황젠보(黃劍波)와 장진서(張眞瑞)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文)'을 분석했음을 알 수 있다.

(1) 단독으로 나타날 때 '문'의 초기 의미는 다른 질감이다. 이 초기 의미로부터 '실제' 및 '질적'의 상대적인 의미가 파생된다. 예를 들어: 화려한 색, 장식, 텍스트 등등.

(2) '문(文)'과 '화(化)'가 병용될 때 '문'의 의미는 '사람(人)'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문화'는 '이문교화'와 '인문화성'의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논문은 위의 두 가지 분석에 관하여 두 번째의 핵심인 '이문교화'(以文敎化)에 집중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문(文)의 의미가 어떤 사물의 현상이 품고 있는 자기만의 고유한 질감을 표현할 때보다, '문화'(文化)라는 개념으로 쓰일 문(文)은 교육적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은 바로 앞의 항목에서 다루었던 '리웨이화'의 논문이 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한다. 덕행(德行) 이전에 문학(文學)을 강조한다고 할 때, 문(文)은 실질적으로 덕행(德行)을 위한 학문의 방법이어야 한다. 이점을 매우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문교화'(以文敎化)이다. 황젠보(黃劍波)와 장진서(張眞瑞)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리웨이화의 논문 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의 저자로서 나는 '이문교화'(以文敎化)의 핵심을 전한(前漢) 시대의 유학자 '유향'(劉向, B.C. 77~B.C. 6)의 대표저서 『설원(說苑)』에서 다음과 같이 보다 더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다.

성인 지치 천하야 선문 덕 후 무력 범 무지 흥 위 불복야 문화 불개 연 후 가 주  
聖人之治天下也 先文德后武力 凡武之興 爲不服也 文化不改 然後加誅<sup>26)</sup>

'성스러운 사람'(聖人)이 사람 사는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문덕(文德)을 먼저하고 그 이후에 무력(武力)을 둔다. 왜냐하면 전쟁과 공포를 조장하는 무력(武力)으로 세상을 다스리면 사람들은 절대 그러한 다스림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문덕(文德)으로 가르치되, 사람이 문덕으로 나아가지 않고 무력을 고집할 때, 그때에 문덕에 근거한 무력으로 생각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25) 黃劍波(황검파)과 張眞瑞(장진서), ““文”의意義与“化”的過程：作爲一种文化實踐的語言与言語('문'의 의미와 '화'의 과정: 하나의 문화 실천으로서의 언어와 언어),”『社會學評論(사회학 평론)』 (華東師範大學(화동사범대학), 2020), p. 50.

26) 『說苑』, 「15권 指武」. 이 번역은 연구자의 번역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유항은 공맹의 철학을 열심히 공부한 유학자이다. 그런데 유항은 리웨이화의 설명과 달리 문(文)을 가장 중요하게 제시할 뿐만 아니라 덕행(德行)의 기초로 강조하고 있다. “(반드시) 문덕(文德)을 먼저하고 그 이후에 무력(武力)을 둔다.”는 것으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 또한 인용문의 “사람이 문덕으로 나아가지 않고 무력을 고집할 때, 그때에 문덕에 근거한 무력으로 생각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도 공맹의 철학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문(文)을 배움으로써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더 나아가 그것으로 올바른 행동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리에도 불구하고 논자가 보기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 (1) 성인(聖人)이란 무엇인가?
- (2) 문덕(文德)은 무엇인가?

위의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논자가 참고하는 것은 중국 남조(南朝) 가운데 하나인 양(梁) 나라의 소명태자(昭明太子) 소통(蕭統, 501~531)의 주도로 편찬된 『문선(文選)』이다. 그 가운데 「보망시(補亡詩)」의 일부분을 보자.

문화내輯, 무공외悠.<sup>27)</sup>  
文化內輯, 武功外悠.<sup>27)</sup>

문(文)으로 가르치면(化) 인간 정신의 내면은 자기 본래의 평화를 지키기 때문에 ‘화목’(輯)하다. (반면에) 전쟁과 공포로 통치하는 무(武)의 효과(功)로 통치하면 그것은 인간 정신의 진실을 어기는 것이라서 평화와 안정으로부터 ‘멀어지게’(悠) 된다.

우리는 인용문 가운데 “문(文)으로 가르치면(化) 인간 정신의 내면은 자기 본래의 평화를 지키기 때문에 ‘화목’(輯)하다.”라고 주장한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문(文)이 인간의 정신과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문교화’는 글자 그대로 인간의 정신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인륜질서로서 문명의례를 익히고 지키게 한다. 그 결과 인간 세상의 평화와 사랑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 되는 것으로서 ‘이무교화’는 무력(武力)으로 문명의 이익과 행동규범을 지키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적으로 문(文)과 대립하는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27) 『文選』, 「補亡詩」. 이 번역은 연구자의 번역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요약에 근거하여 한걸음 더 나아가면, ‘문화’(文化)는 생명과 사랑을 지키는 데에 자기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논자의 이해와는 별도로 황젠보(黃劍波)와 장진서(張眞瑞)는 문화(文化)의 의미에 관하여 ‘이문교화’(以文教化)에 동의하면서도 문과 무가 상대적 의미가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文) 무(武)의 의미를 분석해보면 무슨 이유로 성인(聖人)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이문교화(以文教化)를 강조했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면 이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감정과학’이다. 왜냐하면 감정과학은 현상이 아닌 사물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이에 입각하여 본 논문의 논자는 감정과학의 이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문(文)’은 자신의 몸 자체의 진실이다.

: 이 진실에 근거하여 몸을 이해하고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이해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의지(意志)로 하여금 이해의 진실을 따르도록 인도한다. 이때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의지력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문교화(以文教化)’이다.

### (2) ‘무(武)’는 자기 몸 그 자체의 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 자기 존재가 자기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잘못 생각한 결과, 이로 인하여 자기 행복을 위한 방법이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 밖에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면 행복을 밖에서 구하는 지경에 빠지거나 행복을 위해서 밖의 조건이나 환경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가 전쟁이며, 이것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사실은 가장 나쁜 방법)이 무력(武力)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몸에 대한 참다운 인식을 형성하는 인간의 정신력이 아니라 참다운 인식을 결여함으로써 인간의 정신을 어기는 억지에 의존한다. 이것은 현대 학문의 언어로 정리하면 의지력이다. 즉, ‘무력(武力) = 의지력(意志力)’이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이 자신의 신체를 배우지 못한 결과이다. 따라서 무력(武力)으로는 ‘교화(教化)’가 안 된다.

본 논문의 논자는 문화(文化)의 진실을 감정과학으로 위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과연 이러한 관점을 중국의 전통, 그리고 더 나아가 중국의 전통을 확립한 유교문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아래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논점을 유념하며 세 번째 논문을 분석하겠다.



- ① '문'의 현상적 의미보다 '문'의 본질적 의미가 더 배울 가치가 있다.
- ② '이문교화'의 사상은 '문'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기초 위에 세워진다.

### 3) 몸의 본질을 형상으로 보여주는 문(文)

劉峻杉(유준삼)과 王旎娜(왕미나) 그리고 代雅新(대아신)은 자신들의 논문 「선진 '문'의 관념사에서 '문화'를 발굴하다 교육적 함의」를 통해서 본 논문이 분석한 황젠보(黃劍波)와 장진서(張眞瑞)의 논문 주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탐구한다. 황젠보와 장진서의 논문, 「문'의 의미와 '화'의 과정: 하나의 문화 실천으로서의 언어와 언어」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이문교화'(以文教化)의 문화(文化)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 논문이 덕행(德行)을 문학(文學) 앞에 두어 문(文)과 덕(德) 사이에 놓인 인식의 전환을 연구한 리웨이화의 논문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데에 있다. 즉, 문(文)과 덕(德)이 '하나'의 개념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文)과 덕(德)은 서로 떨어질 수 없으며, 문덕(文德)이 곧 덕행(德行)을 위한 기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젠보와 장진서의 논문에서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문학(文學)이 사실상 문덕(文德)이며, 이는 보다 근본적으로 문(文)과 덕(德)이 본래 '하나'라는 사실 안에서 덕(德)을 배우는 것이 문덕(文德)이며 동시에 문학(文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문점은 문(文)과 덕(德)이 '하나'의 개념어로 등장한다고 할 때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劉峻杉(유준삼)과 王旎娜(왕미나) 그리고 代雅新(대아신)의 논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세 명의 논문저자는 '이문화인'(以文化人) 또는 '이문화지'(以文化之)의 명제(命題)를 제시함과 동시에 문(文)의 기원을 갑골문(甲骨文)까지 거슬러 올라가 문(文)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성찰한다. 이러한 논점에 근거하여 본 논문이 시도하는 분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 ① 문(文)과 인간 마음의 관련성
- ② 갑골문의 문(文)을 감정과학으로 분석함으로써 (1)의 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명.

위의 두 논점을 각각 나누어 고찰하도록 하겠다.

### (1) 문(文)과 심(心)의 관련성.

문(文)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선진(先秦) 시대가 ‘문’(文)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밝혀야 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다. 하나는 ‘문신설’(文身說)이고, 다른 하나는 ‘착화설’(錯話說)이다. 이 둘의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문신설(文身說)

: 문(文)과 몸(身)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다. 이 주제는 황젠보와 장진서의 논문, 「문’의 의미와 ’화’의 과정: 하나의 문화 실천으로서의 언어와 언어」에서 다루었다.

단독으로 나타날 때 ‘문’의 초기 의미는 다른 질감이다. 이 초기 의미로부터 ‘실제’ 및 ‘질적’의 상대적인 의미가 파생된다. 예를 들어: 화려한 색, 장식, 텍스트 등등.<sup>28)</sup>

사물의 감각적 현상으로서 문(文)을 인간의 몸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신설(文身說)이다. 예를 들면, 얼굴의 주름이나 손가락의 지문 등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신설(文身說)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봐야하는 것은 문(文)과 몸(身)의 긴밀한 관계이다. 이점은 갑골문 분석에서 다시 논의된다.

#### ② 착화설(錯話說)

: 고대인들은 문자를 만들어 소통하기 이전에 구어(口語)로 일상적인 소통을 했다. 이후 문자를 만들어 서서히 구어(口語)를 문서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도기에는 당연히 구어(口語)와 문서에 기록된 문자(文字)는 서로 일치하기 어렵다. 이 둘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과도기를 근거로 문(文)의 기원을 밝힌다. 그 결과 문(文)은 구어가 문서로 옮겨가는 과정에 국한되어 이해된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문(文)의 생성에 있어서 인간의 정신을 도외시한다. 왜냐하면 구어(口語)가 문서의 문자(文字)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이 둘 사이를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착화설은 ‘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고, 항상 ‘문’의 원래 의미와 단절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더 나아가 중국 문자가 가진 직관적 성격을 간과한다. 따라서 이 설(說)은 본 논문이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28) 본 논문의 2장, 제1절 문화(文化)의 어원, 1. 문(文)의 개념 분석, 2) ‘이문교화(以文教化)’에서 다루었다.

위의 두 가지 설(說)을 분석해 보면, 문(文)의 기원 및 그것의 개념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文)과 인간 정신을 의미하는 심(心)과의 관련성을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논자의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劉峻杉(유준삼)과 王旻娜(왕미나), 그리고 代雅新(데아신)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문’의 자형 변천을 살펴보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마도 금문 중 ‘사람의 마음’의 구조일 것이다. 직접 ‘마음’자로 뜻을 표하는 등 점화로 수식하는 등 자형 자체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깊은 생각을 하게 한다. 중국 문화에서 “마음”은 결코 해부적인 의미의 기관을 가리키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형이상적인 색채를 띠는 추상적인 “마음”이며, 정(情), 감(感), 오(悟), 지(志), 덕(德), 성(性), 그리고 지혜(智慧)에 통달하는 중추이다.

...

문화의 문(文)을 문덕(文德)이나 인문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런 덕(德)이나 정신(精神)도 마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

따라서 문화 ‘마음’의 함의를 중시하고, 초기의 ‘문’자형 중의 ‘마음’의 요소를 중시하여, 그것을 일종의 중국 문화 특색이 있는 사상 이론의 운반체로 간주하고, 이 기초 위에서 ‘이문화지(以文化之)’의 정수를 해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이다.<sup>29)</sup>

위의 인용문은 문(文)과 심(心)의 긴밀한 관련성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논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요약할 수 있다.

‘문’의 상형문자는 ‘사람의 마음’의 구조

↓

‘문’은 ‘마음’과 밀접한 관련

↓

‘문’은 ‘감정’ 등과 밀접한 관련

↓

감정을 감지하는 주체는 ‘사람’

## (2) 감정과학에 근거한 갑골문의 ‘문’(文) 분석

29) 劉峻杉(유준삼), 王旻娜(왕미나), 代雅新(데아신), “文從先秦“文”的觀念史中挖掘“文—化”的教育意涵 (선진 ‘문’의 관념사에서 ‘문화’를 발굴하다 교육적 함의),” 『教育學報(교육 학보)』 (首都師範大學, (수도사범대학),2022), p. 11.

위와 같이 문(文)과 심(心) 그리고 정(情)의 관계를 이해하면, 문(文)은 인간의 몸  
에 대한 감각적 현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인간의 몸이 느끼는 감정(情)에 대한 자각(自覺)과도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감정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지만, 우리의 일상에 근거  
하여 생각해 보면, 감정은 우리 자신의 몸이 느끼는 몸의 변화에 대한 마음의 관념  
형성이다. 이것은 서양 근대 철학자 스피노자의 정의이기도 하다.

나는 정서를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으로 이해한다.<sup>30)</sup>

감정(정서)에 대한 스피노자의 개념 정의에 관하여 유지진은 자신의 석사학위 논  
문에서 다음과 같이 그 뜻을 밝힌다.

퇴계의 ‘성발위정’(性發爲情)을 스피노자는 ‘신체의 변용’으로 보다 더 구체적이며  
자세하게 설명한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감정은 ‘신체의 변용’, 즉 신체의 사건이다.  
절대적으로 마음의 사건이 아니다. 몸이 자기 스스로 변용하며 감정으로 드러나면  
마음은 그에 대한 관념을 형성할 뿐이다. 감정은 신체의 변용 및 그와 동시에 변용  
에 대한 정신이 자기 스스로 형성하는 관념(idea)이다. 따라서 ‘감정’은 인간의 정신  
이 ‘몸’과 몸이 느끼는 ‘감정’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sup>31)</sup>

우리가 감정을 신체적 사건으로서 ‘신체의 변용’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에 대한 관념의 형성으로서 인간 정신(心)의 활동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그리고  
우리가 문(文)의 기원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문(文)의 개념을 정립하는 한에서, 문  
(文)의 기원을 인간의 몸과 마음이 실질적으로 단 하나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감정  
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기하학적으로 자명한 진리이다. 따라서  
이상의 이해에 기초하여 문(文)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서 갑골문을 검토해  
보겠다.

30) 스피노자, 강영계 역, 『에티카』 「3부 정의3」 (서광사, 2007), p.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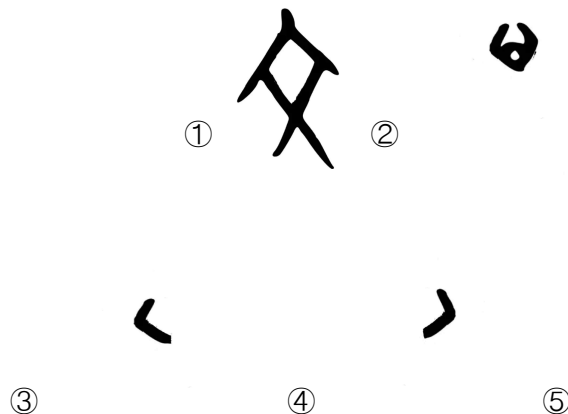
31) 유지진, “공자의 감정과학에 기초한 『시경』 「관저」의 인간 행복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23), pp. 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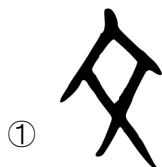
갑골문 중 '文'(문)자의 한 자형이다. (상형문자)<sup>32)</sup>

위의 이미지는 문(文)에 대한 갑골문(甲骨文)의 기록이다. 본 논문은 두 가지 논점에 근거하여 이 문자를 분석하겠다. 하나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문신설(文身說)이며 다른 하나는 바로 앞에서 요약한 마음과 몸이 본래 하나라는 사실로서 감정(情)으로 문(文)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논점에 근거하여 논자는 위의 이미지를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분석하겠다.

우선, 갑골문의 문(文)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부분으로 나누겠다.



이제는 각각의 순서대로 분석하겠다.



32) 知乎网(즈후망), 2021, “「文」這個字的甲骨文怎么寫? ('문'자의 갑골문은 어떻게 씁니까?),” <https://www.zhihu.com/question/505081541>(검색일: 2022. 12. 24).


: 문신설(文身說)에 근거하여 논자는 이것을 인간의 몸(身)으로 이해한다. 말 그대로 인간 몸의 현상을 이미지화한 것으로 이해한다.



②

: 이것은 몸 안에 있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므로 당연히 인간의 마음(心)이다.



이상, 위 두 가지 이미지를 종합하고 다시 분석해 보면, 은 몸(身)과 마음(心)이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감정에 대한 본 논문의 개념 정의를 기억해야 한다. 몸과 마음은 사실상 ‘감정’(情)에 근거하여 본래 하나의 존재이다. 이 자명(自明)한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제부터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문(文)의 기원으로서 갑골문의 이미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하겠다. 분석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성동권이 정리한 인간 마음의 진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음의 본성은 ‘사려 깊게’ 생각하는 것이므로 마음이 자기 본성의 필연성 안에서 자기 몸에 대해서 사려 깊게 생각해 보면 그 즉시 자명하게 이해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사유를 ‘능동’(能動)이라 합니다. 사유의 능동은 생각하는 마음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중에 오직 자기의 생각만으로 자기 몸에 대한 자명(自明)한 이해를 형성합니다.<sup>33)</sup>

인간의 마음은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자기 몸에 대한 자명한 이해를 형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사유의 능력을 ‘능동’이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지금 ‘나’의 마음이라는 사실 그리고 몸은 지금 ‘나’의 몸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감정과학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감정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감정과학의 방법으로서 사유의 능동은 당연히 지금 ‘나’의 마음이며 지금 ‘나’의 몸이다. 이 사실에 입각하여 감정과학의 방법으로 갑골문의 문(文)을 분석하면, 앞에서 제시한 ①과 ②는 사실상 지금 ‘나’의 몸이며 지금 ‘나’의 마음이다. 참고로 이 결론은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 제시

33)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78.

된 사여학(思與學)에 근거하여도 분명하다.

지금 ‘나’의 마음으로 지금 ‘나’의 몸을 생각할 때, 이 생각의 능동으로 몸을 이해해 보자. 너무나 당연하고 자명하게도 나의 마음이 이해하는 나의 몸은 엄마아빠가 낳아주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사실이 사유하는 나의 마음이 자신의 능동으로 이해하는 나의 몸에 대한 자명한 이해이다. 그리고 이 이해는 절대적으로 몸의 현상에 구속된 것이 아니라 사유의 능동이 자명하게 이해하는 자기 몸의 영원한 진실이다. 이제 이 진실에 입각하여 나머지를 분석해 보겠다.



에 대한 ②



의 마음에 집중해서 분석하겠다.



③

: 이것은 엄마이다.



④

: 이것은 아빠이다.



⑤

: 이것은 엄마와 아빠의 사랑과 생명으로 태어난 ‘나’이다.

이상의 분석으로 갑골문의 문(文)을 다시 보면서 본 논문이 다루는 문(文)의 개념을 정리하겠다.



문(文)의 기원은 ‘나’의 존재 그 자체이다. 그리고 ‘나’는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나의 마음은 나의 몸에 대한 이해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이해의 핵심에는 엄마와 아빠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둘은 내 몸의 존재 안에 본성의 필연성으로 존재한다. 완전히 서로 다른 엄마와 아빠는 나의 존재에 관하여 단 하나의 필연성으로 존재한다.

끝으로 위의 개념 정의에 입각하여 그로부터 파생되는 주요 핵심 논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문(文)은 내 몸 자체의 진실을 품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몸으로 존재하는 천지만물(天地萬物)을 이해하는 기초이다.

(2) 문(文)은 내 몸 자체의 진실로서 엄마아빠의 존재를 확인한다.

(3) 문(文)은 엄마아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무엇인지 가르쳐준다. 몸 자체의 본성은 내 몸을 낳은 엄마 아빠의 사랑이다. 엄마 아빠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몸은 존재할 수 없다. 엄마 아빠의 ‘생명’은 내 몸의 ‘생명’, 즉 현재 몸의 생명을 낳는다. 이 사랑은 내 몸의 본성이다. 이 본성은 필연적이며, 필연적으로 영원히 무한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갑골문의 ‘문’(文)을 분해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 몸의 본성은 언제나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으로 이해한다.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문(文)의 갑골문을 분석해 보면, 문(文)은 우리



자신의 몸이며, 이 몸은 생각하는 마음과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마음은 몸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사유하는 자기 정신의 능동성에 근거하여 몸을 이해하면, 마음은 엄마아빠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 이해 안에서 엄마아빠는 생명과 사랑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러한 한에서 엄마아빠의 생명은 영원의 생명이며 사랑은 영원의 사랑이다. 왜냐하면 이 진실 이외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文)의 갑골문에 대한 감정과학의 분석은 몸 그 자체의 본성으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며 이것은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서 엄마아빠의 존재와 본질에서 기원한다.

## 2. 화(化)의 개념 분석

### 1) 행동 과정의 강조로서 화(化)

황젠보(黃劍波)와 장진서(張眞瑞)는 소논문 「문'의 의미와 '화'의 과정: 하나의 문화 실천으로서의 언어와 언어」에서 '문'의 의미를 분석했다. 이 소논문은 본 논문의 제2장 제1절, 《1. 문(文)의 개념 분석》의 두 번째 항목인 【2) '이문교화'(以文教化)로서 문화(文化)】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그러나 '화'(化)의 개념 분석과 관련하여 황젠보와 장진서의 소논문을 간단하게 요약할 필요가 있다. 논문의 두 저자는 '화'를 일종의 '변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 경우 문화(文化)는 실천적 의의가 풍부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화(化)'는 변화 과정이며 동시에 행동 또는 과정으로 인용되며 고대 한어에서는 특히 '교행천선(敎行遷善)'을 말하며 '과화존신(過化存神)'에 관한 논술에서 널리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창하는 '수(修)'과 '수행(修行)'에 관해서는 종교별로 유사한 '수행법문'을 알고 있다. 수많은 다른 '수행'에서 법문(法門)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언어(language)와 말하기(speech)의 사용이다. '언어'는 다른 종교의 고전과 같이 쓰기 쉽고 지속적으로 계승되는 텍스트이다. '말하기'는 구체적인 수행법문이며 일련의 행동이나 실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어(language)를 문(文)에, 말하기(speech)를 화(化)에 각각 대응한다. '문'(文)은 텍스트와 그 의미를 강조하고 '화(化)'는 특정 시나리오에서 행동의 과정을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수행인류학 연구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수행자에 대한 기존의 수행 텍스트나 가르침을 따르거나 모방하는 동시에 완전히 다양한 상황에서 수행 행동이다. 관건은 이런 수행 행동이 기존의 텍스트 규정을 단순히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텍스트와 의미를 창조적으로 생성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행법문으로서의 언어(language)와 말하기(speech) 연구에 대한 논의는 인류학과 사회과학이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문(文)'과

‘화(化)’의 문제를 더 깊은 수준에서 탐구하는 것이다.<sup>34)</sup>

위의 인용문을 보면, 저자는 ‘language’와 ‘speech’를 각각 ‘문’(文)과 ‘화’(化)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화’를 ‘행동의 과정’으로 강조한다. 더 나아가 논자가 봤을 때, 문(文)으로서 ‘language’는 언어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반면 화(化)로서 ‘speech’는 보편 언어로서 문(文)이 구체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서 특정 양태의 언어로 변용(變容)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상, 화(化)에 대한 두 가지 논점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황젠보와 장진서가 주장하는 화(化)의 개념은 구체적인 행동 내지는 행동의 과정에 직결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에 있다. 이에 근거하여 행동으로서 화(化)의 핵심을 ‘행동 교정’(矯正)으로 요약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논자가 봤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문화(文化)를 이해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한 문(文)의 개념 분석에 근거하여 옳바르지 않다. 황젠보와 장진서의 논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의지력에 대한 강조이며, 다른 하나는 학문의 본질로서 지성과 그에 기초한 타당한 인식의 상실이다. 이 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1) 의지력에 대한 강조

행동 과정으로서 화(化)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수신(修身)이다. 여기에서 나는 ‘감각적으로’라는 말을 추가함으로써 수신(修身)의 뜻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강조는 논자 스스로 수신의 뜻을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행동의 올바름’으로 이해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행동에 대한 강조 그리고 그것이 추구하는 행동의 올바름으로 ‘수신’의 뜻을 이해하면, 뜻밖에 수신의 뜻이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행동’으로 잘못 이해된다는 뜻이다. 이것을 잘못된 이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감각적으로 지각된 행동의 올바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쉬운 예를 제시하자면, 나에게 올바른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옳바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신(修身)의 뜻을 감각적 행동에 의존하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 올바름을 논의하게 되면, 서로 다른 의견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뜻밖에 수신에 대한 논의가 수신에 대한 판단을 하는 주체 사이에 전쟁을 야기한다. 이러한 잘못된 이

34) 黃劍波(황검파)과 張眞瑞(장진서), ““文”的意義與“化”的過程：作為一種文化實踐的語言與言語(‘문’의 의미와 ‘화’의 과정: 하나의 문화 실천으로서의 언어와 언어),”『社會學評論(사회학 평론)』(華東師範大學(수도사범대학), 2020), p. 49.

해로 인하여 화(化)의 본질은 감각적으로 올바르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실행에 옮겨야 하는 의지력으로 왜곡된다. 이 결론으로부터 화(化) 역시 의지력 상호 간의 전쟁이 된다. 왜냐하면 수신을 위한 판단 주체 사이의 전쟁은 결국 서로 다른 행동을 강요하는 의지력 사이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은 지극히 당연하다.

수신(修身)과 화(化)의 개념을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행동 가운데 올바른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설명하면 이 개념은 사실상 의지력에 대한 강조 또는 의지력 상호 간의 전쟁을 유발하게 된다.

## (2) 이해를 추구하는 지성의 상실

눈에 보이는 행동 경로를 어떤 목적으로 유도하거나 변경하려면 이 경우 행동을 바꾸는 '의지력'이 중요해진다고 앞에서 설명했다. '화'(化)가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임을 강조하면, 행동을 위한 '의지력'이 가장 중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목적의식을 형성함으로써 그에 맞는 행동을 결정할 때, 그러한 행동에 고유한 필연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의지력을 형성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 그 행동을 욕망하는 것은 의지력에 앞선다. 즉, 욕망은 의지력에 앞선다는 뜻이다.

이러한 순서는 지극히 자명(自明)한 것으로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숍에서 음료를 주문한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가 커피를 주문하는 행동을 '의지'하고 그에 따라서 커피를 주문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착수하기 이전에 '오늘은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는 욕망을 반드시 자각(自覺)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커피를 주문하려는 의지는 절대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며, 따라서 실질적으로 커피를 주문하는 행동도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의지와 그에 따른 행동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욕망이라는 감정이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것은 사실상 내 몸에 대한 나 자신의 자명한 이해로서 지성과 본질적으로 일치한다. 왜냐하면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욕망과 '지금 나 자신이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한다는 자기이해로서 지성'은 사실상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욕망(慾望)과 지성(知性)은 서로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한다면 동일한 것이다. 우리가 욕망(=지성)과 의지력 사이에 놓인 자연적인 순서를 이해한다는 조건 하에 행동의 목적을 위해서 의지력을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오류이다.

- ① 의지력의 강조는 행동의 자연적 순서를 어긴다.
- ② 행동의 본질로 존재하는 욕망을 부정하며, 급기야 욕망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게 된다.

특히 욕망에 대한 인식의 결여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올바른 사고(思考)를 방해한다. 일례로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를 ‘생명’활동과 ‘생활’활동으로 구분하는 오류이다. 동물의 생명활동을 일종의 무의식적인 자연에 대한 ‘수동적인 적응과정’으로서 순전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활동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생명활동은 욕망에 기초한 것이며, 이때의 욕망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이해하는 지성의 능동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욕망과 지성의 본질 그리고 이것과 의지력 사이에 놓인 자연의 순서를 인식하면, 동물의 생명활동을 ‘수동적인 적응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생명의 능동성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오류이다.

생명활동은 자연 속 동물과 인간에 공통된 것이며, 이 활동은 그 자체의 본성이 욕망(=지성)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능동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생명의 본질은 능동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인간에 고유한 생활활동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생활활동도 기본적으로 생명활동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활동의 본질 또한 욕망(=지성)의 능동성에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수신(修身)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수신(修身)은 감각적으로 지각된 행동에 대해서 감각적인 판단을 내리는 수동이 아니라 행동의 본질로서 존재하는 욕망(=지성)의 능동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지성 능력이다.

화(化)의 개념을 행동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과 행동에 앞서는 욕망으로 이해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인식의 오류와 진실을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욕망은 사실상 인간의 신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며(왜냐하면 욕망은 신체 상태에 대한 지성의 자각이기 때문에), 이 이해는 실질적으로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이 이해의 본질은 인간의 모든 생활활동을 일종의 ‘자유로운 자각활동’으로 만든다. 반면 인간이 의지력으로 행동할 때, 문화의 핵심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인간의 사건을 이해하는 필연성이 아니라 의지력에 대한 극도의 강조가 된다. 이런 학습의 초점은 인식보다는 의지력이 될 것이고, 그 결과 이러한 문화는 학습과 전승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화(化)의 개념을 감각적 현상이나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문화란 결국 인간의 문화일 뿐이지만, 인류문화는 탄생 이래 진정으로 '화'를 이해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의 표상, 즉 감각적으로 지각되는 현상이나 그에 대한 의견으로서 추측과 해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 ① 문화는 과연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을까?
- ② 어떻게 하면 '문화'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상의 문제에 근거하여 우리는 두 번째 논문을 분석하겠다.

## 2) 인간의 근본을 가르치는 학문으로서 화(化)

학자 청왕(程旺)은 논문 「유가 교화 관념의 진본가치」에서 유교학파의 교화 개념을 사용하여 '교화'(教化)의 의미를 분석했다. '교화'는 유교 사상을 관통하는 일관된 학문론이라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청왕은 '화'(化)의 개념을 분석한다. 그 결과 '화'(化)의 본질은 인식의 전환이다. 그가 시도하는 분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의 인용문을 읽어 보자.

'교화(教化)'가 가능한 이유는 유교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유교에서 말하는 교화는 첫째, 자아 교화이며, 어떤 형태의 교화 모델이든 주체성의 자각과 인정에 입각해야만 교화가 생성되고 실현되는 기초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교화는 본질적으로 일종의 전환이며, 첫째는 자기 온톨로지의 실존적 전환이며, 이를 바탕으로 '교양'과 '화'는 온톨로지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인간으로서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하며, 먼저 우리 뒤에 있는 정체성을 찾아야 하며, 이는 교화의 전제 조건이다.

공자(孔子)가 찾은 근거는 '인(仁)'이다. "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논어·팔일)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이라는 정체 또는 가치의 근거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워야 하고 가르쳐야 한다. 배움도 하나의 가르침이고, 스스로 추구하는 자아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學而時習之 不亦說乎'할 수 있다.

교화의 가능성은 인간성 자체의 위치와 자각에 있으며, 교화의 필요성은 그 현실적인 의의를 드러낸다.<sup>35)</sup>

35) 程旺(청왕), “儒家教化觀念的本眞價值(유가 교화 관념의 진본가치),” 『儒學評論(유학 평론)』 (教育部人文社科研究青年基金項目(화동사범대학), 2021), p. 27.

위의 인용문을 요약하면 청왕(程旺)의 분석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 (1) 교화의 전제

청왕(程旺)에 의하면 교화의 전제는 인간의 ‘근본’에 있다. 이 경우 교화는 황젠보와 장진서가 주장하는 것처럼 행동의 변화 및 그것을 위한 의지력이 아니다. 인간 존재 그 자체의 진실 및 이 진실로부터 연역되는 인간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유교의 교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 (2) 교화의 방법

청왕(程旺)이 제시하는 유교 문화의 교화 방법은 ‘학’(學)이다. 그렇다면 유교의 학문은 당연히 인간 존재의 진실이다. 왜냐하면 교화의 전제조건은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인간의 근본 또는 사실상 이와 같은 뜻으로서 인간 존재 그 자체의 진실 내지는 본성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유교 문화의 교화 방법은 엄밀히 말해서 ‘의지력’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신의 근본 또는 본성을 이해하는 ‘정신력’이다. 이것이 바로 사여학에서의 사(思)의 정신력이다. 생각이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자명한 이해를 형성하는 것이 정신에 고유한 본성 및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다. 이 정신력이 유교의 학문이 추구하는 교화(教化)의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인간은 자신의 근본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 이해로 살아간다.

이상, 두 가지 논점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청왕이 이해하는 유교문화의 교화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기원이나 존재에 고유한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이해가 교화를 통한 인식의 전환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맥락에 입각하여 청왕이 이해하는 유교문화의 교화에 근거하여 문화(文化)의 화(化)를 이해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① 황젠보와 장진서의 논문이 ‘문’(文)에 대한 개념 분석과 달리 ‘화’(化)의 개념을 분석함에 있어서 범하는 치명적인 오류는 욕망과 의지력 사이에 놓인 자연적 질서의 필연성을 어긴다는 데에 있다. 즉, 욕망은 의지력에 앞서기 때문에 욕망을 무시하거나 간과한 채 의지력을 극도로 강조하는 것은 화(化)에 대한 올바른 주장이 될

수 없다. 물론 우리에게는 수신(修身)이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행동으로 자신의 행복과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을 위한 방법이 특정 행동에 대한 강조 및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서 의지력을 강조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지력에 앞서는 욕망의 진실을 논외로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젠보와 장진서가 화(化)의 개념으로 제시한 ‘수신’과 ‘화’는 옳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뜻에서 유교의 수신 및 화의 개념이 아니다.

② 청왕이 이해하는 유교문화의 교화 개념은 황젠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감각적 행동에 갇히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 존재의 진실 및 인간의 근본을 이해함으로써 교화를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왕의 교화 개념에는 의지력이 중요하게 강조되지 않는다. 그 대신 학(學)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자신의 근본을 이해하도록 인도한다.

위와 같이 두 가지 맥락을 정리하면, 우리는 본 논문의 제2장 제1절에서 시도한 문(文)의 개념 분석의 두 번째 항목 ‘이문교화(以文教化)’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교화(教化)를 문(文)으로 한다고 할 때, 여기에서 문(文)은 같은 절 세 번째 항목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몸의 본질’이다. 본 논문의 논자는 몸의 본질로서 문(文)의 뜻을 갑골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했다.

① 문(文)은 내 몸 자체의 진실을 품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몸으로 존재하는 천지만물(天地萬物)을 이해하는 기초이다.

② 문(文)은 내 몸 자체의 진실로서 엄마아빠의 존재를 확인한다.

③ 문(文)은 엄마아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무엇인지 가르쳐준다. 몸 자체의 본성은 내 몸을 낳은 엄마 아빠의 사랑이다. 엄마 아빠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몸은 존재할 수 없다. 엄마 아빠의 ‘생명’은 ‘생명’, 즉 현재 몸의 생명을 낳는다. 이 사랑은 내 몸의 본성이다. 이 본성은 필연적이며, 필연적으로 영원히 무한히 존재할 것이다.

교화(教化)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화(化)의 개념을 이해할 때, 이 이해의 기초로서 교화의 핵심은 인간 존재의 진실 또는 근본에 대한 인식이다. 그런데 인간 존재의 진실 또는 근본은 이문교화(以文教化)의 ‘문’(文)이다. 왜냐하면 문(文)은 인간 존재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본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보면 교화의 진실은 인간

몸에 고유한 본성으로서 욕망이며, 이 욕망의 진실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이상의 결론에 근거하여 청왕의 논문이 추구하는 인간 근본에 대한 이해로서 교화(敎化)는 문(文)에 대한 인식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확인은 위에서 인용한 청왕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 부분을 다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공자(孔子)가 찾은 근거는 ‘인(仁)’이다.” 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논어·팔일)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이라는 정체 또는 가치의 근거다.<sup>36)</sup>

청왕은 교화(敎化)의 핵심을 공자의 인(仁)에 둔다. 그리고 우리는 교화의 뜻을 ‘이문교화’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文)과 ‘인’(仁)은 서로 다를 수 없다. 인(仁)의 진실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서 문(文)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조중빈의 『안심논어』에서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다.

仁遠乎哉? 我欲仁, 斯仁至矣<sup>37)</sup>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仁]이 멀기는 뭐가 멀다고 하는가? 내가 사랑하고자[欲仁] 하면 그 사랑이 온다[仁至=爲仁=義].”

사랑하기 힘들다는 사람에게 주는 위안과 격려의 말씀이다. ‘구하라[求仁] 그러면 얻을 것이다[得仁=義]’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 또 인[仁=欲仁]이면 의[義=仁至]라는 말이다.<sup>38)</sup>

조중빈의 설명에 의하면 인(仁)은 몸 그 자체의 본질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뜻하는 문(文)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전개된 논의를 요약해 보면,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근본을 배우고자 한다면 이 배움의 기초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의 ‘몸’이다. 몸에 나아가 몸에 고유한 진실을 이해할 때, 그것이 곧 인간 스스로 자기 기원(근본)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 이해는 절대적으로 의지력이 아니라 정신력이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나아가 자기 몸에 고유한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이해’의 정신력이지만, 절대적으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교화(敎化)의 뜻을 이해하면, ‘화’(化)의 진실은 의지력에 의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몸의 진실로서 문(文)이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자신을

36) 程旺(청왕), “儒家敎化觀念的本眞價值(유가 교화 관념의 진본가치),” 『儒學評論(유학 평론)』 (敎育部人文社科研究青年基金項目(화동사범대학), 2021), p. 27.

37) 『論語』, 「述而」 7장.

38)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190.



구체적인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 3) 몸의 본질로서 文의 변화를 상징하는 화(化)

양허웨이(楊和偉)는 소논문 「문화의 “문화”를 논하다」에서 ‘화’에 대한 이해를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화의 개념을 존재의 변화에 집중하여 논의한다. 이와 같은 이해는 본 논문의 2장 1절에서 정리한 ‘몸의 본질을 형상으로 보여주는 文’의 개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문화(文化)’라는 단어는 매우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미취미는 ‘문화’의 ‘화(化)’라는 단어에 있어서, 바로 이 ‘화’야말로 문화, 사람, 나아가 우주 만물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변화의 법칙에 진정으로 부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문화가 확실히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발전에 따라 발전한다. 실제로 “문화는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 방식이며, 유비쿼터스 보편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의 변천이나 전환은 인간의 근본적 생존 방식의 전환을 대표하기 때문에 항상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심오한 변화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고, 혹은 사람이 문화이고, 문화가든 사람이든, 문화든 사람이든, 모두 영원히 멈추지 않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을 뿐이며, 그것들은 직접 동일할 뿐만 아니라 서로 포임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sup>39)</sup>

위의 인용문에서 양허웨이(楊和偉)의 두 가지 중심 사상을 알 수 있다.

- ① 문화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변화하는 자연의 천지만물을 포함해서 인간이 만들어 내는 모든 문화예술 활동을 포괄한다.
- ② 문화의 ‘화’를 설명하는 속성으로서 생성과 변화는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이로부터 ‘화’에 고유한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중심사상에서 ‘화’를 분석해보면 ‘화’자의 본래 뜻이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변화는 의지력에 의한 결과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변화는 자연에 존재하는 천지만물을 비롯해서 인간이 창조해내는 모든 활동에 고유한 법칙, 즉 ‘본성의 필연성’을 따르기 때문이다. 다만, 우

39) 楊和偉(양허웨이), “論文化之 “化”(문화의 “화”를 논하다),” 『六盤水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육반수이사범고등전문학교 학보)』 (六盤水師範高等專科學校, (육반수이사범고등전문학교), 2007), p. 2.

리가 의지력에 대한 개념 정의를 법칙을 따르는 법칙의 본성으로 이해할 경우, 실질적으로 본성의 필연성을 따르는 능력과 의지력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의지력은 본 논문의 2장 1절 두 번째 항목에서 다룬 ‘1) 행동의 과정으로서 화(化)’가 설명하는 목적 지향의 의지력이기 때문에 오직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양허웨이가 설명하는 문화의 ‘화’는 결코 의지력으로 이해될 수 없다.

본 논문의 논자로서 나는 양허웨이가 분석하는 ‘화’(化)의 개념이 논문 주제의 핵심과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이 이해하는 문화의 ‘문’은 몸의 본질이다. 몸에 고유한 본성으로 생명과 사랑이 ‘문’(文)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문화의 ‘화’는 본성을 따르는 모든 ‘생성’과 ‘변화’이다. 왜냐하면 몸에 고유한 본성 안에서 몸이 생겨나는 것과 생겨난 몸이 변화하는 것은 존재의 본질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문화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면, 문화의 개념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주제를 우리 인간에 집중해 보면, 인간의 몸이 생성되는 것도 ‘文’의 ‘化’이며, 생성된 인간의 몸이 변화하는 것도 ‘文’의 ‘化’이다.

이렇게 인간 몸의 생성과 변화를 ‘文化’로 이해하면, 인간이 자신의 몸으로 다시 생성하는 모든 활동,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문화예술’ 활동은 몸의 생성과 변화로서 文化 개념 안에 들어간다. 이러한 ‘문화개념’에 대한 정의로부터 문화의 ‘화’는 엄격한 의미에서 ‘문’의 변화가 확실하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문’은 ‘몸’의 존재 또는 그에 고유한 본성이다. 이 분명한 사실로부터 ‘화’를 생성과 변화로 이해한다면, ‘화’에 대한 개념을 분석하거나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념어의 어원(語源)이 과연 인간의 ‘몸’ 형상적으로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고대 중국에서 화(化)의 개념을 형상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문자는 갑골문자이다. 이 문자가 ‘화’를 어떻게 형상화하는지 검토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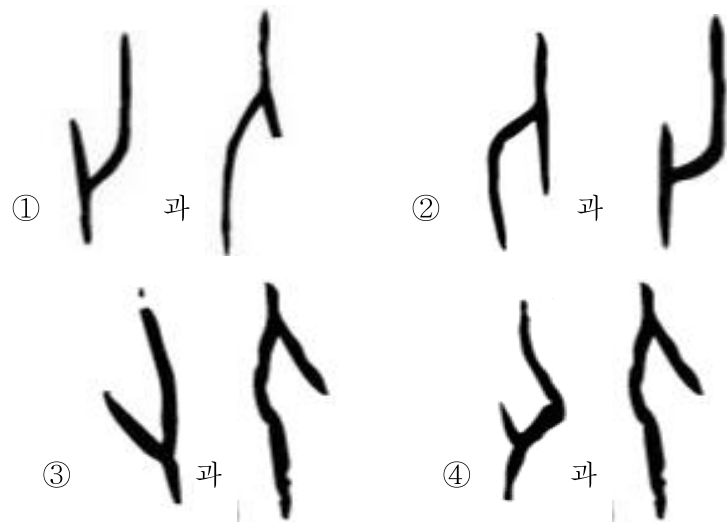


‘化’의 갑골문자<sup>40)</sup>

‘화’의 갑골문자를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몸이 함께 있는

40) 百答知識(백답지식), 2020, “化字形演變過程,” <http://www.bdzzz.com/bd/ziyuan/0/UFVITUo-.html> (검색일: 2023. 02. 24).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왼쪽부터 차례로 검토해 보자.



두 번째 중요한 논점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몸이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함께 있다는 것이다.

이상, 화(化)에 대한 갑골문의 분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논점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서로 다른 두 개의 몸
- ② 서로 다른 두 개의 몸의 방향은 180도 다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본 논문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문화’(文化)에 대한 개념 정의를 분명히 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문(文)에 대한 갑골문 분석 위에서 화(化)에 대한 분석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감정과학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화(化)에 대한 갑골문의 개념 분석에 기초하여 화(化)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몸-생김으로서 화(化)

##### ① 엄마아빠의 서로 다른 몸

문(文)에 대한 갑골문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본질로서 엄마아빠

의 존재이다. 앞에서 정리한 핵심을 다시 살펴보겠다.



할 수 있다.

을 내 몸으로 이해하면,



을 다음과 같이 분석



: 이것은 ‘엄마’이다.



: 이것은 ‘아빠’이다.



: 이것은 엄마와 아빠의 사랑과 생명으로 태어난 ‘나’이다.

두 개의 존재를 엄마아빠로 이해하며 이 둘은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있다. 여기에 착안하면, 화(化)는 내 몸의 본질로서 문(文)에 있는 엄마아빠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형상화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내 몸을 낳는 엄마아빠의 사랑 이야기

갑골문 화(化)에 있는 두 개의 이미지를 엄마와 아빠로 확인하고 나면, 이 두 이

미지가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방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엄마와 아빠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지금 나의 몸이 생겨나지 않는다. 반드시 엄마의 몸과 아빠의 몸은 서로 사랑(섹스)을 해야 한다. 이 원칙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지금 ‘나’의 몸이 존재할 수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섹스에 대한 상상을 할 필요가 있다. 섹스는 절대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할 수가 없다. 엄마가 밑에 있으면 아빠는 위에 있어야 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화(化)의 갑골문에 있는 두 개의 이미지가 서로 반대되거나 방향을 달리하는 것은 내 몸을 낳는 엄마아빠의 사랑(섹스)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거성라고 할 수 있다.

### ③ 요약

우리가 문(文)에 대한 갑골문의 분석으로 엄마아빠의 존재를 확인했다면, 화(化)에 대한 갑골문의 분석은 엄마아빠의 사랑(섹스)를 적극적으로 형상한다. 왜냐하면 엄마아빠의 사랑(化)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그에 대한 결과로서 지금 나의 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化)에 대한 갑골문의 첫 번째 분석은 ‘내 몸의 생김’으로서 엄마아빠의 사랑이다.

## (2) 몸-놀이로서 화(化)

### ① 내가 하는 사랑(섹스)의 원칙

문(文)의 갑골문은 우리 몸 안에 엄마와 아빠의 존재를 확인한다. 그리고 화(化)의 갑골문은 엄마와 아빠의 사랑(섹스)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갑골문으로 문화(文化)를 이해하면, 몸-생김의 진실로서 엄마아빠의 사랑이 분명하다. 이 사랑이 지금 내 몸의 진실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문(文)이기 때문에 내 몸으로 사랑(섹스)을 한다고 할 때, 원칙은 무엇일까? 내 몸 안에 존재하는 사랑(섹스)의 원칙은 엄마 한 분과 아빠 한 분, 그리고 이 두 분의 사랑(섹스)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으로 사랑(섹스)을 한다고 할 때, 원칙은 당연히 내 몸이 하는 사랑에 관하여 본성으로 존재하는 엄마아빠의 사랑(섹스)을 어기거나 부정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문화소비의 대원칙이 나온다.

## 《문화소비의 대원칙 1.》

사랑(섹스)을 돈으로 사고파는 소비 활동은 문화(文化)의 고유한 몸의 본성에 근거하여 문화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뜻에서 문화소비라고 긍정할 수 없다.

## ② 생명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내 몸의 진실

갑골문의 문(文)에 근거하여 내 몸의 본성으로서 엄마아빠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 존재에 고유한 본질을 화(化)에 입각하여 이해하면, 몸의 본성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엄마의 생명과 아빠의 생명이 사랑으로 내 몸의 생명을 낳았다는 사실은 영원의 진실이기 때문에 이 진실 안에서 생명과 사랑도 당연히 영원의 진실로 존재한다. 이 사실로부터 내 몸의 본성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 분명하다. 참고로 여기에서 ‘무한’은 영원의 생명과 사랑이 무한한 몸을 무한한 방식으로 낳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 내 몸의 진실이다. 이 진실을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몸-생김의 진실로 이해한다면, 감정과학의 논리적 기초로서 공리로 제시된 생김으로부터 놀이의 필연성에 근거하여 몸-생김의 진실은 몸-놀이의 진실이다. 감정과학의 공리에 기초한 감정과학의 논리에 의해서 몸-놀이의 본성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우리는 문화(文化)의 개념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명과 사랑의 진실로서 영원무한은 몸-생김의 본성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몸-놀이의 본성으로 존재할 것이므로 몸-놀이는 절대적으로 문화를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 갖는다.

그러므로 앞에서 정리한 문화소비의 대원칙 1에 이어서 대원칙 2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문화소비의 대원칙 2.》

생명과 사랑을 어기는 모든 소비활동은 구체적으로 상품의 생산과 소비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문화소비가 아니다.

## ③ 요약

문화(文化)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갑골문으로 어원(語源)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감정과학으로 하면, 문화의 개념 내지는 본질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이다. 그리고 본 논문의 연구방법 및 분석방법으로서 감정과학은 유교문화를 정초한 공자의 감정과학 및 이를 계승한 『대학』과 『중용』에 기초한다. 감정과학에 근거한 갑골문의 문화(文化)에 대한 분석 결과 몸의 본질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확인하고 그에 근거하여 문화소비의 대원칙을 두 가지로 정리했다. 이제는 절을 달리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감정과학의 학문론으로서 『논어』 및 이와 관련된 『대학』 『중용』 등과 같은 유교 문헌 그리고 더 나아가 감정과학을 추구하는 동서 철학 문헌을 근거로 문화(文化)의 개념을 살펴보겠다.

## 제2절 감정과학의 문화(文化) 개념

이 절에서 논자는 제1절에서 정리한 문화(文化)에 대한 갑골문의 개념 분석에 근거하여, 과연 유교문화를 정초한 공자의 감정과학이 문화(文化)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구체적으로 『논어』에 근거하여 정리하겠다. 참고로 본 논문은 연구방법이 감정과학이기 때문에 감정과학으로 이해한 조중빈의 『안심 논어』에 근거하여 『논어』의 인용을 제시하였다.

### 1. 문(文): 거룩하고 성스러운 천자(天子)의 ‘몸’

#### 1) 배움의 기쁨

##### (1) 학이시습(學而時習)

『논어』는 학(學)으로 시작한다. 배움을 전면에서 내세우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공자의 『논어』는 매우 인상적이다.

자왈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sup>41)</sup>

감정과학은 이 문장의 뜻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 1-1: 마냥 배우며 사니까 기쁘지 않을 수 없다. ||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나’ 잘하고 있고, 알고 보면 살만한 세상이니

41) 『論語』, 「學而」 1장.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sup>42)</sup>

감정과학의 번역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배움’이다. 이에 근거하여 공자의 학문에서 핵심은 ‘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실은 『논어』에 근거하여 분명하다.

### 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기

|| 15-18: 다 좋은 세상은 나만큼 사는 세상이다. ||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자기가 남모르는 것을 걱정하지 남이 자기 모르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子曰: 君子, 病無能焉, 不病人之不已知也.<sup>43)</sup>

공자는 “남이 자기 모르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는 자기는 자기 자신이 이해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사실을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군자는 “不病(불병) 人之不已知(인지부기지)”, 즉 “남이 자기 모르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대신 “病(병) 無能焉(무능언)”입니다. 군자가 “無能(무능)”을 “病(병)”으로 걱정한다면, 이 “無能(무능)”은 무엇에 대한 것일까요? “남이 자기 모르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군자는 당연히 자기가 “자기 모르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sup>44)</sup>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공자가 추구하는 학문의 본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실은 『논어』에 근거하여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 ② 자기를 사랑하는 위기(爲己)

|| 14-25: 자기를 배운다. ||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옛날부터 학자는 자기를 위하여 공부했는데, 오늘날의 학자는 남을 공부한다.”

子曰: 古之學者, 爲己. 今之學者, 爲人. <sup>45)</sup>

42)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25.

43)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353.

44)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02.

45)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324.



고지학(古之學)의 학(學)에 근거하여 위기(爲己)는 당연히 자기 스스로 자신을 배우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의 논의 ①과 ②에 근거하여 공자의 학(學)은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자기의 진실이 분명하다.

## (2) 지우학(志于學)

공자가 추구하는 학문의 핵심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로부터 학문의 결과 깨닫게 되는 지천명(知天命)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는 당연히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논리적 질서를 공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 2-4: 배우려는 뜻 하나로 내내 살아보니까 사람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만이다. ||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5살에 공부하는 데 뜻을 둔 후 나이 30에 논리가 서고, 40에 마음이 유혹되지 않고, 50에 내 팔자가 상팔자라는 것을 알고, 60에 무슨 얘기를 들어도 거슬리지 않고, 70에 종된 마음이 원하는 바가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子曰: 吾, 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

從心所欲不踰矩. 46)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효과는 지천명(知天命), 즉 천명(天命)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앎을 위한 기초 또는 시작은 ‘지우학’(志于學)이다. 그런데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 학(學)은 당연히 위기지학(爲己之學)이다.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자기의 진실을 배우는 것이 천명(天命)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의 기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성동권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志于學(지우학)”이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학(學)은 당연히 “古之學者(고지학자), 爲己(위기)[14-25]”의 ‘위기지학’(爲己之學)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공자의 “志于學”은 자기 마음이 자기 몸에 나아가 자기 몸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자기 몸의 ‘아주 오래된’(古) 이야기를 시간의 무한한 지속이 아닌 영원(遠)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 몸 그 자체의 진실을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공자의 “五十而知天命(오십이지천명)”입니다.<sup>47)</sup>

46)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63.

47)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10.

성동권은 ‘지우학’(志于學)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한다. “자기 마음이 자기 몸 그 자체의 진실을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뜻입니다.”라고 했다. 이것은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배우는 학문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감정과학으로 하는 한에서 당연히 학문의 기초는 지금 자신의 몸이다.

감정과학에 의하면 자기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 몸을 배운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우학(志于學)의 ‘지’(志)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지(志)는 마음을 뜻하는 심(心)이 기초로 놓여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감정과학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사여학’(思與學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자기 몸을 배운다는 것은 지우학(志于學)이며, 이 배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을 향한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명하게 이해하는 자기 몸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① 자기 몸을 떠나지 않는 독지(篤志)

॥ 19-6: 사람의 정은 널리 배우고 꼼꼼히 묻는다. ॥

널리 배우되 세상 사랑의 뜻을 다지고, 절실하게 묻되 스스로 생각함은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자 하 왕 박 학 이 독 지 절 문 이 근 사 인 제 기 중 의  
子夏曰: 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 仁在其中矣. 48)

본 논문의 문제의식에서 보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학독지’(博學篤志)이다. 박학(博學)은 자기 몸을 비롯해서 세상 모든 몸을 배우는 것이다. 학(學)에 대한 기본 정의가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몸이기 때문에 박학(博學)의 박(博)은 당연히 세상 모든 몸을 뜻한다. 우리가 공자가 정초한 학문의 진실을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이 결론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박학(博學)을 이해하면, 그에 이어서 오는 독지(篤志)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학문의 기초가 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배움의 기초인 생각(思)은 몸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결론을 성동권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마음은 자기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절대적으로 자기 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마음이 잠시라도 떠날 수 없는 것이 자기 몸입니다. 우리는 자기 몸과 자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둘은 영원성 그 자체로 ‘함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자기 몸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서 제대로 배워서 살라는 뜻이 “吾日三

48)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414.

省吾身(오일삼성오신)”입니다. 그 결과 자기 몸에 대한 마음의 ‘자기이해’가 분명할 때, 자기는 세상 모든 몸을 믿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때의 배움은 몸의 감각적 현상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그 자체의 필연적 본성을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이 배움이 “博學而篤志(박학이독지)[19-6]”입니다.<sup>49)</sup>

독지(篤志)는 몸을 떠나지 않음과 동시에 몸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몸의 진실을 이해하는 지인(志仁)

박학독지(博學篤志)의 결과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공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 4-4: 사랑해 보면 나쁜 것은 없다. ||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사랑은 ‘싫다’는 소리를 안 한다.”

子曰: 苟志於仁矣, 無惡也.<sup>50)</sup>

자기 몸을 향해서 자기 몸을 이해하는 지(志)는 궁극적으로 인(仁)을 향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우학’(志于學)과 ‘박학독지’(博學篤志)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몸을 향하는 생각으로 자명하게 이해하는 몸의 진실로 확인하는 한, 지어인(至於仁)은 몸의 진실을 확인한다고 볼 수 있다. 공자의 학문이 인(仁)을 배워서 이해하고 추구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이 자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심이 나온다.

- (a) 자기 몸에 대한 이해는 인(仁)에 이른다.
- (b) 자기 몸에 대한 이해 결과 깨닫는 (仁)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결론에서 공통된 것은 ‘몸’이다. 그리고 앞의 절에서 본 논문은 문화(文化)에 대한 갑골문 분석에 기초하여 문화(文化)를 이해하는 본질을 ‘몸’으로 정리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논어』에서 찾고, 그 결과를 갑골문의 문화 분석에 근거하여 비교해보면, 문화(文化)의 개념에 고유한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의 가장 오래된 어원으로서 갑골문과 동아시아 학문의 기초로

49)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58.

50)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p. 108-109.

서 공자의 유학이 몸에 대한 본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문화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지천명(知天命)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것은 공자의 배움이 몸의 진실을 배운다는 점이다. 이제 지우학(志于學)의 결과 깨닫게 되는 자기 몸에 대한 인식의 핵심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 2-4: 배우려는 뜻 하나로 내내 살아보니까 사람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만이다. ||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5살에 공부하는 데 뜻을 둔 후 나이 30에 논리가 서고, 40에 마음이 유혹되지 않고, 50에 내 팔자가 상팔자라는 것을 알고, 60에 무슨 얘기를 들어도 거슬리지 않고, 70에 종된 마음이 원하는 바가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子曰: 吾, 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

從心所欲不踰矩. 51)

지우학(志于學)은 반드시 지천명(知天命)으로 수렴된다. 따라서 지천명(知天命)에 대한 인식이 곧 몸의 진실을 규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초라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나온다. 이 결론에 근거하여 문화(文化)를 유교문화의 감정과학으로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천명(天命)에 대한 분명한 이해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공자의 감정과학을 계승한 『중용』에서 찾을 수 있다.

## 2) 배움의 효과

### (1) 『중용』의 천명지성(天命之性)

공자에 의하면 자기 몸을 배우는 지우학(志于學) 또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의 핵심은 천명(天命)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천명은 무엇인가? 『중용』은 다음과 같이 천명(天命)을 정의한다.

天命之謂性<sup>52)</sup>

51)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63.

공자의 지천명(知天命)을 『중용』은 성(性)으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성(性)은 무엇일까? 당연히 몸의 성(性)이라고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천명(知天命)의 천명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성(性)을 제시한다면, 이 모든 논의의 기초는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몸’이기 때문이다. 이 자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천명지성(天命之性)의 뜻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 天命之性 = 몸의 性

위의 등식에 근거하여 우리는 몸을 천명(天命)으로 이해했을 때 그 핵심이 성(性)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이해를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자의 “天(천)”이 “志于學(지우학)”의 결과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志于學(지우학)”의 마음이 자기 사유의 능동성으로 자기 몸을 이해하는 한에서 자신과 자기 몸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그 진실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 이해로부터 “天(천)”은 몸과 마음으로 존재하는 우리 자신의 본질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입니다. “天(천)”은 그 자체의 본성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으며, 이 사실에 의하여 “天(천)”의 본성으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또한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는 지금 우리 몸의 본질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몸이 “天(천)”을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 갖는다는 사실은 필연성 그 자체입니다.<sup>53)</sup>

『중용』의 천명(天命)은 『논어』의 지우학(志于學)과 그에 대한 결과로서 지천명(知天命)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며, 공자의 학문은 방법이 사유학(思與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자기 몸의 진실에 근거하여 천명(天命)을 이해하는 것이 공자가 정초한 유교문화의 천명을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지극히 주관적이라거나 임의적인 것이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오히려 정반대이다. 왜냐하면 자기 사유의 자명 안에서 자기 몸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은 몸의 고유한 본성을 인과의 필연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식의 핵심을 ‘필연성’에 두는 한에서 필연성을 향한 인식은 우연성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확인된 중력에 대한 이해를 우연성 내지는 그와 다른 방식으로 형성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이때의 생각을 인과의 필연성

52) 『中庸』, 1장.

53)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35.

에 근거하여 다시 몸을 배워보면, 엄마아빠의 존재는 영원의 필연성 그 자체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문화(文化)에 대한 갑골문자의 감정과학 분석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논의의 핵심을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54)</sup>

(1) 몸-생김으로서 화(化): ③ 요약

우리가 문(文)에 대한 갑골문의 분석으로 엄마아빠의 존재를 확인했다면, 화(化)에 대한 갑골문의 분석은 엄마아빠의 사랑(섹스)를 적극적으로 형상한다. 왜냐하면 엄마아빠의 사랑(化)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그에 대한 결과로서 지금 나의 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化)에 대한 갑골문의 첫 번째 분석은 ‘내 몸의 생김’으로서 엄마아빠의 사랑이다.

(2) 몸-놀이로서 화(化): ③ 요약

문화(文化)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갑골문으로 어원(語源)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감정과학으로 하면, 문화의 개념 내지는 본질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논자는 본 논문에서 문화(文化)의 본질을 갑골문에 대한 감정과학의 분석에 근거하여 ‘엄마아빠의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라고 정리했다. 이 정리에 근거하여 성동권이 설명하는 유교의 천명(天命)을 다시 보면, 갑골문의 분석과 성동권의 분석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인용에서 성동권은 “天(천)”의 본성으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또한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는 지금 우리 몸의 본질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몸이 “天(천)”을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 갖는다는 사실은 필연성 그 자체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결론은 필연적이다.

『논어』는 우리 몸의 진실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이해하며, 이 진실은 몸의 존재를 설명하는 인과의 필연성에 기초하여 엄마아빠로부터 필연적이다. 이 사실로부터 몸은 존재 그 자체로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며, 이 존재의 기원은 엄마아빠의 생명과 사랑이다. 이 대목에서 갑골문의 문화(文化)는 천명(天命)과 본질에 관하여 일치한다. 따라서 몸은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 천(天)으로부터 필연적인 천자(天子)이며, 이 사실에 근거하여 몸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다. 이 진실이 문화(文化)이며 보다 더 엄격한 뜻에서 문(文)의 본성이다. 왜냐하면 문화(文化)의 화(化)는 문(文)의 본성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54) 아래의 인용은 본 논문의 2장 1절의 ‘2. 화(化)의 개념 분석’에 있다.

## (2) 퇴계 성학십도 태극도(太極圖)

앞에서 정리한 결론은 본 논문의 억측이나 억지가 아니다. 조선 시대의 성리학자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의 『성학십도(聖學十圖)』에 근거하여 분명한 진리이다. 본 논문은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핵심에 국한하여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태극도(太極圖)」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태극도’는 모든 몸의 생김을 단 하나의 필연성으로 설명한다. 우선 원문을 간단하게 제시하겠다.

무극이태극 태극동이생양 동극이정 정이생음 정극부동 일동일정 호위기근 분음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陰  
 분양 양의립언 양변음합 이생수화복금토 오기순포 사시행언 오행일음양야 음양  
 分陽 兩儀立焉 陽變陰合 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 五行一陰陽也 陰陽  
 일태극야 태극본무극야 오행지생야 각일기성 무극지진 이오지정 묘합이응 건도  
 一太極也 太極本無極也 五行之生也 各一其性 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乾道  
 성남 곤도성녀 이기교감 화생만물  
 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

태극도에 대한 설명으로서 태극도설(太極圖說)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몸의 생김을 설명하는 태극도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할 것은 생(生)이다. 이것은 생김을 뜻하며, 그 핵심은 만물(萬物)이다. 즉,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도는 몸-생김의 진실을 설명한다. 생(生)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무극이태극 태극동이생양 동극이정 정이생음 정극부동 일동일정 호위기근 분음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陰  
 분양 양의립언 양변음합 이생수화복금토 오기순포 사시행언 오행일음양야 음양  
 分陽 兩儀立焉 陽變陰合 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 五行一陰陽也 陰陽  
 일태극야 태극본무극야 오행지생야 각일기성 무극지진 이오지정 묘합이응 건도  
 一太極也 太極本無極也 五行之生也 各一其性 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乾道  
 성남 곤도성녀 이기교감 화생만물  
 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

만물(萬物)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위의 인용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무극이태극 … 화생만물  
 無極而太極 … 化生萬物

몸-생김의 기원은 결국 태극(太極)이며 태극은 본래부터 무극(無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극의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하면, 그것이 곧 무극 및 만물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 태극(太極)에 대해서 퇴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순수지선성야 시소위태극야  
純粹至善之性也，是所謂太極也。

태극(太極)은 순수지선(純粹至善)의 성(性)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천명지성(天命之性)을 기억해야 한다. 태극(太極)은 몸-생김에 대한 인과의 필연성이며, 그러한 한에서 태극은 당연히 몸의 본성을 설명한다. 그런데 공자의 유교문화는 몸의 본성을 천명(天命)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몸의 본성을 설명하는 태극도의 순수지선은 당연히 천명의 본질이다.

## ② 순수지선의 엄마아빠

모든 몸은 태극(太極)의 순수지선(純粹至善)으로 생겨났으며 이 진실이 무극(無極)이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무극이태극... 건도성남, 곤도성녀, 이기교감, 화생만물.  
無極而太極...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

만물은 자기 생김에 관하여 태극(무극)을 필연성으로 갖지만, 여기에는 남녀(男女)의 교감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남녀도 당연히 자기 생김에 관하여 순수지선의 태극을 본성으로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교감(二氣交感)은 순수지선 안에서 교감이다. 다음으로 이기(二氣)는 남녀(男女)이다. 이 남녀의 교감으로 만물의 몸이 생겨난다면, 이때의 몸을 우리 자신의 몸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이 남녀는 당연히 엄마아빠이다. 그러므로 순수지선의 엄마아빠 안에서 지금의 내 몸이 생겨났다는 결론이 나온다.

## ③ 요약

순수지선(純粹至善)은 ‘태극본무극’(太極本無極)에 근거하여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의 속성이 영원무한이다. 영원무한의 순수지선이 지금 내 몸을 낳았다. 그리고 내 몸을 낳는다는 것은 엄마아빠의 생명과 사랑이며, 여기에서 엄마아빠는 순수지선의 영원무한 안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내 몸을 낳는 엄마아빠의 사랑도



영원무한의 순수지선 안에 존재한다. 우리가 엄마아빠의 생명이 우리 자신의 생명을 낳는 것을 사랑으로 이해하는 하에서 엄마아빠의 사랑도 생명과 마찬가지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 있다. 이 진실로부터 우리 자신의 몸에 고유한 진실이 몸-생김에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당연히 우리 몸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본질로 갖는다. 따라서 문화의 개념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이해하는 한, 문화가 곧 몸 그 자체의 본성으로서 천명이라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나온다.

### (3) 스피노자 윤리학의 1부 정리

지금까지 논의된 핵심을 서양 근대 철학자 스피노자(Spinoza, 1632~1677)는 자신의 저서 『윤리학』에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기하학적 명제로 정리한다.

#### 1부 정리 29.

사물의 본성에는 어떤 것도 우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55)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이라고 말할 때 존재는 ‘몸-생김’이며 작용은 ‘몸-놀이’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에 대한 개념을 영원무한과 함께 생김의 기원으로 인식한다면, 신은 당연히 몸에 고유한 본성으로서 엄마아빠가 아니면 안 된다. 따라서 유교문화의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천명(天命)은 서양 근대 철학에 의해서도 그 유효성이 입증될 뿐만 아니라 그 핵심 또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 확실하다.

### 3) 공자의 감정과학에 기초한 문(文)

이제 우리는 공자의 문화(文化)를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확인했다. 본 논문의 논자로서 나는 이 주제를 『논어』에 근거하여 직접적으로 증명하겠다. 공자도 갑골문에 대한 감정과학의 분석과 같은 방식으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문(文)을 이해한다는 사실이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1) 배움으로서 문(文)

---

55) 스피노자, 강영계 역, 『에티카』 「1부 정의 29」 (서광사, 2007), p. 57.

공자는 문(文)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14: 좋아서 배우니까 물어가며 물려줄 수 있다. ||

자공이 물었습니다.

“공문자[위나라 대부]를 어찌서 문(文)이라 했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게 배우기 좋아하고,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문(文)이라 부르는 것이다.”

[최소한 물어봐야 글 읽는 사람이다.] 56)

자공문왈공문자, 하이위지문야. 자완민이호학 불치하문 시이위지문야.  
子貢問曰孔文子, 何以謂之文也. 子曰敏而好學, 不恥下問, 是以謂之文也.

공자에 의하면 문(文)은 배움과 직결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공자의 배움이 몸  
에 대한 배움이며 그 효과는 지천명(知天命), 즉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배움인데, 문(文)의 개념을 학(學)으  
로 공자가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문(文)의 핵심은 당연히  
학(學)의 본질과 일치하는 것이며, 우리가 학(學)으로 이해하는 핵심을 몸에 고유한  
본성으로서 영원무한의 생명을 이해하는 한 문(文)의 본질 또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 (2) 몸의 본질로서 문(文)

공자의 문(文)은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이며, 핵심은 생명과 사랑의 영원무한  
이다. 그리고 이 진실은 엄마아빠의 진실이며, 이것을 천(天) 또는 신(神)으로 이해  
한다.

|| 9-5: 다 좋은 세상은 누가 뭐래도 끄떡없다. ||

공자가 광(匡) 땅에서 해코지 당할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문왕이 이미 돌아가시고 그 문(文)이 여기 나에게 있지 않은가? 하늘이 장차 이  
문(文)을 없애버리면 뒤에 오는 사람이 이 문(文)과 더불어 할 수 없겠지만, 하늘이  
이 문(文)을 없애지 않는데 광 땅 사람들이 나를 어찌 하겠느냐?”

[죽는다고 한들 문(文)이 어디 가는 것 아니다.] 57)

56)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134.

57)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213.

자 외 어 광 왕 문 왕 기 불 문 부 제 자 호 천 지 장 상 사 문 야 후 사 자 부 득 여 어 사 문 야 천 지 미  
 子畏於匡曰：文王既沒文不在茲乎。天之將喪斯文也，後死者，不得與於斯文也。天之未  
 상 사 문 야 광 인 기 여 여 하  
 喪斯文也，匡人其如予何。

여기에서 중요한 논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 ① 文은 天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 ② 文은 공자 자신의 몸, 사실상 우리 자신의 몸에 존재한다.

공자는 “하늘이 장차 이 문(文)을 없애버리면 뒤에 오는 사람이 이 문(文)과 더불어 할 수 없겠지만, 하늘이 이 문(文)을 없애지 않는데 광 땅 사람들이 나를 어찌 하겠느냐?”라고 말했다. 하늘(天)의 속성이 곧 문(文)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문(文)은 몸의 본성으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몸을 떠나서 문(文)이 존재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증거가 공자의 “문왕이 이미 돌아가시고 그 문(文)이 여기 나에게 있지 않은가?”이다. 핵심은 문(文)이 몸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다음의 결론은 필연적이다.

**공자의 문화(文化)는 몸의 본성으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 2. 문화(文化): 천자로 생겨나고 놀이하는 ‘나’

공자의 『논어』에 근거하여 ‘문’(文)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모든 몸이 영원의 필연성으로 순수지선으로 생겨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모든 몸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몸이 지금 우리 자신의 몸이라는 사실이다.

### 1) 성스러운 문(文)으로서 나의 몸-생김

#### (1) 지금 내 몸에 있는 문(文)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 천(天)이며, 이것은 몸의 본성으로 존재한다. 이때 ‘몸’이 지금 우리 자신의 몸이 아니라면 사실상 천(天)의 영원무한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을 긍정하면 그 즉시 영원무한은 자기 밖의 자기를 부정하는 어

떤 것의 존재를 긍정하게 되므로, 이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공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 7-22: 다 좋은 세상은 막을 수 없다. ||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내게 은덕을 내리셨는데 환퇴가 나를 어찌하겠느냐?”

子曰: 天生德於予, 桓魋其如予何.<sup>58)</sup>

여기에서 핵심은 ‘여’(予)이다. 이 용어는 매우 철학적인 뜻을 품고 있다. 공자가 자기 자신을 부를 때도 ‘여’(予)이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부를 때 여(予)라고 부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모두의 ‘나’를 뜻하는 ‘1인칭’의 뜻을 품고 있다. 이 사실을 성동권은 퇴계 이황의 「서명고증강의」(西銘考證講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와 관련하여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여(予)에 대한 진실성을 밝힌다.

‘여’(予)와 명(銘) 가운데 등장하는 아홉 개의 ‘오’(吾)는 원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自己)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서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있는 열 개의 ‘나’에 대해서, 횡거의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하지 말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나’를 뜻하는 것이라고 자신을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서는 당연히 ‘나’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열 개의 ‘나’는 글을 읽고 있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비로소 「서명」이 仁의 本體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sup>59)</sup>

퇴계에 의하면 여(予)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 이 점을 성동권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여’(予)와 ‘오’(吾)는 退溪 선생 또는 이 소논문을 읽는 독자가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논자 자신이어야 한다.<sup>60)</sup>

그러므로 우리가 여(予)의 뜻을 우리 자신으로서 ‘1인칭’으로 확인하면, 핵심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서 문(文)이 지금 우리 자신의 본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文)을 우리 자신의 몸에 고유한 본성으로 이해하는 한에

58)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p. 185-186.

59) 성동권, “退溪의 西銘考證講義에서 乾坤父母 研究,” 『퇴계학논집』(영남퇴계학연구원, 2015), p. 370.

60) 성동권, “退溪의 西銘考證講義에서 乾坤父母 研究,” 『퇴계학논집』(영남퇴계학연구원, 2015), p. 370.

서 문(文)은 문화(文化)이다. 왜냐하면 문(文)은 지금 우리 자신의 몸에 고유한 본성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문(文)의 변화(變化)가 곧 우리 자신의 몸을 생겨나게 한 유일한 인과의 필연성이기 때문이다.

## (2) 나 스스로 이해하는 나의 문(文)

공자의 여(予)를 지금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사실로부터 지금 우리 몸의 본성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서 문화(文化)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의 인용에 근거하여 명백하다.

|| 14-37: 있는 그대로 배워 알면 다 좋은 세상이다. ||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자공이 말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고, 아래를 배워서 위와 통하니, ‘나’를 아는 자, 그게 하늘이다.”

子曰：莫我知也夫。子貢曰：何爲其莫知子也。子曰：不怨天，不尤人，下學而上達，知我者，其天乎。<sup>61)</sup>

여기에서 핵심은 “나를 아는 자, 그게 하늘이다.”이다. 나를 안다는 뜻으로서 ‘지아자’(知我者)가 곧 ‘지천명’(知天命)이다. 이 사실로부터 나의 존재는 천(天)으로 증명됩니다. 정확히 말하지만, 천(天)에 의해서 지금 내 몸의 존재가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나의 몸-생김은 문화(文化)이며, 핵심은 천자(天子)로 생겨난 ‘나’이다. 이것이 내 몸의 진실이다.

## 2) 성스러운 문(文)으로서 나의 몸-놀이

공자의 『논어』에 근거하여 몸-생김의 진실을 문화(文化)로 확인했다. 문(文)이 지금 우리 자신의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이며, 이 진실을 인과의 필연성으로 이해하면 문화(文化)이다. 즉,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이며, 이 필연성으로 생겨난 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 몸이다. 이것이 몸-생김의 진실이라면, 몸-생김의 진실은 감정과학에 의하여 몸-놀이의 진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의 진실은 몸-놀이에도 존재해야 한다. 이 사실을 『논어』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61)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330.

## (1) 문(文)을 떠날 수 없는 몸-놀이

『논어』는 요(堯) 임금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들려준다.

|| 20-1: 다 좋은 세상이라 기뻐한다. ||

요임금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 순(舜)아, 영원 무한한 하늘의 내력이 네 몸에 있으니 그 가운데를 꼭 잡아라. … 너그러워 백성을 얻고, 미더워 백성이 맡기고, 일을 ‘두고 보자’하지 않고 민첩하게 처리하여 공효가 있으니, ‘다 좋은 세상’이라 기뻐합니다.”<sup>62)</sup>

堯曰: 咨爾舜, 天之曆數, 在爾躬, 允執厥中. … 寬則得衆, 信則民任焉, 敏則有功, 公則  
열說.

이 인용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은 “자, 너 순(舜)아, 영원 무한한 하늘의 내력이 네 몸에 있으니”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순(舜)이 아니라 영원무한의 하늘, 즉 생명과 사랑의 영원무한이 지금 우리 자신의 몸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이 사실 안에서 “너그러워 백성을 얻고, 미더워 백성이 맡기고, 일을 ‘두고 보자’하지 않고 민첩하게 처리하여 공효가 있으니, ‘다 좋은 세상’이라 기뻐합니다.”라고 정리했다. 즉, 몸-생김의 진실이 그와 동시에 몸-놀이의 진실로 존재하고 있다는 진리의 필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몸-놀이는 절대적으로 몸-생김의 진실로서 문(文) 안에 존재한다.

## (2) 다시, 학이시습(學而時習)

몸-생김의 진실이 몸-놀이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은 공자의 학이시습(學而時習)에 근거하여 분명하다.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sup>63)</sup>

학(學)은 이미 정리한 바와 같이 몸의 진실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인식하는 것이다. 내 몸의 진실을 문화(文化)로 이해하는 것이 공자의 학(學)이며 감정

62)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429-430.

63) 『論語』, 「學而」 1장.

과학의 진실이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으로서 ‘시습’(時習)이다. 여기에서 시(時)는 당연히 시간(時間)을 뜻한다. 그렇다면 시간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당연히 몸으로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을 뜻한다. 즉, 몸-놀이를 뜻한다. 이것이 첫 번째 논점이다.

다음으로 ‘시습’(時習)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이(學而)에 이어서 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습(時習)은 절대적으로 학이(學而) 안에 존재한다. 이 결론에 근거하면, 몸-놀이로서 시습(時習)은 문화(文化)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몸-놀이는 학이(學而)를 떠나서 별도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몸-놀이와 몸-생김은 영원의 필연성으로 문화(文化)를 자기 존재에 관하여 고유한 본질로 갖는다. 이것이 두 번째 논점이다.

이상 두 개의 논점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은 필연적이다. ‘문화’(文化)는 몸-생김과 몸-놀이를 일관하며, 몸은 자기의 존재와 작용에 관하여 영원의 필연성으로 생명과 사랑의 영원무한을 본성으로 갖는다. 즉,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서 문(文)은 몸에 고유한 본성으로 본래부터 영원성 안에서 완전성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이 문(文)이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무한한 몸을 낳으며 동시에 그렇게 생겨난 무한한 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작용에 관하여 문(文)을 따르도록 영원 그 자체로 결정하였다. 이것이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문화’(文化)이다. 이 진실을 지금 우리 자신의 몸-생김과 몸-놀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필연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감정과학의 문화개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3. 요약: 감정과학의 문화개념 정리

#### 《감정과학의 문화개념》

##### 1) 문(文)

: 몸에 고유한 본성으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 2) 문화(文化)

: 몸의 본성 안에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몸이 존재하고 작용한다. 몸의 생김과 놀이에 고유한 생명과 사랑의 영원무한이 ‘문화’(文化)이다.

## 제3장 문화상품에 관하여

### 제1절 상품에 관하여

본 논문의 목적은 문화상품의 소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 목적을 위해서 문화의 개념을 2장에서 정리하였으며, 여기 3장에서는 2장에 근거하여 문화상품의 개념이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상품'은 문화소비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이며 문화소비에 대한 연구는 상품에서 시작되어야 하므로 '상품'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더욱 중요하다.

#### 1. 상품에 대한 일반적 이해

##### 1) 노동의 성과로서 상품

바이두 백과 웹사이트에 기초하여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품은 판매를 위해 생산되는 노동의 성과이며, 인류 사회의 생산력이 일정한 역사적 단계로 발전한 산물로 교환되는 노동의 산물이다.

엥겔스는 이에 대해 과학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품'은 먼저 개인 상품이다. 그러나 이런 사적 생산물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소비, 즉 사회를 위한 소비일 때 비로소 상품이 되고, 교환을 통해 사회로 들어오는 소비"라고 말했다.

회계학에서 상품의 정의는 상품 유통 기업이 외부 구매 또는 위탁 가공을 완료하고 창고에서 판매에 사용되는 다양한 상품을 검사하는 것이다. 인교관 필수일 정치서에서의 정의는 교환용 노동생산품이다. 상품의 기본 속성은 가치와 사용 가치이다. 가치는 상품의 본질적 속성이고, 사용 가치는 상품의 자연적 속성이다.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다른 정의가 있다.

1. 상품이란 판매하기 위해 화폐를 취득하고 일정한 사용가치가 있는 노동제품을 말한다.

2. 상품은 사람들의 특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환되는 노동제품이다.

3. 상품은 교환된 노동제품이지만 사용과정에 들어간 노동제품은 아니다.

좁은 의미의 상품은 정의에 부합하는 유형 제품만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의 상품은 유형 제품 외에 무형의 서비스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험 상품' '금융 상품' 등이 있다.

상표법 사무에서 좁은 의미의 상품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은 서비스에도 적용된



다.<sup>64)</sup>

위의 인용문을 통해 우리는 ‘상품’이 인간의 노동에 의해 이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품의 세 가지 다른 정의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총결산할 수 있다.

(1) 상품으로서는 우선 노동제품이어야 한다.

노동제품이 아니면 상품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자연계의 공기, 햇빛 등은 인간의 삶에 필요하지만 모두 노동제품이 아니므로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2) 상품으로 교환에 사용되어야 한다.

상품은 항상 교환과 분리할 수 없다. 교환의 가치가 없다면 노동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하여도 상품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대에는 전통적인 남성 농업 및 여성 직물 스타일의 가정에서 생산되었으며, 재배된 곡물과 직물은 비록 노동제품이지만 가족 구성원만 사용할 뿐 다른 사람과 교환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상품이 아니다.

(3) 상품으로서 타인이나 사회에 가치가 있어야 한다. (가치가 없으면 교환이 일어나지 않고, 가치가 있어야 교환이 일어난다.)

상품의 사용가치는 상품이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품의 유용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마다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다르다. 사용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품이 인간의 생존과 번영 및 사회의 안녕과 발전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위의 내용은 바이두 백과 웹사이트에서 요약한 상품의 정의와 특징이며, 상품의 특징이나 정의에 관계없이 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노동력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64) 百度百科(바이두 백과), 2015, “商品學名詞,”<https://baike.baidu.com/item/>(검색일: 2023. 3. 01). ‘바이두 백과’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포괄하는 중국어 정보 수집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내용의 온라인 백과사전 플랫폼이다.

## 2) 노동의 교환수단으로서 상품

후텐바오(侯天宝)는 「'상품'의 개념을 깊이 이해하다」에서 상품의 개념을 탐구했는데, 기본적으로 바이두 백과 웹사이트의 설명과 비슷하다. 그는 상품의 노동 속성과 교환 속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상품에 대해서 논한다.

하나의 물건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상품으로서 우선 노동제품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제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노동으로 생산한 제품으로 노동제품이 아니면 상품이 될 수 없고, 예를 들어 자연계의 햇빛, 공기, 산천, 강, 호수 등은 상품이 아니다. 둘째, 인간의 생산물은 아니지만 인간의 노동을 통해 참여함으로써 노동생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잡은 귀뚜라미, 따온 과일 등이 '잡고', '따고'는 자연에 원래 있던 것을 노동제품으로 만듭니다. 둘째, 노동제품은 교환을 통해서만 상품이 될 수 있다. '교환'은 노동제품이 상품이 되는 열쇠이다. 농민이 직접 재배한 곡물을 상품이 되려면 팔아야 하는데, 농민이 재배한 곡물을 직접 썼다면, 즉 다른 사람과 교환하지 않았다면 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 '교환'은 등가교환, 합법교환, 매매관계의 교환 등 세 가지 의향이 있다.<sup>65)</sup>

후텐바오(侯天宝)는 소논문에서 '교환'은 '노동제품'이 노동에 머물지 않고 상품이 되는 관건이라고 주장한다. 이때 교환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특징으로 나뉜다고 말했다.

- (1) 등가교환
- (2) 합법적 교환
- (3) 매매관계교환

여기서의 교환은 평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제품 소유권의 양도 및 기타 이익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상호 호혜적인 경제활동이어야 한다. 또한 교환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으며, 교환은 분업과 전문화를 촉진하여 모든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향상시켜 사회 전체의 생산 가능성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교환 없이는 사회적 분업과 전문화가 불가능하고 기술 혁신이 불가능하므로 인류 문명의 발전도 불가능하다.

또한 교환은 생산, 분배 및 소비의 중간 단계이다. 사람들이 얻은 소비재의 몫을 분배함으로써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소비재를 얻기 위해 교환을

65) 侯天宝(후텐바오), “深入理解“商品”的概念(‘상품’의 개념을 깊이 이해하다),” 『文本解讀(텍스트 해독)』 (吉林省實驗中學, (지린성 실험중학교), 2015), p. 20.

거쳐야 한다. 생산의 성격과 형태는 교환의 성격과 형식을 결정한다. 상품 교환은 형식적으로는 물물 간의 관계이며, 실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생산 자재 또는 상품 소유자 간의 교환 노동관계이다.

그러므로 교환의 출현으로 사람들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게 되었고, 비록 사람의 재능은 매우 다르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여 이 공통 자원에서 다른 사람이 생산한 물품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서로 노동을 주고받는 관계이고, 인간 사회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노동을 주고받음으로써 개인과 전체의 생존과 발전을 이루며, 서로 노동을 주고받는 빈도가 인류 사회의 발전 속도를 결정한다. 후텐바오(侯天寶)의 분석을 통해 교환의 다양한 이점을 확인했다. 여기서도 핵심은 노동을 교환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 3) 노동의 사용가치에 기초한 상품

정광귀(鄭光貴)는 「상품정의실타미」에서 상품의 두 가지 요소, 사용 가치와 가치에서 상품의 개념을 분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본론’에서 마르크스는 상품이 두 가지 요소, 즉 사용가치와 가치를 지닌다고 봤다. 상품은 사용 가치와 가치의 통일체이다. 그는 상품을 연구할 때 배제법을 써서 상품이 무엇인지 답한다. 첫째, 사용 가치가 있는 천연물은 상품이 아니다. “물건은 상품이 아닌 사용가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기, 처녀지, 자연 초원, 들숲 등등이다. 둘째, 자신이 소비하는 사용가치가 있는 노동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상품이 아니다.” “하나의 물건은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인간의 노동생산물이지만 상품은 아니다. 누가 자신의 제품으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지, 그가 생산하는 것은 단지 사용 가치이지 상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가치가 없는 노동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상품이 아니다. “사용물품이 아닌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 물건이 쓸모없다면 그 안에 포함된 노동도 쓸모가 없어 노동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치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넷째,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제품이 상품이다. “상품을 생산하려면 그는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가치, 즉 사회의 사용가치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sup>66)</sup>

위에서 인용한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약할 수 있다.

(1) 상품의 사용 가치와 가치의 ‘의미’는 다르다. 상품이 사람들의 특정 요구를 충

66) 鄭光貴(정광귀), “商品定義新探(상품정의실타미),” 『安徽師範大學學報(안후이 사범대학 학보)』 (安徽商貿職業技術學院, (안후이 상무직업기술학원), 2007), p. 381.

족시킬 수 있는 속성을 상품의 사용 가치라고 하며, 상품에 응축된 무차별적인 인간의 노동은 가치라고 한다.

(2) 상품의 사용 가치와 가치의 ‘관계’는 다르다. 사용 가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반영하고, 가치는 상품 생산자가 노동력을 교환하는 관계, 즉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반영한다.

(3) 상품의 사용 가치와 가치는 상품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사용가치는 모든 유용한 항목의 속성이며, 따라서 상품의 자연적 속성이다. 반면 가치는 상품의 고유한 속성이며, 따라서 상품의 본질적 속성이다.

(4) 상품의 사용 가치와 가치의 ‘역할’은 다르다. 다른 사용 가치는 다른 상품의 교환을 결정하고 가치는 상품 교환의 기초이며 상품 교환의 비율을 결정한다. 음료한 잔과 같이 제조, 포장, 운송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치이며, 그 사용가치는 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의 논점을 요약하면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사용 가치가 있지만 사용 가치가 있다고 반드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예를 들어, 공기는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지만 사용할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으로서 가치는 반드시 인위적인 노동에 의해 획득되며, 오직 이유에서 인간 노동은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이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노동을 가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 2. 비판 및 결론

문화상품을 이해하기 위하여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2장에서 정리한 ‘문화’(文化) 개념에 근거하여 앞에서 정리한 상품 관련 세 가지 논의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분석하겠다. 그 전에 논의의 효율을 위하여 본 논문이 이해하는 문화개념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문(文)과 문화(文化)의 개념

문(文)이란, 몸 그 자체의 본성으로서 엄마아빠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이다. 이 본성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며, 이 본성이 지금 내 몸의 본성으로 존재한다. 이 진리가 ‘문’(文)의 기본 개념이다.

문화(文化)란, 몸 그 자체의 본성으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 생명과 사랑이라는 자기 본성을 따라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몸으로 변화하여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생명과 사랑의 영원무한이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생명과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문화(文化)이다.

이상, 본 논문이 이해하는 문(文)의 개념으로부터 필연적인 문화(文化)의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고, 이하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상품에 대한 일반적 이해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 2) 문화개념에 근거한 상품 개념 비판

### (1) ‘나’가 없는 상품

상품에 대한 첫 번째 논의는 상품을 인간의 노동 활동의 결과물로 이해한다. 그 결과물이 가치를 가질 때, 상품으로서 지위를 획득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노동의 결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노동의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욕구에 의해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질 때, 비로소 상품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노동이다. 노동이 없으면 사실상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노동의 결과물도 없으며, 이로부터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상품의 기원을 인간의 노동으로 확인하면, 엄격한 의미에서 노동의 결과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욕망 추구에 의해서 상품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이 없으면 노동의 결과물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품의 기원이 상품 생산의 주체로서 나 자신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다 엄격히 말해서 노동의 주체를 나의 몸에 두는 한에서 상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당연히 몸에 대한 타당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상품에 대한 타당한 인식은 그 기초가 몸 그 자체의 진실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는 결론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바이두 백과 사이트는 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의 주체로서 몸의 진실을 전혀 밝히지 못한다. 그 결과 노동

에 의한 결과물이 노동의 주체로서 몸이 아닌 그것을 현상적으로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 결과 상품은 ‘나’의 존재가 사라진 비극이 아닐 수 없다.

## (2) ‘생명’이 없는 상품

두 번째 논문은 상품을 교환에 집중하여 설명한다. 이것을 역으로 보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품을 만들어 내는 제작자 자신, 즉 ‘나’ 자신의 존재를 상품에서 축출하는 것이다. 상품의 기원을 ‘나’의 몸에 두고, 특히 본 논문의 목적에 충실하여 상품의 본질을 문화상품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나의 몸은 생명 그 자체로서 영원성이며, 이 사실로부터 상품을 이해해야 한다. 이 경우 상품은 내 몸에 고유하고 영원한 생명이 생명의 활동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품은 교환 여부 내지는 교환의 성공 여부에 전혀 상관없다. 몸의 본성으로서 영원의 생명에서 산출되는 모든 결과물은 그 자체가 영원의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오직 이 사실에 근거하여 상품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 따라서 후텐바오(侯天寶)의 논문 「‘상품’의 개념을 깊이 이해하다」에서 이해하는 상품은 생명을 결여한 것이다.

## (3) ‘사랑’이 없는 상품

세 번째 논문은 상품을 ‘사용가치’의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그런데 문제는 ‘사용’이라는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노동에 의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동시에 그것이 ‘사용’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가지면, 그때 비로소 그것은 상품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분명해야 할 것은 어떤 노동의 결과물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용된다고 할 때, 사용된다는 현상만으로 그것은 상품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성립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용’의 개념을 다각도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사례로서 내가 나의 노동을 들여서 마약을 제조했다고 상상해 보자. 그리고 이 마약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사용된다고 상상해 보자.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 낸 마약은 사용가치가 아주 높기 때문에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쉽게 알고 있다. 그런 것은 절대 상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조금 극단적인 사례를 제시했지만, 여기에는 매우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노

동의 결과물을 두고 어떤 사람은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물은 사용가치를 얻는가? 그리고 상품이 될 수 있는가? 어떤 노동의 결과물을 두고 그것의 상품성을 둘러싼 매우 복잡한 논의 및 심지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결국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노동에 대한 분명하지 않은 개념으로부터 상품에 대한 분명하지 않은 개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상품의 개념을 문화에 근거하여 이해하는 한에서 노동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본성으로 갖는 몸이 하는 성스러운 생명과 사랑 활동이며, 이 사랑만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므로 이 사실에 근거하여 상품을 결정하는 노동을 하는 몸의 본성에 고유한 ‘사랑’이다. 이 원칙으로 노동 산물의 사용을 논의하면 상품의 가치를 논할 수 있다. 따라서 세 번째 논문은 사용에 대한 개념을 상실함으로써 상품의 개념 또한 상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4) 소결론

본 논문은 문화상품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상품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기초하여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로서 세 가지 관점을 요약했다. 그리고 본 논문이 정립한 문화개념에 근거하여 상품에 대한 세 가지 일반론을 분석하고 비판했다. 그 결과 상품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문화의 개념을 상실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론은 매우 중요한데 상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인 성찰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제2절에서는 문화개념에 근거하여 상품이 무엇인지, 즉 ‘문화상품’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제2절 문화상품에 관하여

여기에서는 상품에 대한 일반론이 아닌 본 논문이 정리한 ‘문화’(文化) 개념에 근거하여 ‘문화상품’(文化商品)이 무엇인지 그에 고유한 본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화의 개념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감정과학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으며, 이 방법은 근본적으로 공자의 유교문화에 기원한다. 이 방법에 기초하여 ‘문화’의 개념을 갑골문으로 분석했을 때, 문화의 핵심 개념은 몸에 고유한 본성으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이것이 몸-생김의 진실이므로 이로부터 몸-놀이로서

감정의 진실 또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즉, 몸이 문화이며, 동시에 몸이 느끼는 감정 또한 문화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유교문화의 감정과학인 『대학』과 『중용』에 집중하여 ‘문화상품’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겠다.

## 1. 덕(德)에서 기원하는 문화상품, 재(財)

### 1) 덕본재말(德本財末)

상품은 소비되는 것이며, 사실상 소비가 목적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행복’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이 행복은 당연히 경제적 효과가 분명한 물질적 이득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과 평화로 확인되어야 한다. 상품의 소비를 통한 궁극적 효과를 이와 같이 정리하면, 소비의 대상으로서 상품 이전에 상품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을 우리가 반드시 먼저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품에 고유한 본성이 경제적 번영과 동시에 정신적 행복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상품의 소비는 반드시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 데에 성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품의 개념을 문화로 이해하는 한에서 문화상품은 당연히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자신의 본성으로 갖는다. 이 본성에 근거하여 문화상품의 소비가 생명과 사랑을 지키며 증진할 것이라는 결론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러한 상품의 진실, 즉 ‘문화상품’을 『대학』은 덕(德)에 기초한 재(財)라고 정의한다.

是故君子先慎乎德. 有德此有人, 有人此有土, 有土此有財, 有財此有用. 德者本也, 財者末也.<sup>67)</sup>

그러므로 군자는 먼저 보이지 않는 느낌[德=不顯惟德] 앞에서 근신하지 않을 수 없다. 느낌[德=不顯惟德]이 있는 그곳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 그곳에 땅, 즉 몸이 있고, 몸이 있는 그곳에 재물이 있고, 재물이 있는 그곳에 재물 쓸도 있는 것이니, 덕 [느낌]이 본이고 재물이 말이다.<sup>68)</sup>

위의 인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논리적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덕(德) → 인(人) → 토(土) → 재(財)

67) 『大學』, 「傳」 10장.

68) 조중빈 역설, 『자명대학』 (국민대학교 출판부, 2020), p. 54-55.



재(財)의 기원이 덕(德)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人)은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이며, 토(土)는 상품을 제작하는 공간 또는 그것을 소비하는 시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지극히 당연한데,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공간은 공중의 하늘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가는 땅(土)이기 때문이다. 즉,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人)이 존재해야, 그 사람이 상품을 만들고 소비할 수 있는 시장(土)이 존재하며, 시장에서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구매자 모두에게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행복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재(財)는 제작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구매자에게 소비되는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덕(德), 그리고 격물치지(格物致知)

『대학』에 의하면 이 상품은 ‘덕’(德)에서 기원한다. 이로부터 상품(財)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덕’(德)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덕(德)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그것으로 상품(財)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대학』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대학지도 제명명덕  
大學之道 在明明德<sup>69)</sup>

이 문서의 목적이 덕(德)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학』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격물치지(格物致知)에 있다.

고지욕명명덕어천하자 선치기국 욕치기국자 선제기가 욕제기가자 선수기신 욕수기신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在格物<sup>70)</sup>

‘명명덕’(明明德)의 방법이 ‘격물’(格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격물(格物)은 무엇일까? 우리는 위의 인용에서 명명덕과 격물 사이에 수신(修身)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격물(格物)의 물(物)은 당연히 수신(修身)의 신(身)이 아니면 안 된다. 몸에 대한 이해가 격물(格物)임을 알 수 있다. 이 주제를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69) 『大學』, 「經」 1장.

70) 『大學』, 「經」 1장.

『대학』의 경문(經文)에 의하면, 학문의 핵심은 자기 몸(身)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대학』의 경문은 수신(修身)을 학문의 근본으로 제시합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대학』의 경문이 3강령(綱領)을 위한 방법으로서 8조목(條目)을 치지(致知)로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석하면, 『대학』의 수신(修身)이 ‘몸’(身)에 대한 타당하고 완전한 이해에 있다는 결론은 필연적입니다. 수신(修身)의 수(修)는 치지(致知)입니다.<sup>71)</sup>

성동권에 의하면 격물치지(格物致知)는 자기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이 이해를 형성하는 것이明明덕(明明德)이기 때문에 이 사실로부터 『대학』의 덕(德)은 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문화(文化)의 개념을 탐구하는 본 논문의 2장에서 몸의 진실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서 ‘문’(文)이며, 이 진실로부터 영원의 필연성으로 지금 현재 존재하도록 결정된 몸이 ‘문화’(文化)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은 필연적이다.

$$\text{덕(德)} = \text{문화(文化)} = \text{재(財)}$$

### 3)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서 문화상품

‘재’(財)가 몸의 진실로서 ‘문화’(文化)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대학』에 의하면 상품은 문화상품으로서 재(財)이며, 이것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자기 존재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 갖는다. 따라서 문화상품은 몸의 본성으로서 생명과 사랑에 기초하여 몸이 만들어 내는 모든 것이라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나온다.

## 2. 이미 문화상품으로 존재하는 ‘나’

### 1) 몸의 생명과 사랑을 더 크게 하는 문화상품, 재(財)

몸에 고유한 본성은 문(文)이며, 이것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이 진실이 무한한 몸으로 생겨난다는 것이 문화(文化)이다. 그런데 몸은 생겨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놀이하는 것이다. 본 논문을 이것을 ‘몸-놀이’로 정의하였으며, 이것은 사실

71) 성동권,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부크크, 2022), p. 134.

상 ‘감정’으로 존재하고 밝혔다. 몸 그 자체의 본성이 문(文)이라면, 이 본성은 몸-생김과 몸-놀이에 근거하여 생김과 놀이를 일관하는 단 하나의 영원한 본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文)은 몸 그 자체의 본성으로부터 몸-생김의 무한성만을 뜻할 뿐만 아니라 몸 그 자체의 본성으로서 문(文)이 몸-놀이의 본성에도 존재한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문(文)은 감정 그 자체의 본성이며, 문화(文化)는 몸-생김의 무한성을 뜻할 뿐만 아니라 몸-놀이의 무한성을 뜻한다. 모든 몸이 문(文)을 자신의 본성으로 가지고 있으며, 모든 감정이 자신의 본성으로 문(文)을 갖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 덕유인(德有人)이며, 이러한 사람의 진실이 모인 곳이 덕유토(德有土)이다. 또한 이러한 사람의 진실이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상품을 제작하고 동시에 제작된 상품을 자신의 감정에 근거하여 구매한다. 이렇게 보면, 상품이 이미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며, 이와 동시에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생겨난 상품이 역으로 덕(德)을 보다 더 큰 행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쉬운 이해를 위하여 바로 앞에서 다룬 덕본재말(德本財末)을 다시 보자.

是故君子先慎乎德. 有德此有人, 有人此有土, 有土此有財, 有財此有用. 德者本也, 財者  
 말 약  
 末也.<sup>72)</sup>

그러므로 군자는 먼저 보이지 않는 느낌[德=不顯惟德] 앞에서 근신하지 않을 수 없다. 느낌[德=不顯惟德]이 있는 그곳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 그곳에 땅, 즉 몸이 있고, 몸이 있는 그곳에 재물이 있고, 재물이 있는 그곳에 재물 씬도 있는 것이니, 덕 [느낌]이 본이고 재물이 말이다.<sup>73)</sup>

위의 인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흐름을 정리했다.

덕(德) → 인(人) → 토(土) → 재(財)

덕(德) → 재(財)

그런데 얼마든지 다음과 같은 흐름이 형성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주장하는 논점의 핵심이다.

[덕(德) = 몸(身)] → 재(財)

재(財) → [덕(德) = 몸(身)]

72) 『大學』, 「傳」 10장.

73) 조중빈 역설, 『자명대학』 (국민대학교 출판부, 2020), pp. 54-55.

덕(德)과 재(財) 사이에 위와 같은 흐름이 형성되는 이유는 이 둘 모두가 근본적으로 문(文)으로부터 필연적인 문화(文化)의 진실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존재하는 몸(德)이 상품(財)을 생산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겨난 상품(財)이 역으로 몸(德)을 보다 더 큰 생명과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몸(德)이 상품(財)을 만들어 내면, 그 상품(財)으로 인하여 몸(德)이 자신의 생명과 사랑을 크게 할 수 있다.

## 2) 이신발재(以身發財)? 이재발신(以財發身)!

우리가 상품의 본성을 문화상품으로 이해하는 한에서 몸은 엄밀히 말해서 상품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왜냐하면 몸의 본성으로서 문(文)에 근거하여 무한하게 몸이 생겨나고 동시에 그렇게 생겨난 몸이 무한하게 감정을 느끼는 것이 문화(文化)이며, 이것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상품으로서 재(財)이기 때문이다. 즉, 상품을 목적으로 몸(德)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몸(德)이 자기 본성인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에 근거하여 몸의 생명과 사랑을 보다 더 크게 인도하기 위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 상품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상품과 몸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면, 몸은 절대 상품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오히려 상품은 몸을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진실을 『대학』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인자이재발신 불인자이신발재  
仁者以財發身 不仁者以身發財<sup>74)</sup>

느낌 있는 사람은 돈으로 몸을 모시고, 느낌 없는 사람은 몸으로 돈을 모신다.<sup>75)</sup>

이신발재(以身發財)를 조중빈은 “느낌 없는 사람은 몸으로 돈을 모신다.”라고 번역하였다. 돈을 목적으로 몸을 쓰거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재발신’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불인자’(不仁者)이다. 자기 생명과 사랑을 돈이라는 목적 또는 돈을 위한 상품을 위해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자기 본성으로서 생명과 사랑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결과로 나오는 상품 및 그것을 통한 돈을 사랑하는 것이어서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불인자’이다.

반면에 인자(仁者), 즉 자기 몸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재발신’(以財發身)이

74) 『大學』, 「傳」 10장.

75) 조중빈 역설, 『자명대학』 (국민대학교 출판부, 2020), p. 63.

다. 여기에서 재(財)는 당연히 문화상품이다. 몸의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상품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문화상품(財)으로 자기 몸을 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품은 생명과 사랑에서 나오는 문화상품이기 때문에는 우리는 최대한 이 상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몸에 고유한 본성으로서 생명과 사랑을 문화상품을 사용할 때보다 덜 사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 사실이 분명할 때 『대학』의 다음과 같은 명제는 지극히 당연하다.

미 유 부 고 재 비 기 재 자 아  
未有府庫財非其財者也<sup>76)</sup>

창고에 재물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재물이 아니라고 하는 자는 없다.<sup>77)</sup>

여기에서 고재(庫財)는 창고에 가득한 상품이다. 여기에서 재(財)는 당연히 문화상품이며, 따라서 고재(庫財)는 문화상품이 모여 있는 총화(總和)이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자신의 재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문화상품으로서 ‘재’(財)의 본성이 곧 지금 내 몸의 본성(德)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우 놀라운 그러나 지극히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내 몸의 본성과 상품의 본성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내 몸이 곧 문화상품이며 더 나아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이 사실상 지금 나의 몸이라는 결론이 그것이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보면, 조중빈의 “창고에 재물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재물이 아니라고 하는 자는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 3)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 나의 몸 = 문화상품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 지금 나의 몸이며, 이 몸에서 문화상품이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만들어진다. 이 모든 것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 나의 몸 = 문화상품**

이 등식을 유교문화의 감정과학으로서 『중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76) 『大學』, 「傳」 10장.

77) 조중빈 역설, 『자명대학』 (국민대학교 출판부, 2020), pp. 63-64.

금 부 천 사 소 소 지 다 금 기 무 궁 야 일 월 성 신 계 연 만 물 부 연 금 부 지 일 환 토 지 다 금 기 광  
 후 載 華 嶽 而 不 重 振 河 海 而 不 洩 萬 物 載 焉 今 夫 山 一 卷 石 之 多 及 其 廣 大 草 木 生 之 禽  
 수 거 지 보 장 흥 연 금 부 수 일 작 지 다 금 기 불 측 원 타 교 룡 어 별 생 연 화 재 석 연<sup>78)</sup>  
 獸 居 之 寶 藏 興 焉 今 夫 水 一 勺 之 多 及 其 不 測 龜 鼈 蛟 龍 魚 鼈 生 焉 貨 財 殖 焉<sup>78)</sup>

지금 여기 내 몸에 있는 하늘은 이 정도로 반짝이는데 금기야 무궁한 데 이르면  
 일월성신이 여기에 매달려 그 빛으로 만물을 비춘다[내 몸은 빛]. 지금 여기 내 몸  
 에 있는 땅은 한 줌의 흙인데 금기야 한없이 후함에 이르면 태산 같은 화악華嶽을  
 실어도 무겁지 않고, 하해河海를 담아도 새지 않을 정도라 만물을 싣고도 남는다.  
 땅위에 서 있는 지금 여기 이 한 몸뚱이는 주먹만 한 돌덩이인데 금기야 광대한 데  
 이르면 초목이 거기서 살아가고, 금수가 거기에 거하고, 금은보화의 창고가 된다. 지  
 금 여기 내 몸에 있는 물은 한 잔의 물인데 금기야 측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면  
 자라, 악어, 이무기, 용, 물고기, 남생이가 거기서 살고 값진 재화를 불린다.<sup>79)</sup>

자연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모든 몸은 지금 내 몸의 진실  
 과 동일한 문화(文化) 안에 존재한다. 문(文)에 근거하여 문화(文化)를 이해하고 이  
 것으로 몸-생김을 이해하면, 사실상 몸-생김의 무한성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  
 로서 문(文)에 의해서 생산된 상품(財)이다. 이 상품(財)으로 또 다른 상품(財)을 생  
 산하는 것이 몸-놀이이다. 왜냐하면 몸-놀이는 감정이며, 이 감정의 본질은 몸의 생  
 명과 사랑을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몸으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는 욕망이기 때  
 문이다. 이 욕망에 근거하여 문화상품은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변화하며, 변화된 문  
 화상품은 또 다신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변화하며, 이것은 무한히 진행된다.

욕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욕망이란, 인간의 본질이 주어진 정서에 따라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결정된다  
 고 파악되는 한에서 인간의 본질 자체이다.<sup>80)</sup>

여기에서 “주어진 정서”란 몸-놀이를 뜻하는 감정의 무한성이다. 감정은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히 존재한다. 이러한 감정의 무한성 가운데 어떤 감정을 구체적으로  
 느끼면 이것이 곧 ‘주어진 정서’이다. 그런데 이미 정리한 바와 같이 감정의 무한성  
 은 문화(文化)로 존재한다. 즉,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자기 본성으로 갖는다. 그  
 렵다면, “인간의 본질이 주어진 정서에 따라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결정된다”는 것은  
 감정의 진실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감정의 무  
 한 양태는 절대적으로 문화(文化)의 감정이며, 따라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78) 『中庸』, 26장.

79) 조중빈 역설, 『자동중용』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8), pp. 187-188.

80) 스피노자 저, 강영계 역, 『윤리학』, (서광사 2014), p. 219.

서 문(文)을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 갖기 때문이다.

주어진 어떤 감정이 이미 문화상품이며, 이것을 다시 그에 고유한 본성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문화상품으로 존재하는 것을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만들어 내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런 방식으로 문화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 주어진 정서에 따라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결정된다”는 것이며, 이것이 인간의 본질로서 욕망이다. 이렇게 감정에 근거하여 감정의 진실을 이해하고, 그 이해에 근거하여 문화상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문화상품이기 때문에 결국 문화상품은 철두철미 덕(德)에 기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용』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앞에서 제시한 인용의 핵심을 다시 인용하겠다.

땅위에 서 있는 지금 여기 이 한 몸뚱이는 주먹만 한 돌덩이인데 급기야 광대한 데 이르면 초목이 거기서 살아가고, 금수가 거기에 거하고, 금은보화의 창고가 된다. 지금 여기 내 몸에 있는 물은 한 잔의 물인데 급기야 측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면 자라, 악어, 이무기, 용, 물고기, 남생이가 거기서 살고 값진 재화를 불린다.<sup>81)</sup>

“땅위에 서 있는 지금 여기 이 한 몸뚱이”는 문화로 존재하는 지금 나의 몸이다. 이 몸을 두고 “주먹만 한 돌덩이인데 급기야 광대한 데 이르면 초목이 거기서 살아가고, 금수가 거기에 거하고, 금은보화의 창고가 된다.”고 한다. 자연의 모든 몸이 몸-생김으로 존재하는 한에서 지금 나의 몸도 문화이며 그 모든 자연의 무한한 몸도 당연히 문화이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문화로서 나의 몸은 천지자연의 모든 몸과 본래 하나이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논점이다. 이 지점에서 지금 나의 몸을 비롯하여 세상 모든 몸은 문화상품이다. 문(文)에 의해서 존재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내 몸에 있는 물은 한 잔의 물인데 급기야 측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면 자라, 악어, 이무기, 용, 물고기, 남생이가 거기서 살고 값진 재화를 불린다.”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재화를 불린다.”이다. 자연의 천지만물이 이미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무한한 몸을 지금 나의 몸의 생명과 사랑을 위해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재화를 불린다.”라는 뜻이다. 이것이 주어진 ‘정서’에 근거하여 일정한 행동을 결정하는 욕망의 진실이다. 이미 존재하는 문화상품을 지금의 나를 위해서 다시 새로운 문화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文)에 근거하여 문화(文

---

81) 조중빈 역설, 『자동중용』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8), pp. 187-188.

化)를 이해하면, 몸-생김이 이미 문화상품이다. 문(文)이 자기 스스로 변화하는 문화(文化)의 결과 생겨난 것이 몸-생김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지금 나도 문화상품이며, 자연의 모든 것이 문화상품이다. 문화상품 안에서 나와 세상 모든 것은 본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문(文)을 본성으로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존재하는 내가 나의 생명과 사랑을 추구하는 욕망에 근거하여 생명과 사랑으로 존재하는 나의 몸인 ‘자연의 천지만물’을 생명과 사랑을 위해 다시 문화상품으로 만들어낸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자연을 문화상품으로 만들어내는 한 자연에 대한 착취나 훼손은 상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의 몸과 자연의 몸이 본래 하나이며, 이 사실 안에서 문화상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 제4장 문화상품의 소비에 관하여

앞의 3장에서는 유교문화의 감정과학인 『대학』과 『중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통해 ‘문화상품’의 개념을 논의하였다. ‘문화’란 몸 그 자체의 본성으로서 생명과 사랑의 영원무한이며, 이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연역되는 감정 그 자체의 본성으로서 생명과 사랑의 영원무한이다. 몸-생김과 놀이를 관통하는 진리가 ‘문화’이다. 이 진리에 입각하여 ‘문화상품’의 개념을 3장에서 구체적으로 탐구했다. 본 논문은 이곳에서 지금 우리 자신의 몸, 그리고 지금 우리 자신의 몸이 느끼는 지금 우리 자신의 감정이 실질적으로 ‘문화상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몸이 생겨나고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감정이 생겨난다. 이 문화상품에 근거하여 몸으로 놀이하듯, 즉 몸이 느끼는 감정의 진실 안에서 감정이 만들어 낸 모든 것이 문화상품이라는 결론 또한 필연적이다. 따라서 이곳 4장에서는 3장의 문화상품의 개념에 입각하여 문화상품의 소비, 즉 본 논문의 핵심 주제인 ‘문화소비’의 개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제1절 덕(德)에 기초한 소비

#### 1. 예술로서 문화소비

우리 앞의 세 장의 연구를 통해 문화의 본질은 몸의 생김과 놀이 속에 내재된 생명과 사랑의 영원무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의 모든 것은 문화상품이다. 그렇다면 문화상품에 대한 소비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 문제의 답을 찾기에 앞서서 소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자.

소비는 인간이 ‘소비상품’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종의 경제 행위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에는 소비자의 소비 요구,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이 포함된다. 경제학에서 소비는 새로운 주재를 구입하는 것 외에 물품과 노동에 사용되는 가계의 지출을 말한다.<sup>82)</sup>

82) 百度百科(바이두 백과), 2020, “消費詞條,” <https://baike.baidu.com/item>(검색일: 2023. 03. 24). ‘바이두 백과’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포괄하는 중국어 정보 수집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내용의 온라인 백과사전 플랫폼이다.

소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생산과 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질적 부(富)’를 소비하는 행위로 요약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적 부’이다. 소비의 목적을 물질적 부의 축적에 두면, 부의 축적을 가져오지 않는 소비는 사실상 소비가 아니게 된다. 이로부터 상품은 그 자체의 본성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부’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이 좋은 상품으로 취급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발생한다. 물질적 부를 가져오는 것이 좋은 상품이고 더 나아가 물질적 부를 가져오는 상품에 대한 소비가 좋은 소비라면, 우리 자신의 몸과 몸이 느끼는 감정 보다는 눈에 보이는 재산의 증식만이 목적으로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몸(감정)은 재산을 위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비극을 『대학』은 ‘이신발재’(以身發財)<sup>83)</sup>라고 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터무니없는 결론이다.

①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최고의 완전성이기 때문이다. 한편,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 수단이라면, 당연히 수단은 목적에 비하여 보다 덜 완전한 것이다. 그런데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결론은 오류이다.

② 나의 몸(감정)이 이미 최고의 완전성으로 문화상품이며, 이것으로부터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문화상품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 경우 소비는 엄격히 말해서 물질적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최고의 완전성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이 보다 더 큰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기쁨이다. 이 기쁨을 ‘이재발신’(以財發身)이라고 했다.<sup>84)</sup> 따라서 물질적 부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는 기쁨을 역행하는 슬픔이다.

이상으로 소비에 대한 일반적 이해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므로 이하에서는 문화상품의 소비, 즉 ‘문화소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화상품의 핵심은 덕(德), 즉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이 핵심어를 근거로 『논어』를 읽어 보면, 다음과 같은 공자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

子曰 由知德者鮮矣<sup>85)</sup>

83) 본 논문의 3장, 제2절 문화상품에 관하여, 2. 이미 문화상품으로 존재하는 ‘나’, 2) 이신발재(以身發財)? 이재발신(以財發身)! 에서 다루었다.

84) 본 논문의 3장, 제2절 문화상품에 관하여, 2. 이미 문화상품으로 존재하는 ‘나’, 2) 이신발재(以身發財)? 이재발신(以財發身)! 에서 다루었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유(由)야, 자기가 타고난 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생선 같은 사람이다.”<sup>86)</sup>

조중빈에 따르면 덕(德)을 이해하는 사람이 싱싱하게 살아 있는 사람이다. 본 논문에 의하면 덕(德)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그리고 이 결론은 유교문화를 정초한 공자의 감정과학에 근거한 것이므로, 우리는 당연히 여기에서 공자의 ‘덕’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편, 이 주제는 문화에 대한 감정과학의 분석에 근거하여도 지극히 당연하다. 문화는 몸-생김의 진실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며, 이 진실은 그대로 몸-놀이에 고유한 본성으로 존재한다.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이상으로 생생한 삶은 없으므로, 덕을 안다는 것은 자기 생명의 진실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덕(德)에 대한 기초 논의를 생명과 사랑의 진실로 확인하면, 공자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에서 문화소비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

子曰 志於道 據於德 依於仁 游於藝.<sup>87)</sup>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사랑[道義]에 뜻을 두고, 타고난 나의 재능[德]에 의거하고, 내 몸[仁]을 의지하고, 손에 잡히는 일을 즐긴다.”<sup>88)</sup>

위의 번역에서 핵심 논점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① 지어도(志于道)[세상사랑]
- ② 거어덕(據於德)[타고난 나의 능력]
- ③ 의어인(依於仁)[느낌에 의지하고]
- ④ 유어예(游於藝)[느낌에 의지하고, 논리를 따라 즐겁게 논다]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은 ‘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유한 본래 능력이 다. 이 능력이 ‘느낌’인데, 느낌은 감정의 진실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생명과 사랑을 확인하거나 촉진하는 것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한다. 이러한 감

85) 『論語』, 「衛靈公」 3장.

86)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342.

87) 『論語』, 「述而」 6장.

88)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177.

정에 기초한 직관이 느낌이다. 이 느낌을 공자는 인(仁)이라고 한다. 즉,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고유한 본성으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 느낌이다. 이 느낌이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타고난 능력인데, 그 결과는 ‘예술’이다. 인생이 예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위의 정리를 문화소비로 이해할 수 있다. 소비는 서로의 덕을 나누는 생명과 사랑의 장엄한 현장이기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이 세상이다. 이 세상은 나의 타고난 능력, 즉 생명과 사랑에 기초한다. 이 진실이 소비를 하는 판단력이다. 즉, 생명과 사랑의 영원무한 안에서 생명과 사랑의 영원무한을 주고받는 모든 상품 생산 및 그에 대한 소비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문화소비가 예술이다. 따라서 문화소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의 무한성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문화소비의 핵심내용의 첫 번째로서 다음을 제시한다.

## 문화소비는 ‘예술’이다.

### 2. 정의로운 문화소비

우리가 1장에서 문화소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정리할 때, 문화소비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추세를 형성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나는 문화소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소비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매우 다른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경향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논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연구든 부정적인 연구든 소비 ‘현상’에 국한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감각적 ‘현상’을 통해 문화소비를 정의하게 되면, 소비 자체의 본성뿐만 아니라 본 논문이 추구하는 문화소비의 정확한 개념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공자의 『논어』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자張 문崇덕辨惑 子曰 主忠信 徙義 崇德也 愛之 欲其生 惡之 欲其死 既欲其生 又  
 欲其死 是惑也 誠不以富 亦祇以異.<sup>89)</sup>

자장이 덕을 숭상하고, 미혹을 판별하는 것에 대하여 문자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忠] 완전한 자기 몸을 믿음[信]으로 의義에 이르는 것[後]이 덕을 숭상하는 것이다. 사랑하면 그가 사는 것을 원하고 미워하면 그가 죽기를 원하

89) 『論語』, 「顔淵」 10장.

는 것인데, 이미 살기를 원하고서 또 죽기를 원하면 이것이 미혹된 것이다. 미워 죽겠다는 생각이 들 때 이제 볼 장 다 봤다고 오만하게 굴지 말고[不以富, 富面無驕] 정성껏 살피며[誠], 미워서 미운 것이 아니라 다만 나와 달라서[異] 그렇다는 사실을 꼭 붙들어라[祇].”<sup>90)</sup>

## 1) 원인

애 지 욕 기 생 오 지 욕 기 사 기 욕 기 생 우 욕 기 사 시 혹 야<sup>91)</sup>

사랑하면 그가 사는 것을 원하고 미워하면 그가 죽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미 살기를 원하고서 또 죽기를 원하면 이것이 미혹된 것이다.<sup>92)</sup>

위의 논의를 소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소비의 현상이 좋으면, 소비를 좋은 것으로 판단한다. 반면, 소비의 현상이 나쁘면, 소비를 나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은 문화소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공자에 의하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미혹된’(惑) 것이다. ‘혹’(惑)이 생기는 이유는 소비의 ‘현상’에 의존하여 생각하기 때문이다. 소비 그 자체의 본성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절대적으로 현상을 떠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현상에 자신을 가두고 그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이 경우 생각은 사실상 생각이 아니다. 이 문제를 조중빈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지적한다.

미워 죽겠다는 생각이 들 때 잘 생각해 보라. 바로 조금 전에 좋아 죽겠다고 물고 빨고 하지 않았던가.<sup>93)</sup>

여기서 핵심은 “잘 생각해 보라.”이다. 현상을 떠나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현상에 나아가 왜 그렇게 되는지 그에 고유한 필연성을 생각하라는 뜻이다. “바로 조금 전에 좋아 죽겠다고 물고 빨고 하지 않았던가.”라는 것이 근거이다. 이것을 문화소비의 개념에 적용할 수 있다. 소비의 현상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말고, 소비의 현상에 나아가 왜 좋다고 느끼는지 왜 싫다고 느끼는지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한다.

## 생각의 기초 내지는 생각의 방법은 무엇인가?

90)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271.

91) 『論語』, 「顔淵」 10장.

92)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271.

93)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272.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당연히 감정 그 자체의 본성으로서 문화, 즉 생명과 사랑의 영원무한이다. 이것을 덕(德)이라고 했으므로, 사실상 생각의 방법은 덕이다. 이 사실이 분명할 때 미혹(惑)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쁨의 감정도 생명과 사랑 안에 존재하며 미움의 감정도 생명과 사랑 안에 존재한다. 이 사실이 분명할 때, 미움의 대상에 대해서 생명과 사랑 안에서 묻고 배울 수 있다. 문화소비의 개념도 이러한 방식으로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항목에서 하겠다.

## 2)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공자에 의하면 ‘혹’(惑)을 해결하는 방법이 ‘덕’(德)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혹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덕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확인은 문화소비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직결된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 장 문 숭덕 변 혹 자 완 주 충 신 사 의 숭덕 야<sup>94)</sup>  
子張問崇德辨惑子曰主忠信徙義崇德也

자장이 덕을 숭상하고, 미혹을 판별하는 것에 대하여 묻자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忠] 완전한 자기 몸을 믿음[信]으로 의[義]에 이르는 것[徙]

이 덕을 숭상하는 것이다.<sup>95)</sup>

조충빈의 번역에 따르면 핵심은 ‘숭덕(崇德)’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등식을 확인할 수 있다.

$$\text{주충신사의(主忠信徙義)} = \text{숭덕(崇德)}$$

위의 명제를 본 논문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덕(德)=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지금 ‘나’의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

여기서 ‘충(忠)’은 생각하는 마음을 자신에게 두고, 자신의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즉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몸의 본성이 몸-놀이의 본성이며 본래부터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충(忠)’으로 이해하고, 자신이 완전히 이룬 이 이해가 ‘신’(信)이다. ‘사의’(徙義)는 이 공부의 ‘너’를 믿고 배우는 학문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94) 『論語』, 「顔淵」 10장.

95) 조충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271.

자기 몸에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확인함으로써 자기 몸이 느끼는 감정의 진실 또한 생명과 사랑의 영원무한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덕(德)을 높이는 주충신(主忠信)의 숭덕(崇德)이다. 이 진실이 나를 비롯한 세상 모든 것의 진실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사의(徙義)이다. 따라서 생명과 사랑 안에서 모든 몸의 생김과 놀이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는 위의 결론을 가지고 문화소비를 현상이 아닌 그 자체의 본질로 이해할 수 있다. 소비의 현상에 의존하여 서로 다른 각자의 감각으로 소비의 좋고 나쁨 또는 옳음과 그름을 판단해서는 절대적으로 소비에 대한 참다운 인식을 확립할 수 없다. 생명과 사랑 안에서 생명과 사랑을 확인하고 오직 이 진실을 보호하며 가꾸는 소비가 문화소비이다. 이 소비의 개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소비의 내용이 도출된다.

① 문화소비는 자연을 보호하고 지킨다.

: 문화소비는 생명과 사랑을 지키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생명과 사랑을 파괴하지 않는다. 문화소비는 자연의 생명과 사랑을 존중하며 그것을 최대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한다.

② 문화소비는 인권을 보호하고 지킨다.

: 문화소비 안에서 상품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는 생명과 사랑 안에 존재한다. 따라서 상품의 생산자는 절대적으로 생명과 사랑을 부정하는 상품을 만들지 않으며, 상품의 소비자 또한 절대적으로 생명과 사랑을 부정하는 상품을 소비하지 않는다.

위의 두 가지 원칙을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4부 정리 72.

자유로운 인간은 결코 간사하게 행동하지 않고 언제나 신의를 가지고 행동한다.<sup>96)</sup>

그러므로 본 논문은 문화소비의 핵심내용의 두 번째로서 다음을 제시한다.

**문화소비는 ‘정의’이다.**

---

96) 스피노자, 강영계 역, 『에티카』 「4부 정의 72」 (서광사, 2007), p. 312.

### 3.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문화소비

덕(德)에 기초한 소비가 믿음의 소비이며, 이 소비만이 생명과 사랑을 지키기 때문에 사실상, 문화소비만이 유일한 경제 원칙이다. 공자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은 『논어』로 설명하였다.

자왈 덕불고 필유린.<sup>97)</sup>  
子曰 德不孤 必有鄰.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덕은 나누는 것이다[德不孤]. 반드시 네게도 나눠주는 이웃이 있다.”<sup>98)</sup>

오직 ‘덕’에만 이웃이 있다. 덕에 근거하는 소비만이 서로에게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덕이 아니면 이웃이 없다. 그래서 모든 생산자에게 ‘덕(德)’을 이해하고 ‘덕(德)’을 나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며, 자기 자신의 ‘덕(德)’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덕(德)’을 나누고,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의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소비자에 대한 덕(德)의 표현에 대해 조중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덕분(德分)입니다’라고 말한다. 덕분이 왕도, 즉 모두가 왕 대접 받는 세상의 시작이요 끝이다.<sup>99)</sup>

감정과학에 기초한 ‘덕(德)’ 소비를 이해하면 그 본질은 ‘사랑’ 소비, 즉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소비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나’가 하는 모든 소비행위는 문화소비다. 그렇다면 덕(德)을 여기는 소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물음에 대하여 공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혹왈以德報怨 何如 子曰何以報德 以直報怨 以德報德.<sup>100)</sup>  
或曰 以德報怨 何如 子曰 何以報德 以直報怨 以德報德.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덕을 베풀어 원망을 없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에게 입은 은혜는 무엇으로 갚으려는가? 잘못해서 원망이 생긴 것이니 잘못을 바로잡아 원망을 없이 하고, 덕으로는 덕을 갚는 것이다.”<sup>101)</sup>

97) 『論語』, 「裏仁」 25장.

98)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123.

99)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123.

100) 『論語』, 「憲問」 36장.

101)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330.



조중빈의 설명을 통해 공자의 사상은 '以怨報怨(이원보원)' 악순환에 반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공자는 남의 잘못과 과거를 들추어 보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공자는 '以直報怨(이직보원)'고 주장했고, 나를 해친 사람을 정직한 마음과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해 그의 잘못을 바로 잡았다. 스피노자도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 4부 정리 46

이성의 지도에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자신에 대한 타인의 미움, 분노, 경멸 등을 반대로 사랑이나 관용으로 보상하고자 노력한다.<sup>102)</sup>

덕을 어기는 소비에 대해서는 그것을 소비의 현상으로 간주하거나 그것으로 소비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덕을 어기는 소비는 소비가 아니라 소비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소비는 각자 자신의 덕으로 서로에게 덕을 나누는 것이므로, 소비의 잘못에 대해서는 소비 그 자체의 진실로서 문화소비의 개념을 가르쳐주는 것 이외 방법이 없다. 이것을 '이직보원'이라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문화소비의 핵심내용의 세 번째로서 다음을 제시한다.

**문화소비는 '생명과 사랑'이다.**

## 제2절 문화소비의 원칙과 내용

본 논문은 '감정과학'을 바탕으로 '문화소비'에 대해 연구했다. 특히 본 논문 제2장에서는 중국의 가장 오래된 문자인 갑골문에 근거하여 '문화'의 어원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유교문화의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문화개념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증명에 입각하여 본 논문은 본격적으로 감정과학의 문화개념에 입각하여 문화상품(3장)과 문화상품의 소비로서 문화소비(4장-1절)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정리된 논의를 토대로 문화소비의 원칙과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다. 따라서 문화소비의 개념을 확정하겠다.

### 1. 문화소비의 원칙

102) 스피노자, 강영계 역, 『에티카』 「4부 정의 46」 (서광사, 2007), p. 289.

본 논문은 '감정과학'을 바탕으로 '문화소비'에 대해 연구했다. 특히 본 논문 제2 장에서는 갑골문 '문화'에 대한 분석 결과, 몸의 본질인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확인 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화소비의 대원칙을 정리하였다.

### 1) 생명에 반하는 소비는 문화소비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몸에 나아가 생김의 진실을 생각해 보면, 엄마아빠의 존재는 필연적이다. 엄마아빠의 몸에 고유한 영원무한의 생명이 지금 '나'의 몸을 낳아준 것이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엄마아빠의 생명은 영원무한의 사랑이다. 이 진실로부터 지금 내 몸의 진실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이 진실 안에서 소비를 위한 상품을 만들어야 하며, 이 진실 안에서 상품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문화소비의 큰 원칙이다.

이 원칙을 분명히 하고 나면, 생명을 어기는 상품이나 소비는 문화소비가 아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만약 우리가 자기 몸의 생명을 감각적 현상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생명을 이해하면 다른 생명을 돈으로 사고파는 비극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많은 부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있으며, 돈의 유혹으로 인해 많은 장기 매매 활동이 파생되고 있다.

이런 소비는 절대 인정받지 못하고, 생명에 반하는 소비이며, 생명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소비를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불법 장기 매매는 당연히 현대 법률 체계 안에서 소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몸의 소중한 장기가 돈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화소비는 법률의 한계 안에서 소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개념 자체를 명백히 함으로써 애초부터 불법 거래나 불법 소비가 사라지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이해한 몸의 본질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이 진실 안에서 생로병사를 이해하는 한에서 생명과 사랑을 어기는 소비는 법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저절로 발생하지 않는다. 진방은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생명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경제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

생로병사는 몸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 자명하다. 특히, 몸에 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신의 저주 같은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몸의 진실을 이해하기 이전까지 몸에서 생겨나는 병을 저주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전생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 등과 같은 거짓말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몸이 겪는 생로병사를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이해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몸이 어떠한 필연성으로 생로병사를 겪게 되는지 연구하고 그에 고유한 필연성을 명백하게 이해한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몸에 병이나 아픈 것 보다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감정의 진실이다. 몸의 진실을 이해하는 참된 의사가 모든 병에 고유한 필연성을 이해하는 의사이며, 그 결과 세상에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없게 된다. 103)

생명의 진실을 이해함과 동시에 몸의 본성을 영원무한의 필연성으로 인식하면, 뜻밖에 의학이 발전하게 되며, 그 결과는 불법적인 장기 매매 등과 같은 생명을 부정하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게 된다. 진방의 생명에 대한 이해에 따르면, 우리는 몸이 겪는 '생로병사(生老病死)'가 실제로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진리를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모든 생명을 존중하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결국 죽음도 생명과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은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죽음 앞에서도 평온해질 수 있다. 더 이상 남의 목숨에 맡기는 사람이 없으니 장기매매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진실을 아는 소비만이 문화소비이지 생명에 반하는 소비는 결코 문화소비가 아니다.

## 2) 사랑에 반하는 소비는 문화소비가 아니다

감정과학은 몸으로 살아가는 '몸-놀이'로서 감정(情)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추구하는 과학이다. 그래서 감정과학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 감정과학의 논리: 몸-생김으로부터 몸-놀이

본 논문의 연구방법 및 분석방법으로서 공자의 사여학(思與學)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의 몸을 배운다고 할 때, 이 배움은 생각하는 마음의 사유(思)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 마음이 자기 사유 안에서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몸의 진실은 엄마아빠로부터 자기 몸의 필연성이다. 이는 사실상 고유한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엄마 아빠의 존재는 우리 몸에 내재된 존재의 필연성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없이는 지금 '나'의 몸은 존재할 수 없다. 엄마 아빠의 존재는 충분히 확실한

---

103) 진방, "감정과학에 근거한 『논어(論語)』의 '빈부' 이해," 국민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2022), p. 87.

진리다.

본 논문 2장에서 '화'의 의미를 연구하면서 갑골문 '화'는 우리 몸속에 엄마, 아빠의 존재를 확인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엄마의 생명과 아빠의 생명이 사랑으로 내 몸의 생명을 낳았다는 사실은 영원의 진실이기 때문에 이 진실 안에서 생명과 사랑도 당연히 영원의 진실로 존재한다. 이 사실로부터 내 몸의 본성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 분명하다.<sup>104)</sup>

내 몸은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난 부모님의 사랑이다. '화'에 관한 갑골문이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 무엇인지 말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몸 안에 존재하는 사랑(섹스)의 원칙은 엄마 한 분과 아빠 한 분, 그리고 이 두분의 사랑(섹스)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으로 사랑(섹스)을 한다고 할 때, 원칙은 당연히 내 몸이 하는 사랑에 관하여 본성으로 존재하는 엄마아빠의 사랑(섹스)을 어기거나 부정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문화소비의 대원칙이 나온다.

#### 《문화소비의 대원칙 1.》

사랑(섹스)을 돈으로 사고파는 소비 활동은 문화(文化)에 고유한 몸의 본성에 근거하여 문화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뜻에서 문화소비라고 긍정할 수 없다. <sup>105)</sup>

'엄마아빠'가 자신의 몸 안에 존재하는 영원무한 생명이자 사랑임을 알게 되면 그 즉시 우리는 엄마아빠의 진실 안에서 사랑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돈으로 사랑(섹스)을 사고팔고 성매매를 한다. 이런 사람은 문화상품을 생산할 수 없고, 문화상품을 소비할 줄도 모른다. 그래서 '사랑'에 반하는 소비는 문화소비가 아니다. 그러므로 특정 상품의 생산 및 소비에 관계없이 생명과 사랑을 위반하는 모든 소비 활동은 절대 문화소비가 아니다.

## 2. 문화소비의 내용

문화상품에 대한 이전 연구를 통해 문화상품의 소비는 '덕(德)'에 기초해야 한다

---

104) 본 논문의 2장, 제1절 문화(文化)의 어원, 2. 화(化)의 개념 분석, 3) 몸의 본질로서 文의 변화를 상징하는 화(化), (2) 몸-놀이로서 화(化)에서 다루었다.

105) 본 논문의 2장, 제1절 문화(文化)의 어원, 2. 화(化)의 개념 분석, 3) 몸의 본질로서 文의 변화를 상징하는 화(化), (2) 몸-놀이로서 화(化)에서 다루었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논문의 4장 1절에서는 문화소비의 3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는데 각각 1 예술로서 문화소비, 2 정의로운 문화소비, 3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문화소비이다. 이하에서는 생명과 사랑이라는 문화소비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문화소비의 내용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겠다.

## 1) 문화소비는 ‘예술’이다

예술이 뭐냐 하면 예술은 하나의 표현이고 마음과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모든 그림이 예술인 것은 아니며 부정적인 에너지와 외설적인 그림을 펴 뜨리는 것은 예술이 아니다. 예술을 감각적으로 본다면 예술은 항상 삶의 부가물이며 수반되는 현상, 지루한 삶을 조절하는 수단, 오락일 뿐이다. 그러나 예술을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감정은 자기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존재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 스스로가 무한히 감정을 느낄 때 각자의 감정으로 들어가고 그 감정이 원래 내포되어 있는 자기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한 결과 감정은 순수한 선(善)이고 악(惡)이 없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예술은 영원한 선과 아름다움이다. 그렇다면 무한한 사랑과 생명을 바탕으로 서로 덕을 나누는 문화소비로서 예술이기도 하다. 문화소비는 사랑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순선무악(純善無惡)이며, 이러한 소비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 2) 문화소비는 ‘정의’이다

이전 절의 내용에서 우리는 문화소비의 두 가지 내용을 요약했다. 첫 번째는 ‘문화소비는 자연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문화소비는 인권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이다.

### ① 문화소비는 자연을 보호하고 지킨다.

: 문화소비는 생명과 사랑을 지키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생명과 사랑을 파괴하지 않는다. 문화소비는 자연의 생명과 사랑을 존중하며 그것을 최대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한다.

### ② 문화소비는 인권을 보호하고 지킨다.

: 문화소비 안에서 상품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는 생명과 사랑 안에 존재한다. 따라서 상품의 생산자는 절대적으로 생명과 사랑을 부정하는 상품을 만들지 않으며, 상품의 소비자 또한 절대적으로 생명과 사랑을 부정하는 상품을 소비하지 않는다.

문화소비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의 본질이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한 후에 나타나는 일종의 '덕(德)'을 교환하는 행위이다. 그 결과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곧 '세상을 사랑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행복한 소비를 위해서는 자신의 행복이 명확해야 한다. 이것은 문화소비의 기초이다. 이러한 행복이 명확할 때 비로소 문화소비가 행복으로 경영될 수 있다. 사람들이 이러한 소비를 이해할 수 있다면 생산자는 자연을 의식적으로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소비자는 이 행복과 평화를 지킬 것이다. 이때 문화소비는 절대적으로 정의로운 존재이다. 그래서 문화소비는 정의이다.

### 3) 문화소비는 '생명과 사랑'이다

이상의 연구에서 우리는 문화상품=덕(德), 문화소비=나눔의 '덕(德)'을 확인하였다. '덕(德)'=끝없는 생명과 사랑'이다. 그래서 덕(德)을 나누는 것은 끝없는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내 몸의 본질도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다. 그러면 문화소비의 결과, 이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영원히 무한한 생명과 사랑을 지키고 '덕(德)'을 지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화소비를 하면 소비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약탈 소비'가 아니라 선의와 사랑을 나누는 '애정 소비'가 된다.

경제의 진리는 누구 한 사람도 가난으로 인해 고통 받거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영위하는 가운데 자신만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반드시 몸 그 자체의 본성으로 존재하는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없으면 그 어떤 경제활동을 상상할 수 없으며, 따라서 경제의 진리를 논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의 진리를 정리하면, 감정과학의 경제는 '다 좋은 세상'의 경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따르는 경제입니다.<sup>107)</sup>

분명한 것은 문화소비가 사실 일종의 경제활동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진실을 영원히 무한한 생명과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잘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덕을 나누는 문화소비이다. 그래서 문화소비가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6) 본 논문의 4장, 제1절 덕(德)에 기초한 소비, 2. 정의로운 문화소비, 2)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다루었다.

107)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305.

## 제5장 결론

본 논문은 올바른 '문화소비'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올바른 '문화소비'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문화소비에 대한 매우 다른 두 가지 태도(부정적 태도와 긍정적 태도)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는 '문화소비'의 올바른 개념이 무엇인지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감정과학을 사용했다. 왜냐하면 감정과학은 현상에 나아가 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인식하는 문화교차학의 학문론이기 때문이다.

'문화소비'를 현상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그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주장이 발생하며, 이 두 주장은 서로 자신이 옳다며 해석 전쟁을 벌이게 된다. 그런데 이 두 진영은 공통적으로 소비 그 자체의 본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어떤 소비 현상으로 문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문화의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다. 결국 문화소비에 대한 참다운 인식 보다는 서로에게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억지와 강요만을 일삼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는 문화소비가 무엇인지 절대 알 수 없다.

소비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에서 기원한다. 즉, 우리는 몸으로 생겨나서 몸으로 살아가는 놀이를 즐긴다. 몸의 놀이 가운데 하나가 소비이다. 그렇다면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 입각하여 소비에 대한 참다운 인식은 당연히 몸에 대한 참다운 인식에 기초해야 한다. a가 있으므로 b가 있고 반대로 a가 없으면 b도 없다고 할 때, 이때 a는 b의 본질로 존재한다. 이렇게 본질에 대한 정의에 기초하여 소비의 본질은 우리 자신의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소비와 몸 사이를 연결하는 욕망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몸이 존재하므로 몸의 놀이 가운데 하나인 소비를 욕망하며, 그 결과 소비를 하게 된다.

소비에 대한 이해 → 욕망에 대한 이해 → 몸에 대한 이해

위의 도식을 이제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다.

몸에 대한 이해 → 욕망에 대한 이해 → 소비에 대한 이해

위의 도식에 근거하면 몸에 대한 이해가 소비에 대한 이해로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감정과학이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 등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감정과학은 몸 그 자체의 본성을 인식함으로써 몸이 느끼는 감정, 즉 근본적으로 욕망 그 자체의 본성을 인식하는 학문론이다. 이 학문론에 근거하여 몸을 이해하면, 그것이 곧 욕망에 대한 이해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소비에 대한 이해로 직결된다. 특히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서 감정과학은 유교문화의 학문론에 기초하는데, 이 학문론 몸에 대한 참다운 인식을 추구한다. 유교문화의 학문론을 감정과학으로 정리하고, 그것으로 몸을 이해하는 것이 논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 修身(『大學』) = 修己(『論語』) = 학기(學己)

이 방법으로 본 논문은 문화의 개념을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문화상품의 개념을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문화소비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특히 문화개념은 실질적으로 우리 몸의 진실에 직결된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성동권이 제시하는 몸의 진실에 입각하여 문화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본래 모습은 사랑의 이치에 대한 앎으로 사랑만을 주고받는 존재이다.<sup>108)</sup>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사랑이다. 이 사랑의 진실을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영원·영생의 理發 이외 다른 마음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본래 純粹至善의 영생으로 태어나서 純粹至善의 영생으로 살다가 순수지선의 영생으로 죽는다.<sup>109)</sup>

사랑 안에서 사랑만을 주고받도록 결정된 것이 지금 우리 몸의 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원무한의 필연성으로부터 몸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며 동시에 순수지선이다. 사랑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기원이며 동시에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사랑 이외 없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영원의 생명 이외 없다. 그리고 이 생명의 사랑을 본질로 갖기 때문에 몸의 생명은 영원의 생명이면서 동시에 영원의 순수지선이다. 이 사실로부터 몸이 느끼는 욕망 및 이것으로부터 느끼는 감정의 진실

108) 성동권, “退溪의 西銘考證講義에서 乾坤父母 研究,” 『퇴계학논집』 (영남퇴계학연구원, 2015), p. 385.

109) 성동권,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증명된 퇴계 선생의 경(敬),” 『퇴계학논집』 (영남퇴계학연구원, 2016), p. 412.



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매순간 후협에서 새로운 감정은 자기 안에서 있는 분석[情理:순수지선]을 스스로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필연성[순수지선]을 이해하게 되고, 이 이해 안에서 감정은 자신의 순수지선을 있는 그대로 즐기며 살게 된다.<sup>110)</sup>

몸-생김의 진실이 영원무한의 순수지선이기 때문에 몸-놀이의 진실 또한 영원무한의 순수지선이다. 몸이 느끼는 욕망의 진실이 영원무한의 순수지선이기 때문에 이 욕망으로 하는 모든 소비도 당연히 영원무한의 순수지선이다. 왜냐하면 소비는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영원무한의 순수지선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원무한의 순수지선이 문화이며, 이것으로 영원무한의 순수지선을 상품을 만들어 내면 그것이 곧 문화상품이다. 이 상품을 소비하는 것도 결국 영원무한의 순수지선을 향유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영원무한의 순수지선 안에 있다.

그러므로 문화소비는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며 동시에 생명과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소비의 무한한 새로운 현상에 나아가 그 안에 과연 생명과 사랑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그것으로 소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그 결과 올바른 소비를 하면 그것이 곧 문화소비이며, 실질적으로 그것은 인간이 자기 본질인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성스러운 교차이다. 문화소비가 사실상 생명과 사랑을 배우는 학문이라는 사실을 성동권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근거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류가 자기 생명의 무한한 지속 안에서 매순간 새롭게 느끼는 자기의 감정에 나아가 사여학(思與學)을 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인류는 거대한 권태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새롭게 자기 감정의 순수지선을 배우는 거대한 새로움으로 자신의 행복과 활력을 누리게 된다.<sup>111)</sup>

매순간 무한히 새로운 소비를 문화소비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매순간 생명과 사랑을 배우며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사랑의 진실을 배우는 한에서 문화소비는 삶의 예술이며 학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문화소비는 인류가 향유할 수 있는 학문공동체 안에 있으며, 이 배움으로 인간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이 살아가는 문화교차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

110) 성동권, “성학십도 심통성정도의 중도의 장르분석,” 『퇴계학논집』 (퇴계학연구원, 2019), p. 207.

111) 성동권,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증명된 思學의 四端之情과 不思不學의 七者之情,” 『한국문화』 94(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21), p. 465.

## 참고 문헌

### 1. 원전

『논어(論語)』

『대학(大學)』

『설원(說苑)』

『문선(文選)』

『성학십도(聖學十圖)』

『중용(中庸)』

### 2. 저서

성동권. 2022.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2. 『유교문화의 학문 대학의 감정과학』. 서울: 부크크

조중빈. 2016. 『안심논어』. 서울: 국민대학교 출판부.

조중빈. 2018. 『자동중용』. 서울: 부크크.

조중빈. 2020. 『자명대학』. 서울: 부크크.

于光遠(위광위안). 2008. 『于光遠馬惠娣十年對話——關於休閒學研究的基本問題(위광위안 마후이디 10년 대화 - 레저학 연구의 기본 문제)』. 重慶(충칭): 重慶大學出版社(충칭 대학 출판부).

### 3. 번역서

스피노자 저·강영계 역. 2007. 『에티카』. 서울: 서광사.

스피노자 저·강영계 역. 2014. 『윤리학』. 서울: 서광사.

### 4. 학위 논문

유영관. 2019. “‘自明코칭’의 원리와 『中庸』의 ‘性, 道, 教’에 대한 나의 이해.” 국민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유지진. 2022. “공자의 감정과학에 기초한 『시경』 「관저」의 인간 행복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진방. 2022. “감정과학에 근거한 『논어(論語)』의 ‘빈부’ 이해.” 국민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5.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資樹榮(쓰수릉)과 張姣君(장레이쥔). 2020. ““文化消費活動提升了農村地區居民主觀幸福感嗎?”——基于 CGSS 數據的實証分析(‘문화소비활동이 농촌지역 주민의 행복감을 높였는가?’-CGSS 데이터에 기초한 실증분석),” 『消費經濟(소비경제)』, 57.

楊帆(양판). 2022. “文化資本、社會階層与文化消費的關係研究문화자본(사회계층, 문화소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商業經濟(기업 경제)』, 10.

劉容(류릉). 2018. “國內外文化消費研究述評(국내외 문화소비 연구 술평),” 『合作經濟与科技(협력경제와 과학기술)』, 85.

仰義方(양의방)과 譚雪敏(담설민). 2021. “文化消費主義的表現形式、生成机理及其糾正進路(문화소비주의의 표현형식, 생성 메커니즘 및 그 시정진로),” 『思想教育研究(사상 교육 연구)』, 89.

郭曉冉(귀샤오렌). 2020. “文化消費主義對美好精神生活的危害与應對(문화소비주의가 더 나은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해와 대응),” 『新疆社會科學(신장 사회과학)』, 108-109.

李衛華(리웨이화). 2021. ““文之道”与“文的自覺”：《文他雕龍 原道》的符号學考察(‘문의 도’와 ‘문의 자각’: 「문타조룡원도」의 기호학고),” 『中國傳統符号學思想(중국 전통 기호학 사상)』, 52.

黃劍波(황검파)과 張眞瑞(장진서). 2020. ““文”的意義与“化”的過程：作爲一种文化實踐的語言与言語(‘문’의 의미와 ‘화’의 과정: 하나의 문화 실천으로서의 언어와 언어),” 『社會學評論(사회학 평론)』, 49-50.

劉峻杉(유준삼), 王旒娜(왕미나), 代雅新(데아신). 2022. “文從先秦“文”的觀念史中挖掘“文－化”的教育意涵(선진 ‘문’의 관념사에서 ‘문화’를 발굴하다 교육적 함의),” 『教育學報(교육 학보)』, 11.

- 程旺(청왕). 2021. “儒家教化觀念的本眞价值(유가 교화 관념의 진본가치),” 『儒學評論(유학 평론)』, 27.
- 楊和偉(양허웨이). 2007. “論文化之“化”(문화의 “화”를 논하다),” 『六盤水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육반수이사범고등전문학교 학보)』, 2.
- 성동권. 2015. “退溪의 西銘考證講義에서 乾坤父母 研究,” 『퇴계학논집』, 370.
- 성동권. 2015. “退溪의 西銘考證講義에서 乾坤父母 研究,” 『퇴계학논집』, 385.
- 성동권. 2016.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증명된 퇴계 선생의 경(敬),” 『퇴계학논집』, 412.
- 성동권. 2019. “성학십도 심통성정도의 중도의 장르분석,” 『퇴계학논집』, 207.
- 성동권. 2021.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증명된 思學의 四端之情과 不思不學의 七者之情,” 『한국문화』, 465.
- 侯天宝(후텐바오). 2015. “深入理解“商品”的概念(‘상품’의 개념을 깊이 이해하다),” 『文本解讀(텍스트 해독)』, 20.
- 鄭光貴(정광귀). 2007. “商品定義新探(상품정의실타),” 『安徽師範大學學報(안후이 사범대학 학보)』, 381.

## 6. 인터넷 자료

- 知乎网. 2021. “「文」 這個字的甲骨文怎么寫?.” <https://www.zhihu.com/question/505081541>(검색일: 2022. 12. 24).
- 百度百科. 2013. “商品學名詞.” <https://baike.baidu.com/item/>(검색일: 2023. 3. 01).
- 百度百科. 2020. “消費詞條.” <https://baike.baidu.com/item/>(검색일: 2023. 03. 24).
- 百答知識. 2020. “化字形演變過程.” <http://www.bdzzz.com/bd/ziyuan/0/UFVITUo-.html>(검색일: 2023. 02. 24).
- 會計百科. 2022. “經濟學의 消費定義.” <https://baike.lichenjy.com/xiaofei/3473.shtml>(검색일: 2022. 09. 24).

## Abstract

### A Study on the Concept of Cultural Consumption Based on Emotional Science

- Focusing on the emotional science of Analects -

*by YuJia, Wang*

Department of Cross Cultural Studies  
Graduate School,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I entered the e-commerce industry. As the e-commerce industry has developed dramatically in recent years, with more and more of its peers and more competitive, my business has reached a slow-down bottleneck, unlike its initial smooth start. The outline of my job is to sell products to customers around the world through online platforms. It seems like a simple task, but this task of selling products by responding to customers was not easy for me. Realizing that my ability may still be lacking a lot, I thought I wanted to stop for a while and learn.

After much consideration, I decided to explore the concept of consumption by entering the Department of Culture and Teaching at Kookmin University. In China,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consumption as the consumer society has arrived in earnest. Among them, I liked the concept of cultural consumption. This is because I thought I could understand what the right consumption is by approaching and understanding consumption as a culture. At the same time, this understanding gave me hope that I could relieve the stress of my work. Accordingly, I started my master's degree in the Department of Cultural Interse

ction at Kookmin University and decided to study the concept of 'cultural consumption'.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Chinese economy and the continuous improvement in the standard of living of the people, the word "cultural consumption" has increasingly entered the realm of people's lives. The concept of 'cultural consumption' has gradually become an important topic in people's daily consumption. In particular, in recent years, fostering and expanding cultural consumption along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global cultural industry has become the focus and direction of common interest of the government, businesses, and the public. If so, it can be seen that the method of defining 'cultural consumption' is very important, and the method of defining 'cultural consumption' is the key.

The first chapter of the paper focuses on scholars' understanding of "cultural consumption," and through these various understandings, we can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determining the concept of "cultural consumption" in more depth. There is a need for a way to eliminate all controversies and fundamentally understand the nature of 'cultural consumption'. The way to do this is 'emotional science'. Therefore, this paper fundamentally uses emotional science as a research method derived from Confucius' Confucian culture. Through this research method, consumption can be understood as an essence, not a phenomenon. Therefore, emotional science is the research base of the concept of 'cultural consumption'.

Based on this study, this paper explored the concept of culture (Chapter 2), the concept of cultural products (Chapter 3), and the concept of consumption of cultural products (Chapter 4). Culture is an inherent essence of our body. It is eternal life and love. Moon is the body, and anger is the change of the body. Since the truth of the body understood by the text is life and love, anger as a change in the body is also life and love. Everything that is created by the body and played by the body exists in life and love. From this fact, cultural products are everything that comes from life and love, so cultural consumption is the consumption of all products that come from life and love.

Therefore, the core of cultural consumption can be established as follows. Cultural consumption is the consumption of life and love of all products that our bodies create for life and love. As long as we understand consumption in this way

ay, consumption is never about accumulating wealth of either party or exploiting either party for the purpose of it. We, who exist in life and love, exchange life and love with each other only for life and love. This is cultural consumption.

Key words :

Cultural consumption, culture, cultural products, body, virtue, emotion, life and love, forever. emotional science.